

발간등록번호

11-1370000-000109-01

2003년도 국어 정책 연구 과제

영어를 공용어로 쓰는 국가의 언어 실태와 문제점

연구 책임자 : 박영준(부경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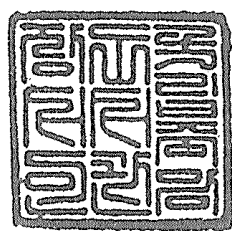
문 화 관 광 부

2003년도 국어 정책 연구 과제

영어를 공용어로 쓰는 국가의 언어 실태와 문제점

연구 책임자 : 박영준(부경대학교)

문 화 관 광 부



2988098

제 출 문

문화관광부 장관 귀하

국어 정책 연구 과제 ‘영어를 공용어로 쓰는 국가의 언어 실태와 문제점’에
관하여 귀 부와 체결한 연구 용역 계약에 의하여 연구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합니다.

2003년 12월 9일

연구 책임자 : 박영준(부경대)

공동 연구원 : 시정곤(KAIST), 정주리(동서울대),

최경봉(원광대), 장영준(중앙대)

요약문

1. 사업명 및 기간

- 사업명 : 영어를 공용어로 쓰는 국가의 언어 실태와 문제점
- 기 간 : 2003. 4 ~ 2003. 12

2. 사업의 개요

가. 취지 및 목적

본 연구는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는 국가들의 실태를 조사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 제기되고 있는 영어공용화 논쟁의 허구성을 밝히고 올바른 정책 방향을 수립하기 위한 참고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영어 공용화에 대한 정의와 범위를 정확하게 밝히고 이를 수행하고 있는 국가들에 대한 실태 조사와 문제점 분석을 심도 있게 진행하려고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단계별 세부 목적을 둔다.

첫째, 공용어의 개념을 정립한다.

둘째, 영어 공용화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를 범세계적으로 조사한다.

셋째, 영어 공용어 국가의 등급화를 위한 기준을 마련한다.

넷째, 상위등급과 하위등급으로 분류된 대표적인 영어 공용어 국가의 실태와 문제점을 조사하고 분석한다.

다섯째, 영어 공용화의 문제점을 밝히고, 영어 공용화 주장에 대응할 수 있는 합리적인 언어 정책을 제시한다.

나. 주요 내용

1) 공용어 논의 필요성과 공용어 개념의 역사적 변천

- 1.1 영어 공용에 대한 논의의 문제제기와 필요성
- 1.2 공용어 개념의 역사적 변천
- 1.3 초강대국으로서의 미국의 부각과 영어의 부상

2) 세계어로서의 영어의 위치와 사용 현황

- 2.1 영어를 단일어로 하는 국가에서의 영어 사용 현황
- 2.2 이중 언어 국가에서의 영어 사용 현황
- 2.3 영어 공용어 국가에서의 영어 사용 현황

3) 영어 공용화 국가의 유형 분류

- 3.1 분류 기준
- 3.2 등급 기준
- 3.3 영어 공용화 국가의 세 유형

4) 국가별 실태 분석

- 4.1 필리핀
- 4.2 말레이시아
- 4.3 싱가포르
- 4.4 인도

5) 영어 공용화의 이득과 손실

- 5.1 문화적 정체성의 측면
- 5.2 모국어 사용 능력의 측면
- 5.3 국가 경쟁력의 측면
- 5.4 영어 실력 향상의 측면
- 5.5 사회 통합의 측면

6) 요약과 제언

다. 기대 효과

각국의 영어 공용어화에 대한 실태를 분석하여 그의 타당성과 문제점을 도출하는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기대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 사회·문화적 측면

- 영어 공용어화에 대한 일반인들의 올바른 판단과 이해를 도모할 수 있다.
- 영어 공용화를 둘러싼 불필요한 논쟁을 줄이고 범국민적인 합의를 도출할 수 있다.
- 모국어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다.

◆ 교육적 측면

- 국어 교육 담당자들에게 바람직한 국어 교육의 목표와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 정부의 현행 영어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반성과 개혁의 방향을 제공할 수 있다.

◆ 경제적 측면

- 영어 교육 정책의 합리적 변화를 유도함으로써 지나친 영어교육에 따른 불필요한 경제적 손실을 막을 수 있다.
- 불합리한 영어 공용화를 조기에 차단함으로써 막대한 국가적 손실을 예방할 수 있다.

라. 활용방안

- 국어 정책 입안시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차후 영어 공용화 논의에 대비하여 중요한 지침서로 활용할 수 있다.
- 영어 공용화에 대한 일반인들의 올바른 인식함양을 위해 인터넷을 이용하여 연구결과를 공개 활용할 수 있다.
- 연구 결과를 학계에 발표하여 영어 공용화 논의에 대한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견해를 도출하게 한다.
- 이번 연구 결과를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일반 독자들이 손쉽게 읽을 수 있는 대중 서적을 출간한다.
- 국어와 영어 교사들이 올바른 인식과 교육목표를 가질 수 있도록 연구 결과를 적극 소개 활용한다.

3. 별첨 결과물

영어를 공용어로 쓰는 국가의 언어 실태와 문제점

박영준 · 시정곤 · 정주리 · 최경봉 · 장영준

목 차

1. 공용어 논의 필요성과 공용어 개념의 역사적 변천 -----	1
1.1 영어 공용에 대한 논의의 문제제기와 필요성 -----	1
1.2 공용어 개념의 역사적 변천 -----	3
1.3 초강대국으로서의 미국의 부각과 영어의 부상 -----	6
2. 세계어로서의 영어의 위치와 사용 현황 -----	9
2.1 영어를 단일어로 하는 국가에서의 영어 사용 현황 -----	9
2.2 이중 언어 국가에서의 영어 사용 현황 -----	11
2.3 영어 공용어 국가에서의 영어 사용 현황 -----	12
3. 영어 공용화 국가의 유형 분류 -----	15
3.1 분류 기준 -----	15
3.2 등급 기준 -----	24
3.3 영어 공용화 국가의 세 유형 -----	26
4. 국가별 실태 분석 -----	28
4.1 필리핀 -----	28
4.1.1 역사 문화적 배경 -----	28
4.1.2 언어 정책의 방향 -----	31
4.1.3 영어 교육과 사용 실태 -----	34
4.1.4 모국어 교육과 인식 실태 -----	50
4.2 말레이시아 -----	59
4.2.1 역사·문화적 배경 -----	59
4.2.2 언어 정책의 방향 -----	61
4.2.3 영어 교육과 사용 실태 -----	64
4.2.4 모국어 교육과 인식 실태 -----	69

4.3	싱가포르	70
4.3.1	역사·문화적 배경	70
4.3.2	언어정책의 방향	71
4.3.3	영어 교육과 사용 실태	75
4.3.4	모국어 교육과 인식 실태	88
4.4	인도	90
4.4.1	역사·문화적 배경	90
4.4.2	언어 정책의 방향	91
4.4.3	영어 교육과 사용 실태	92
4.4.4	모국어 교육과 인식 실태	94
5.	영어 공용화의 이득과 손실	97
5.1	문화적 정체성의 측면	97
5.2	모국어 사용 능력의 측면	99
5.3	국가 경쟁력의 측면	100
5.4	영어 실력 향상의 측면	102
5.5	사회 통합의 측면	105
6.	요약과 제언	108
	<참고문헌>	112

1. 공용어 논의 필요성과 공용어 개념의 역사적 변천

공용어의 개념과 역사적 변천을 살피기 전에 영어 공용에 대한 논의가 현 시점에서 이루어져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살피기로 한다.

1.1 영어 공용에 대한 논의의 문제제기와 필요성

1998년 6월에 소설가 복거일이 쓴 「국제어 시대의 민족어」가 같은 해 7월 2일 <조선일보>에 소개되면서 우리 사회에 영어 공용화의 논쟁이 촉발되었다.

국내에서 영어 공용화에 대한 찬성과 반대 주장이 격돌하는 즈음에 일본에서도 2000년 1월 무렵 일본 총리 자문 기관인 ‘21세기 일본 구상위원회’가 ‘영어를 제 2공용어로 삼을 것을 제언하였다’는 소식이 국내 언론에도 보도되었다. 또 대만이 중국어 외에 영어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자고 하여 10년 이내에 영어를 공용어로 지정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영어 공용화의 주장은 더욱 탄력을 얻게 되었다.¹⁾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하여 2001년 7월 포항공대가 영어 공용 캠퍼스를 선언하였고 연세대학교가 9월부터 24시간 영어로만 의사소통이 가능한 공간을 교내에 설치한다고 발표하였다. 대학뿐만 아니라 일반 상업 지역에서도 영어만을 소통 언어로 사용하는 특별 구역을 선정하려는 움직임이 가속화되었다.

이러한 영어 강세 추세를 굳이 거론하지 않더라도 오늘날 거대한 지구촌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세계어 내지 국제 통용어가 된 영어를 습득하지 않을 수 없다는 논

1) 현재 영어 공용화를 실시하고 있지 않은 나라에서도 국제화 시대를 맞이하여 영어 공용화 논의가 국가의 주요 현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일본, 대만, 태국 등 비영어권 아시아 국가에서도 이러한 움직임을 볼 수 있다.

일본은 2000년 1월 18일 오부치 게이조 총리의 개인 정책 자문 그룹이 일본의 영어 공용화 가능성을 발표한 직후인 1월 19일, 산케이신문에서는 <21세기 일본의 구상>의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국민일보 2000년 1월 21일자 (국제/외신) 8면]. 즉, 이와 같은 구상이 인터넷의 급격한 보급 등으로 이뤄지는 글로벌화(세계화)에 일본이 뒤처지지 않을까 하는 위기감에서 출발하였지만, 이 구상이 실행될 경우 교육현장에서 논란을 빚을 것이라고 예측하였고, 영어 공용화는 미국 중심의 사고방식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일 우려가 있다며 회의적 반응을 나타낸 바 있다. <21세기 일본의 구상>이 나온 지 3년이 지난 현재 일본에서는 영어 공용화 논의가 다양한 각계의 목소리 때문에 그 추진력을 상실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만에서는 2002년 4월에 교육부의 황룽춘(黃榮村) 교육부장(장관)이 영어를 제2의 공용어로 하는 <6개년 국가건설 계획>을 준비한 바 있으며, 2003년 2월에 유시쿤(游錫坤) 행정원장이 이르면 6년, 늦어도 10년 내에 영어 공용화를 확실하게 실현할 방침을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대만 정부는 이러한 영어 공용화 방침에서 다소 후퇴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문화일보 2003년 8월 30일자 (국제/외신) 9면], 2005년부터 유치원생에 대한 영어 교육을 전면 금지하고, 모국어인 대만어와 공용어인 푸통화(普通話)만 교육받게 되고 유치원에서의 모든 영어 교육 프로그램은 폐기된다고 한다. 대만 교육부는 이와 같은 방침을 최종 확정하고 관련 지침을 2003년 8월 29일 대만 전역의 유치원에 하달했다. 이는 그동안 대만에서 취학 전 아동에 대한 과열된 영어 교육으로 인해서 모국어 교육을 등한시할 수밖에 없어서 생긴 문제점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시정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이러한 대만의 시행착오는 한국의 영어 공용화와 영어 교육의 논의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리는 이제 거부할 수 없는 논리가 되어 버렸다. 그리고 대학을 나온 사람도 외국인을 만나면 간단한 대화조차도 망설이는 현실 속에서 한국인의 영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영어 공용화는 마치 모든 문제들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다는 최선이 방법으로 비치게 되었다.²⁾

최근에 실시한 영어 공용화에 대한 찬반 투표 결과는 우리 국민들이 표면적으로는 영어 공용화에 대한 호의적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런데 문제는 영어 공용화를 찬성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영어 공용화의 개념과 영향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다는 데 있다. 그 동안 영어 공용화에 대한 전문가들의 학술적인 담론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들의 논의는 대중들의 실질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과 정보는 제공하지 못하였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영어 공용화에 대한 국민들의 판단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까지 영어 공용화에 대한 학자들의 다양한 목소리는 두 가지의 극단적인 입장으로 분명히 대립된다. 한쪽 끝에는 실리와 경제원리에 따라 영어 공용화를 인정하고 받아들이자는 입장이, 다른 한쪽 끝에는 세계화의 비합리성을 지적하고 한국 문화와 한국어의 가치를 보존하려는 영어 공용 반대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³⁾

논의에 앞서서 이 두 입장의 주요 주장들을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 이는 두 주장의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도 목적이 있지만 객관적인 입장에서 영어 공용화의 문제점을 논의할 수 있는 기준을 모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찬 성	반 대
국제어 시대에 영어는 세계 공용어로서의 지위가 확고함. 개인이나 국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영어능력은 필수	영어 공용하는 민족 정체성과 주체성을 상실케 함
미래사회는 영어와 민족어가 공존하는 이중 언어사회	모국어의 위축으로 인한 한국문화의 말살
영어 공용화 이후라도 민족어는 사멸하지 않고 전문가들의 연구로 명맥 이어짐	영어 능력 중심의 새로운 사회계층구조 형성, 사회 분열과 혼란이 더욱 조장됨

2)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어 공용화에 대한 반응을 보면, 1998년 1월 1차 논쟁 당시 <조선일보>가 실시한 인터넷 찬반 투표 결과에서는 영어 공용화에 찬성하는 의견이 45%였다가 1999년 <교육방송>에서 찬반 토론 후 실시한 시청자 여론 조사에서는 찬성 비율이 62%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 영어 공용화에 대한 찬반의 논쟁에 대한 상세·「한국어가 사라진다면」에서 개괄할 수 있다.

한 언어에 도구 이상의 가치를 부여하지 말 것. 지나친 우상화는 위험	영어 능력과 직업의 전문성 분화는 상관적임. 모든 국민이 동일한 영어 능력의 스트레스를 강요받을 필요가 없음
과학문명의 급격한 발전 속도에 비하면 통역과 번역은 한계가 있음	영어가 곧 국제 경쟁력이라는 의식은 재고되어야 함. 현재 영어 공용화국가들의 경우는 실증적인 예
영어 공용화를 통해 한국문화는 오히려 국제화가 될 것임	영어 교육 개선의 필요성과 영어 공용화를 동일시해서는 안 됨
영어 공용의 최대 수혜자는 우리 후손들	

표1 : 영어 공용화에 대한 찬반 논쟁 비교

위의 찬반 주장 비교를 통해 본고는 영어 공용화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현재 영어 공용화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들에 대한 분석이 필수적이라는 결론을 얻어냈다. 영어가 공용어로 쓰이고 있거나 또 준 공용어로 상용되고 있는 국가는 전 세계적으로 수십 개 국에 이른다. 이들 나라들에 대한 각각의 실태 파악이 필요하겠지만 우선 본고에서는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 현재 영어 공용화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 즉 싱가포르, 인도, 필리핀, 말레이시아를 조사 대상으로 삼았다. 이들 국가들은 지리적으로 아시아에 속해 있어서 우리나라와는 다소 동질적인 환경을 보여줄 수 있다는 맥락 외에도 네 개의 국가가 각각 특정한 영어 공용화의 실태를 보여주고 있다는 비교의 가치를 지닌다. 이들 네 국가의 영어 공용화 이후의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교육적 변화와 실태에 대하여 자료 조사와 현지 조사를 통하여 면밀하게 분석할 것이다. 이러한 분석과 결론을 바탕으로 앞으로 우리 사회의 영어 공용화에 대한 현실적인 접근과 대책이 모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1.2 공용어 개념의 역사적 변천

현재 지구상에는 언어학자들이 추정하는 바에 따르면, 약 6,800개의 언어가 존재한다. 조사된 세계의 국가 수가 231개국인 데 비하여 언어가 6,000개 이상이 된다는 것은 한 국가 안에서 여러 개의 언어가 사용된다는 것을 뜻한다. 이는 또한 언어에 따라서는 사용자의 규모가 매우 작은 언어도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의미한다. 실제로 조

사된 세계 언어 인구의 분포를 보면, 단 한 사람의 화자를 가진 언어가 51개에 이르고 100명 미만의 화자를 가진 언어가 500개이며 1,000 명 미만의 화자를 가진 언어는 1, 500 개에 이르고 1만 명 미만의 화자를 가진 언어는 3,000개로서 결국 10만 미만의 화자를 가진 빈사 상태에 있는 언어가 5,000에 이른다. 따라서, 이러한 통계를 바탕으로 볼 때 세계의 언어는 95% 정도 이상이 거의 빈사상태에 있는 언어이고 오직 4%의 언어만이 사용자 10만을 넘는 사용자를 가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⁴⁾

파푸아 뉴기니에서는 약 823 개의 말과 862 개 이상의 방언이 쓰이고 있으며 인도네시아에서는 약 726 개의 말과 약 926 개 이상의 방언이 쓰이고 있고 인도에서도 약 387 개의 말과 692 개 이상의 방언이 쓰이고 있다. 이들 나라들은 외적인 지형적인 특성과 (인도네시아는 5 개의 큰 섬과 13,367 개의 작은 섬으로 이루어져 있음) 아울러 다양한 소수 민족이 결합된 다민족국가라는 내적인 원인으로 통일된 언어생활을 영위하기가 어렵다. 뿐만 아니라, 이들 나라에서는 언어 차이로 인한 내재적인 갈등이 언제나 존재한다.⁵⁾ 한 국가 내의 이 같은 언어 분화는 방언 차이 정도로 생각하기 쉽지만 대개는 방언적 차이를 넘어서서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언어가 극심하게 혼란스러운 국가나 지역에서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인 이유로 통일된 의사소통의 수단을 필요로 한다. 즉, 이 국가들에서는 필연적으로 공식적인 언어를 지정 혹은 선택함으로써 의사소통 수단의 통로를 마련할 수밖에 없다.

이처럼 한 국가나 지역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를 ‘공용어’(公用語, official language)라고 한다. ‘공용어’는 공공기관의 문서를 비롯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제 부문에서 공식적인 기록이나 의사소통을 위한 언어로 쓰이는 언어를 말한다. 대개는 한국이나 일본과 같이 이상적인 단일 언어 국가에서는 모국어가 공용어인 1국가 1공용어의 원칙이지만 나라마다 특정한 역사적, 문화적 배경으로 복수의 공용어가 쓰이는 경우도 많다. 앞서 살펴 본 것처럼 인도의 경우에 ‘힌디’라는 국어가 있으나 국민의 30%만이 사용하고 나머지는 여러 부족이 제각기 자기의 말을 사용함으로써 국어 하나로는 의사소통이 어렵기 때문에 정부 공문서나 학교, 신문, 등에 사용할 공식 언어로서 한 개 또는 그 이상의 언어를 지정하게 된다.

그런데 개념적으로 유사한 용어이지만 ‘공용어’는 ‘공통어’의 개념과 구분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다. ‘공용어’ 한 국가나 지역의 공식적인 언어지만 ‘공통어’(共通語

4) 현재 세계의 언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의 규모로 서열을 지어보면 중국어(만다린어)-스페인어-영어-방글라데시어-힌디어(인도)-포르투갈어-러시아어-일본어-독일어-우어(중국)-자바어(인도네시아)-한국어-프랑스어의 순이다[강순경(2002:215)].

5) 이들 나라들보다 언어의 분열 현상이 심하지 않은 나라들에서도 언어 갈등이 사회적인 갈등으로 빚어지는 경우는 종종 있다. 한 국가 내에서의 언어 갈등의 대표적인 나라로는 벨기에를 들 수 있다. 벨기에는 북서쪽에 네덜란드를 사용하는 플랑드르인과 남동쪽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왈론인 사이에 끈질긴 언어 갈등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코소보 지역에서의 세르비아어를 쓰는 세르비아인과 알바니아어를 쓰는 언어 갈등은 무력 충돌도 불사하는 결과를 낳기도 하였다.

common language)는 한 사회에서 넓은 지역에 걸쳐 폭넓게 통용되는 언어를 지칭한다. 그러므로 ‘공통어’의 개념에는 공식적이라는 언어 정책적인 면이 반영되지는 않는다. 역사적으로 유럽 문화권에서 불어가 여러 나라들에서 통용될 수 있는 것도 일종의 공통어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한 지역 내에서 통용 가능한 ‘공통어’가 국가나 지역 단체의 정치적인 정책으로 추진이 되어 공식적인 지위를 가지게 되면, 이때부터는 ‘공용어’의 단계로 구분된다. 또한 ‘공용어’와 또 ‘공통어’의 개념 사에는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과 교육이 뒤따르는 것이냐의 여부에 따라서도 구분할 수 있다. 어떤 한 언어가 ‘공용어’로 지정되면 그 언어는 그 지역 내에서 각종 문헌과 담화에서 유통되어야 할 권리를 가지며, 모든 개인의 사회 활동과 참여의 기회가 이 언어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공용어’는 한 지역이나 국가가 적절하게 통일된 의사소통의 수단을 가지지 못하였을 경우에 유력한 언어들 중에서 하나를 선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언어 통일을 이루려는 도구가 된다. 이때 각 나라는 자신들의 언어 중에 가장 유력한 언어(곧 가장 많이 쓰이는 언어)를 선택하여 공식적인 언어로 지정하게 된다. 나라마다 하나의 유력한 언어를 공식 언어로 선택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열 몇 개의 공식 언어를 지정하기도 한다(현재 인도는 국어인 힌디어 외에 14 개의 공식 언어와 1 개의 부공식 언어를 지정하였다).

그런데 한 국가의 ‘공용어’의 선택 과정에는 자국 언어의 현황에 기반 한 내부적 순수한 요인이 작용하기도 하지만 대개는 역사적으로는 서구 열강들의 언어가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다. 회랍시대에 라틴어가 서구 유럽 세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것이나 근세에 들어와 서구 열강들이 앞을 다투어 그들 나라의 패권을 해외로 뻗치던 시기에는 영어와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가 아프리카와 남아메리카, 그리고 아시아의 식민지국에 이식된 것은 전형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영어가 오늘날 세계 여러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의사전달에 사용되지만 공식적으로 영어를 ‘공용어’로 받아들인 지역은 대개가 역사적으로 영국이나 미국과 관련을 맺었던 나라들이라는 것도 이러한 사실을 반영한다.

일반적으로 식민지 초기에는 토착민의 언어와 서구 열강의 언어는 병행하는 과도기를 거치지만 시간이 흐르면 토착민의 언어는 자연스럽게 언중의 사용에서 멀어지는 퇴행의 방향으로 진행되거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공식 국어의 지위를 이방인들의 언어에 이양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공용어 제정의 순전한 목적은 한 지역의 언어 혼란을 해결하려는 불가피한 수단일 뿐이다. 이 경우 공용어는 자국의 가능한 언어 중에서 하나를 선정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다. 그런데 현재 각국의 공용어 선정은 역사적으로 힘을 얻은 몇몇의 언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패권주의가 나타나고 있다.

어떤 언어가 한 국가의 공용어가 된다는 것은 그 나라의 정부에 의해 강력한 언어 정책으로 추진되고 다른 언어보다 우선적으로 사용되도록 특별한 지위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언중들은 가능한 빨리 그 공식어를 터득하는 것이 필수적인 상황으로 대두한다. 그러한 상황에서 초기에는 토착어와 공용어가 함께 공존하는 병용 시기를 유지하지만 점차적으로 공식 언어로 지정된 공용어가 사회 전반에 골고루 확산되고 발달되어서 제 1 언어로서 전면에 부각한다. 상대적으로 토착어는 제 2국어로 전락하고, 중국어는 사라질 수도 있는 운명에 이른다.

미래학자들은 현재 세계의 언어 편성도를 기준으로 볼 때, 앞으로 100년 후면 영어 스페인어, 중국어만 살아남으리라는 예측을 하고 있다. 영국의 저명한 언어학자인 데이빗 크리스털은 2050년의 경우 세계 언어의 최상층부는 대 언어인 중국어, 힌디(인도)어, 영어, 스페인어, 아랍어 등 5내지 6개 언어로 구성되고 그 다음 계층인 광역언어에는 중국어, 아라비아어, 말레이, 영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등을 꼽았다. 이러한 지적은 세계의 언어가 힘이 있는 국제어를 중심으로 구성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공용어에 대한 고찰은 필연적으로 국제어와 민족어의 대립, 대규모 언어와 소규모 언어의 갈등, 언어 전쟁과 언어 소멸의 주제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1.3 초강대국으로서의 미국의 부각과 영어의 부상

영어는 전 세계적으로 모국어로서 혹은 공식 언어나 또는 제 2 외국어를 총 망라하여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숫자를 계산해 보면, 약 80개국의 나라에서 10억의 인구가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2000년이 넘어서서는 15억의 인구가 사용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현재 영어는 놀라운 속도로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영어가 처음 5세기 경 북유럽에서 영국에 도착하였을 때는 겨우 몇 개의 섬에서만 사용되는 국지적인 언어였다. 영어가 세계어의 위치에 오르기 시작한 것은 셰익스피어 시대 이후인 16세기 말에서야 시작되었으며 이후 영국의 식민지 활동이 왕성하던 19세기 말과 그 이후 미국이 경제대국으로 자리 잡기 시작한 20세기 초에 이르러서는 본격적으로 국제어로서 자리를 완전하게 굳히게 되었다. 역사적으로 볼 때, 한때 라틴어가 세계를 지배하던 시대가 있었고 이후 스페인, 프랑스, 독일과 같은 나라의 언어가 국제적인 통상어로서의 자리를 가지던 시기가 있었다. 18세기 상류사회의 규범으로 자리 잡았던 프랑스어가 국제무대에서 사라지고 영어가 그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는 예상은 아무도 하지 못했다.

오늘날 영어가 국제어로서의 위치를 가진 것은 역사상 나타나는 다른 국제어들의

세력과 범위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앞서서도 언급했지만, 현재 영어는 12개국의 모국어이고, 제 2외국어로 영어를 사용하는 인구만도 4억에 이르며 영어를 공식어로 지정한 나라들도 20 여 개국에 걸친다. 동일 언어를 사용하는 인구수만을 따지고 보면, 영어의 언어 세력은 중국어, 스페인어에 이어 세 번째이지만, 통용되는 국가 수와 범위로 보면, 단연 가장 강력한 국제어임은 틀림이 없다.

영어가 이처럼 강력한 국제어로서 자리 잡은 것은 미국의 국가적 위상 부각, 초강대국으로서의 경제적 지위를 가진 것과 필연적인 관련을 맺고 있다. 이전의 국제어들이 대개 식민지 정복을 통한 세력의 확장으로 그 위세를 얻었다면, 영어가 오늘 국제어로서 강력한 자리를 가진 것은 경제적 이유가 크다.

20세기에 들어와 세계경제는 이미 국지성을 벗어난 하나의 경제망을 이루는 지구촌 시대로 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로 이른바 지구촌 시대로 돌입하였다. 과거의 산업 사회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시장 규모의 거대화과 시장의 단일화 작업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 물결의 주도에는 미국이라는 초강력 경제대국이 선두에 있음은 재론할 필요는 없다. 그 속에서 미국인의 언어와 문화는 전 세계인들에게 도달해야 할 목적지처럼 보이기에 이르렀다. 한 학자는 지적하기를, 영어는 이전의 국제 통상어로서 자리 잡았던 어떤 언어와도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파생력을 가지고 있는 언어가 되었다고 하면서 이전의 언어들을 국제어라고 부른다면 영어는 명실상부한 세계어로서의 가치를 지니는 것이라고 하였다.

영어의 세계화 요인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데이빗 크리스탈(1997:97)]. 하나는 역사·지리적인 면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문화적인 면이다.

우선, 역사·지리적인 면을 살펴보자. 영어가 세계어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영어의 종주국이라고 할 수 있는 영국의 식민지 개척과 20세기 초부터 시작된 미국의 팽창과 관련이 있다. 영국은 영어 사용의 지역적인 범위를 넓히는 데 기여했다. 산업혁명을 시작으로 영국은 아프리카, 아메리카, 인도 등 세계 각국에 식민지를 건설하면서 영어 사용 지역을 늘렸다. 그러나 20세기 초까지만 하더라도 여전히 국제어로서의 프랑스어의 위치를 무시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미국의 성장은 영어가 세계어로서 클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하였다. 제 1차 세계 대전 이후 피폐해진 유럽을 대신하여 미국이 세계 정치경제의 중심국으로 부상했다.

그 후 20세기에 들어와서는 기술 발달이 급격하게 이루어졌다. 사람들은 대양을 건너 이야기하고 대륙을 횡단하고 지구 전역을 울려 퍼지는 방송을 듣고 있었다. 언어는 이전보다 훨씬 빨리 퍼져 나갔다. 두 차례의 대전을 치르면서 영국과 미국의 병사들은 자신들의 언어를 전 세계에 퍼뜨리고 다녔다. 2차 세계 대전이 끝나자 대영 제국은 무너지고 인도, 나이지리아, 케냐,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많은 식민지 국가들이 독립을 하였다. 그리고 일찍이 세계의 역사에서 보지 못했던 전후의 변명으로 미

국은 세계 강대국이 되어가고 있었다. 이를 통해 영어가 20세기 후반에 세계 언어의 주요한 기수가 되었다. 만일, 20세기 초에 초강대국으로 미국이 부상하여 영국의 뒤를 잇지 않았다면, 영어도 다른 열강의 언어들처럼 세계어의 위치는 쇠퇴하게 되었을 것이다.

다음으로 영어의 성장에는 사회·문화적인 요인이 있다. 이는 사람들이 영어에 의존하는 방식과 관계가 있다. 영어는 정치, 경제, 산업, 안전, 통신, 오락, 미디어, 교육 등의 국제적인 영역으로 깊숙이 침투하게 되었고, 세계의 인간관계와 필요성에 기여하는 공통어를 갖는 편리성을 인식하게 됨으로써 사람들은 영어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었다. 19세기 초 산업혁명의 선두주자로 새로운 기술적·과학적 발전의 영어들은 영어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고 수 만 개의 새로운 단어들이 영어에 첨가되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러한 혁신들이 영어를 말하는 지역의 사람들로부터 쏟아져 나왔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새로운 기술을 배우기 위하여, 또 이윤을 남기기 위하여서는 영어를 잘 배울 필요가 있었다. 오래지 않아서 그 유사한 발달이 미국으로 이어졌다.

새로운 지식에 대한 접근은 수송과 통신 체계의 발달 과정을 부추겨 20세기 후반부터는 사람들은 전화나 전보를 이용하여 즉각적으로 접촉하였고, 오늘날의 인터넷 발전은 그야말로 전 지구를 한 국가처럼 연결되도록 만들었다. 이러한 정보 통신의 발달을 등에 업고 영어는 맥도날드, 코카콜라, 디즈니, 팝송, 군수품, 컴퓨터 기술 등의 이름으로 세계로 확장되고 있는 추세이다.

분명히 현대 사회에서 영어는 국제어로서의 위치와 힘을 의심받지는 않는다. 영어를 공용어로 쓰는 나라들이나 그렇지 않은 나라들이나 영어의 중요성에 대해 반론을 제기할 사람은 없어 보인다. 그렇지만 이 같은 영어의 독주와 패권주의의 물결에 대하여 최근에는 지역 문화와 세계 언어 유산을 보호하려는 각국의 자국 언어 보호 정책이 강구되고 있는 움직임도 주목할 만하다. 프랑스와 독일 같은 유럽 국가들의 자국어 보호 정책은 익히 알려진 터이지만, 그 외에도 아일랜드인들의 아일랜드어 되살리기 운동, 필리핀 지역에서조차 모국어인 타갈로그어 부흥에 대한 열망이 거세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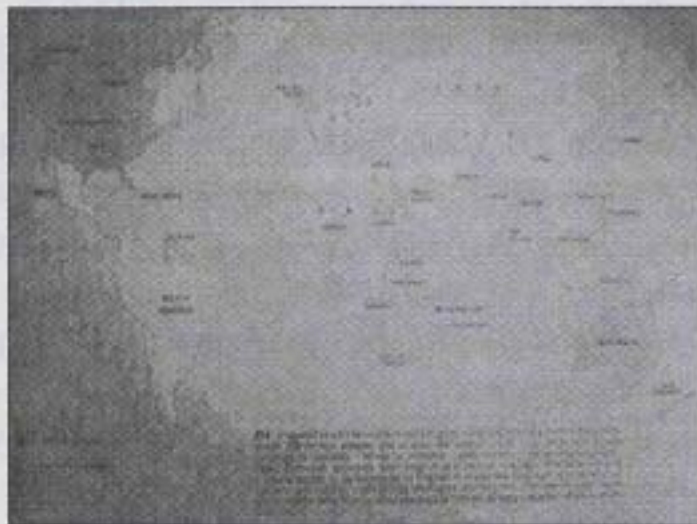
한때 영어 공용화에 논의를 강경하게 거론하였던 국가들에서조차 최근에 들어와서는 영어 공용화에 대한 자체 반성과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이처럼 영어의 세계화에 대해 지역어의 중요성 인식이 거세지고 있는 것은 언어가 도구 이상의 정신적, 문화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한 데서 이루어진 것이다.

2. 세계어로서의 영어의 위치와 사용 현황

2.1 영어를 단일어로 하는 국가에서의 영어 사용 현황

영어는 오늘날 영국, 미국, 호주 등 영국의 옛 식민지 국가들을 포함하여 전 지구적으로 약 60개국 이상에서 3억 8천만 명 이상이 모국어나 제 2언어로 사용하고 있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영어를 단일어로 사용하는 국가는 아래 지도에서 보듯이 미국, 캐나다, 영국, 아일랜드, 호주, 뉴질랜드, 파야나 등이다.⁶⁾



영어를 단일어로 사용하는 국가들의 언어실태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미국은 인구 2억 7천만 정도의 인구를 가지고 있고, 이들 대다수가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고 있다. 뉴멕시코나 캘리포니아, 애리조나 등과 같은 서부의 일부 주에서는 아동들이 스페인어만을 사용하거나 영어를 올바르게 구사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으나, 한 국가로서의 미국의 언어는 영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웃한 캐나다는 인구 2천만 정도의 영어 사용 국가인데, 퀘벡주에서만은 강력하게 불어 사용을 법제화하고 있는 특이한 형태의 언어실태를 보여주고 있다. 퀘벡주를 벗어나면 캐나다는 갑자기 영어 사용지역으로 탈바꿈하여, 언어적으로만 보자면 캐나다는 미국과 밀접하게 연결된 듯한 현상을 보여주기도 한다.

영국은 인구 6천만 정도를 가진 크기의 국가로서 영어의 종주국이지만, 실은 영국

6) *The Story of English*, Robert McCrum, William Cran, and Robert MacNeil, Penguin Books, 2002, p.5

영토 안에 켈트어나 게일어와 같은 다양한 소수민족 언어를 가지고 있기도 하다. 영국의 이웃 섬인 아일랜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아일랜드공화국은 아이리쉬라는 자국어와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오늘날은 1천만 인구의 절대다수가 영어를 사용하고, 아이리쉬를 사용하는 인구는 극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호주와 뉴질랜드는 인구가 대략 2천만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영어를 단일어로 사용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뉴질랜드에서 원주민어인 마오리어를 부흥시키려는 노력에 의해 인구 3백만 명 중 적지 않은 수의 사람들이 마오리어 사용 학교를 다니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호주에서도 앵오리진이라 불리는 원주민들이 자신들의 언어를 되살리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중앙정부에서도 이러한 노력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출판, 언론, 교육, 등 거의 모든 면에서 영어가 압도적으로 사용됨으로써 원주민어가 얼마나 사용 폭을 넓힐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영어는 449년에 유럽대륙의 앵글로색슨족이 브리튼 섬에 도착하면서 한 국가의 언어로 시작된 후, 영국의 식민지를 경험한 국가들에 퍼지고 국어로 채택되었다. 우리는 영어를 단일어로 사용하는 국가의 숫자에서보다는 그 국가들의 국제정치적 영향력에서 영어의 위력을 가늠할 수 있다. 국제정치, 경제, 문화 등에서 일찍이 역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유일초강대국이 된 미국을 비롯하여 영국, 캐나다, 호주 등에서 영어를 국어로 사용함으로써, 전 세계는 영어를 사용하지 않고는 생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 면에서 영어는 가히 오늘날의 유일한 링구아 프랑카(세계어)이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영어를 단일어로 사용하는 국가라 하더라도 모든 국민이 영어를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가령 미국은 인구 2억 6천만 중 민족구성이 유럽계 70%, 아프리카계 12%, 남미계 10%, 아시아계 3%, 북미 인디언 등 토착인 1%, 기타 4%이다. 이들은 영어 외에 약 189가지의 토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중 약 70여 가지 언어는 사멸 위기에 처한 것으로 연구자들은 밝히고 있다.⁷⁾

영국은 인구 약 5천8백만명 중 앵글로색슨·켈트계가 92%, 아시아계 4%, 아프리카계 2%, 비앵글로색슨 유럽인 1%의 인종으로 구성된다. 앵글로색슨·켈트계는 잉글랜드인 74%, 스코틀랜드인 8%, 웨일즈인 5%, 아일랜드인 5%이다.⁸⁾ 이들은 기본적으로 영어를 사용하지만, 15가지의 토착어와 200여 가지의 이주민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들 중 대다수가 사멸위기에 처했다.

7) 민현식, “공용어론과 언어정책”, 이종언어학 17호, 44쪽.

8) 민현식, “공용어론과 언어정책”, 이종언어학 17호, 44쪽.

2.2 이중 언어 국가에서의 영어 사용 현황

학문적 입장에서 이중 언어 국가와 영어 공용화 국가를 구분하기란 쉽지 않다. 이중 언어란 한 화자가 동시에 2개 언어를 구사하는 상황을 의미하고, 공용어란 국가적 차원에서 해당 언어를 공식 언어(official language)로 지정하는 상황이므로, 이 두 개념은 대부분 겹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영어 공용화국가들은 대부분 이중 언어 국가라고 할 수 있으나, 영어를 공용어화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국민이 영어를 구사하지 못한다면, 그런 경우에는 이중 언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미국 서부의 일부 주에서는 히스패닉 계들이 영어를 구사하지 못하고, 스페인어만을 구사하는 지역이 많다고 한다. 이 경우 영어가 국어(national language)이지만, 국어를 사용하지 않고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단일 언어 지역이라 할 수 있다. 반대로 일부 지역에서는 영어와 스페인어를 동시에 구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공용어는 아니지만 이중 언어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 보고서에서는 다음 3, 4장에서 몇몇 영어 공용화 국가들에서의 영어 사용 실태를 자세히 살펴볼 것이나, 여기서는 이중 언어 국가의 예로 인도와 필리핀, 싱가포르를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인도의 경우이다. 인도는 세계 인구의 약 16%에 해당하는 9억의 인구를 가진 대국이다. 민족 구성을 보면, 4635종의 종족집단이 있고, 이 중 인도아리안계가 73%, 드라비다계 24%이다. 인도아리안계는 힌두족 2억, 마라티족 8천만, 벵갈족 7천만, 우루두족 4천5백만이다. 드라비다계는 텔루구 7천만과 타밀족 6천만 등이다. 1971년의 조사에 의하면, 인도의 언어는 약 1600 여 가지이고, 이중 10만 이상의 인구가 사용하는 언어만 해도 33가지가 넘는다.⁹⁾ 문자 해독률은 52%라고 하나, 실질 해독률은 15% 정도라고 한다.

다음으로 싱가포르이다. 영국의 지배를 받았던 싱가포르는 현재 영어, 중국어, 말레이어, 타밀어 등 4개의 공용어를 가지고 있다. 이를 좀더 자세히 살펴보자. 싱가포르가 공용어를 네 개씩 가지게 된 것은 싱가포르의 특수한 인종구성 및 역사적 배경과 관련이 있다. 인구구성을 보면, 중국계(77%), 말레이계(14%), 인도계(7%), 기타로 구성되어있다. 1819년 영국인들이 이 섬에 도착한 이후 싱가포르는 오늘날 인구 3백만의 중계무역 중심지가 되었다. 그 과정에서 새로이 유입된 인구 중 타밀어를 사용하는 인도인들의 비중이 높아진 것이 이들의 공용어 결정에 영향을 끼치게 된 것이다.

싱가포르는 1956년 이중 언어 교육정책(Bilingual Education Policy)을 실시하였는데, 이 정책의 요점은 국민들이 영어와 다른 한 가지 공용어 즉 중국어, 말레이어, 타밀어 중의 하나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모든 학교 교육은 영어로 수행되지만 민족에 따라 위의 세 가지 중 한 언어를 제2언어(second language)로 사

9) 민현식, “공용어론과 언어정책”, 이중언어학 17호, 44쪽.

용하게 됨으로써 이질적인 국민들을 통합시키는 효과와 더불어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국제 경쟁력이 높은 인력들을 배출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필리핀의 이중 언어 상황을 살펴보자. 필리핀 역시 영어를 공용어이자 국어로 사용하는 국가이다. 잘 알려졌다시피 필리핀은 스페인의 지배를 받다가 19세기말부터 미국의 지배를 받게 되면서 영어가 이식되었다. 그러나 우리의 남북한을 합한 규모와 비슷한 크기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필리핀에서는 싱가포르와는 달리 대다수 국민들이 영어를 아무런 불편 없이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산간 오지의 사람들이나 교육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영어 대신 대략 7가지의 필리핀 토착어를 사용하고 있다. 가령, 어떤 사람은 타갈로그어를 유창하게 사용하지만 영어는 거의 구사하지 못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반대로 영어를 구사할 수 있지만 타갈로그어를 구사하지 못하기도 한다. 인구 약 3백만의 도시국가인 싱가포르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판이한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2.3 영어 공용어 국가에서의 영어 사용 현황

오늘날 영어를 공용어로 하는 국가들은 매우 많다. 이들을 살펴보면 가나, 가이아나, 감비아, 그레나다, 나미비아, 나우루,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도미니카연방, 라이베리아, 레소토, 말라위, 모리셔스, 몰타, 미크로네시아, 바누아투, 바베이도스, 바하마, 벨리즈, 보츠와나, 브루나이, 사모아, 세이셸,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세인트키츠 네비스, 솔로몬제도, 스와질랜드, 시에라리온, 싱가포르, 아일랜드, 앤티카 바부다, 에리트레아, 우간다, 인도, 자메이카, 잠비아, 짐바브웨, 케냐, 키리바시, 탄자니아, 투발루, 트리니다드 토바고, 팔라우, 피지, 필리핀 등 약 47개 국가/지역에 이른다.¹⁰⁾ 이들은 대개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의 식민지 지배를 받았거나 종속적인 관계를 가진 국가들이다.

영어 공용어국가에서의 영어사용 현황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영어공용화가 어떤 의미인지 실질적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공용화를 실시하는 대표적인 나라인 스위스, 벨기에, 캐나다 등을 보면, 공용화의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스위스는 독일어·프랑스어·이탈리아어가 공용어(official language)이고, 여기에 로만쉬어를 더해 4개 언어를 국어(national language)로 하고 있다. 독일어가 70%, 프랑스어가 20%, 이탈리아가 10%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한학성, 2000). 캐나다는 인구의 67% 정도가 영어를 사용하고 18% 정도가 프랑스어를 사용하며, 두 언어를 모두 사용하는 인구는 겨우 13% 정도라고 한다. 이러한 사실들

10) 데이비드 크리스탈 (유영나 옮김), 왜 영어가 세계어인가, P.89-92. 코키토, 2002.

은 공용어라는 것이 이중어(bilingual language)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공용어를 실시하는 나라라고 해서 모두 복수 이상의 공용어를 사용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과연, 우리는 어떤 의미의 공용어를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되새겨 봐야 한다.

오늘날 전지구상에서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국가들은 수십 개국이 넘는다. 이중 자국의 고유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위적으로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국가들은 식민지 관계라든가 영어사용국가와의 특수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영국의 지배를 받았던 싱가포르의 현재 영어, 중국어, 말레이어, 타밀어 등 4개의 공용어를 가지고 있다. 이를 좀더 자세히 살펴보자. 싱가포르가 공용어를 네 개씩 가지게 된 것은 싱가포르의 특수한 인종구성 및 역사적 배경과 관련이 있다. 인구구성을 보면 중국계(77%), 말레이계(14%), 인도계(7%), 기타로 구성되어있다. 1819년 영국인들이 이 섬에 도착한 이후 싱가포르는 오늘날 인구 3백만의 중계무역 중심지가 되었다. 그 과정에서 새로이 유입된 인구 중 타밀어를 사용하는 인도인들의 비중이 높아진 것이 이들의 공용어 결정에 영향을 끼치게 된 것이다.

싱가포르는 1956년 이중 언어 교육정책(Bilingual Education Policy)을 실시하였는데, 이 정책의 요점은 국민들이 영어와 다른 한 가지 공용어 즉 중국어, 말레이어, 타밀어 중의 하나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모든 학교 교육은 영어로 수행되지만, 민족에 따라 위의 세 가지 중 한 언어를 제2언어(second language)로 사용하게 됨으로써 이질적인 국민들을 통합시키는 효과와 더불어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국제 경쟁력이 높은 인력들을 배출하게 되었다.

그런가 하면 필리핀 역시 영어를 공용어이자 국어로 사용하는 국가이다. 잘 알려졌다시피 필리핀은 스페인의 지배를 받다가 19세기말부터 미국의 지배를 받게 되면서 영어가 이식되었다. 그러나 우리의 남북한을 합한 규모와 비슷한 크기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필리핀에서는 싱가포르와는 달리 대다수 국민들이 영어를 아무런 불편 없이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산간오지의 사람들이나 교육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영어 대신 대략 7가지의 필리핀 토착어를 사용하고 있다. 가령, 어떤 사람은 타갈로그어를 유창하게 사용하지만 영어는 거의 구사하지 못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반대로 영어를 구사할 수 있지만 타갈로그어를 구사하지 못하기도 한다. 인구 약 3백만의 도시국가인 싱가포르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판이한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영어 공용화와 관련하여 자주 언급되는 또 다른 국가는 인도이다. 인도의 경쟁력, 특히 정보공학(IT) 분야에서의 인도의 뛰어난 경쟁력을 언급할 때 그들의 영어 구사능력을 언급하는 일이 자주 있다. 그러나 통계에 의하면, 인도에서도 영어를 자유자재

로 구사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인구의 2%를 넘지 않는다고 한다. 물론, 인구 10억 중의 2%라면 대략 2, 3천만 명이 자유자재로 영어를 구사하는 셈이니, 그 절대적인 숫자로 보자면, 이는 대단한 규모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2%라는 비율은 공용어화라는 정책의 결과가 아니더라도 외국어 교육으로서도 충분히 양산해낼 수 있는 규모라는 사실이 중요하다.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고 전문 실력을 갖추으로써 국제경쟁력이 있는 사람들은 이미 영어 공용화가 아니라 일반 외국어 교육으로도 충분히 양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인도의 사례는 영어 공용화의 사례가 될 수 없을 것이다.

영어 공용화와 관련하여 우리가 반드시 참고해야 할 사례는 캐나다의 퀘벡 주일 것이다. 퀘벡은 영어를 사용하는 절대다수의 캐나다 사람들로 둘러싸인 채 불어를 사용하는 일종의 언어적 섬을 이루고 있다. 프랑스계인 이들 퀘벡 주 캐나다인들은 불어를 유지하기 위해 1961년에는 문화부와 함께 불어청(Office de la Langue Française)을 신설한 것을 비롯해서 각종 법안과 정책들을 쏟아냈다. 실무와 공공게시에서 불어를 우선적으로 사용할 것을 규정했으며 1977년에는 불어헌장(Charte de la Langue Française)을 제정하여 공공게시와 상업광고에서 오직 불어만을 사용하게 했다. 캐나다는 영어를 사용하는 캐나다 국민과 불어만을 사용하는 캐나다국민이 병존하는 언어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나다가 국가의 틀을 유지하고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3. 영어 공용화 국가의 유형 분류

3.1 분류 기준

현재 영어를 공용어로 실시하고 있는 나라는 약 50개국에 해당한다. 이 가운데서 영국, 미국, 오스트레일리아(호주) 등 세 나라를 제외하면 직, 간접적으로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나라는 47개국인 셈이다. 이 가운데 흔히 필리핀은 영어 공용화의 실패 사례로 분류되고, 싱가포르와 인도는 성공사례로 언급된다. 그러나 과연 그 분류가 타당한 것인가? 실패와 성공의 분류 기준은 무엇인가? 현재는 그 나라가 우리보다 더 잘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러나 영어 공용화 국가를 단지 그러한 경제적 측면만으로 분류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영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모두 동일하나, 그 사용 배경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가 영어 공용화 국가의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관점에서 영어 공용화 국가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분류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영어 공용화와 장점과 단점을 보다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 연구자들의 견해이다. 이 장에서는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유형 분류를 위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분류 기준을 제시한다.

① 언어적 측면의 기준

- 현재 사용 언어, 영어 공용어 여부, 영어 사용자와 모국어 사용자 수, 문맹률

② 정치/문화적 측면의 기준

- 식민지 경험 여부

③ 경제적 측면의 기준

- 국가의 경쟁력(수출 규모 및 현재 GNI 순위)

위와 같은 기준을 통해 영어 공용화 국가의 현황을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에 나온 내용은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조한 것이다.

자료 출처

- 1인당 GNI (Gross National Income-1인당 국민총소득이며 과거 GNP와 비슷한 의미를 갖는다.) 2002: "World Development database, World Bank, 7. 2003→ <http://www.worldbank.org>"
- 각 나라의 영어 사용자 수: 데이비드 크리스털, 유영나 옮김, 『왜 영어가 세계어인가』, pp.89~92, 코키토, 2002.
- 기타 내용 : 두산세계대백과: <http://www.yahoo.co.kr>

영어 공용화 국가의 분류 기준별 현황

국가명	식민지 여부	정치/문화적 환경			언어적 환경				경제적 환경		총 점
		식민지 국가	종족구성	종교	모국어 대 영어 사용비율	공용어	인구/영어 사용자수	문맹률	영어 사용률	무역규모/1인당 GNI(2002기준)	
가나	있음	영국 (1957년 독립)	아프리카 흑인 99.8%(아칸족, 에웨족 등), 유럽인 0.2%	토착종교 38%, 회교 30%, 기독교 25%	국어는 영어나 7개 부족어가 공용어로 인정 사용됨. 3개 부족어를 통용한 아칸어를 국어로 권장함	영어, 토착어	16,472,000/1,153,000:L2	70%	L2:7%	수출: 179,500만불 GNI 270불(185위)	20 C
가이아나	있음	영국 (1966년 독립)	인도계 49%, 흑인 및 혼혈 44%, 아메리카 인디언 6%, 백인 및 중국계 1%	기독교 57%, 힌두교 33%, 회교 9%, 기타 1%	언어는 공용어인 영어 외에 가이아나 크레올어(Guyanese Creole), 인디언 방언 등을 사용	영어	770,000/700,000:L1 30,000:L2	4%	L1:1% L2:4%	수출: 46,000만불 GNI 840불(140위)	30 C
감비아	있음	영국 (1965년 독립)	만딩고족 42%, 풀라족 18%, 웰로프족 16%, 울라족 10%, 유럽인	회교 90%, 기독교 9%, 토착종교 1%	영어보다 말린케어와 웰로프어를 널리 사용	영어, 웰로프어	1,115,000/33,000:L2	73%	L2:3%	수출: 700만불 GNI 280불(182위)	20 C
그레나다	있음	프랑스, 영국 (1974년 독립)	흑인 53%, 혼혈 42%	천주교, 성공회, 기독교	대부분은 영어를 사용, 소수만 프랑스 방언을 사용	영어	92,000/91,000	2%	99%	수출: 6,080만불 GNI 3,480불(85위)	30 C
나미비아	있음	독일, 남아프리카공화국 (1990년 독립)	반투계 아프리카인 86%, 백인 7%, 혼혈 7%	기독교 90%, 토착종교	영어보다 주민 대부분이 아프리칸스어를 사용	영어, 아프리칸스어	1,651,000/13,000:L1 300,000:L2	문맹률 60% 이상	L1:1% L2:18%	수출: 143,100만불 GNI 1,780불(111위)	30 C
나우루	있음	호주 (1968년 독립)	나우루인 58%, 태평양계 26%, 중국계 8%, 유럽계 8%	개신교와 가톨릭교	공용어는 나우루어지만 관공어나 상업적 거래에서는 영어 사용	영어, 나우루어	10,000/800:L1 9,400:L2	식자율 (99%)	L1:8% L2:94%	수출: 8,600만불	50 B

정치/문화적 환경				언어적 환경				경제적 환경		총점	
국가명	식민지 여부	식민지 국가	종족구성	종교	모국어 대 영어 사용비율	공용어	인구/영어 사용자수	문맹률	영어 사용률		무역규모/1인당 GNI(2002기준)
나이지리아	있음	영국 (1960년 독립)	하위사족, 플리니족, 오루바족, 이보족 등 250여 부족	회교 50%, 기독교 40%, 토착종교 10%	4대부족어가 전주민의 약 60%에 해당하는 사람들 사이에 통용	영어		40%	L2:0%	수출: 2,097,500만불 GNI 290불(179위)	10 C
남아공화국	있음	영국 (1910년 독립)	흑인 75.2%, 백인 13.6%, 혼혈 8.6%	신교도 (66%), 가톨릭교도(9%), 유대교, 이슬람교, 힌두교, 토착신앙	영어와 아프리칸스어 외에 9개 흑인 부족어를 공용어로 사용	영어, 아프리칸스어	41,465,000/3,600,000:L1 10,000,000:L2	30%	L1:9% L2:24%	수출: 2,928,400만불 GNI 2,600불(94위)	40 C
뉴질랜드	있음	영국 (1947년 독립)	유럽계백인 87%, 마오리족 9%, 태평양제도인 2%, 기타 2%	기독교 70%, 천주교 16%, 힌두교 등 기타	마오리족 외에는 거의 영어를 사용	영어, 마오리어	3,568,000/3,396,000:L1 150,000:L2	2%	L1:95% L2:4%	수출: 1,480,500만불 GNI 13,710불(43위)	70 A
도미니카 연방	있음	영국 (1978년 독립)	흑인 90%, 카리브계 인디안	천주교 77%, 성공회, 감리교		영어, 프랑스어	72,000/3,000:L1 12,000:L2	6%	L1:4% L2:17%	수출: 4,410만불 GNI 3,180불(87위)	20 C
라이베리아	있음	미국 (1847년 독립)	크펠레족, 밋사족, 크루족, 그레보족, 골라족, 키씨족, 크란족 등 16개 부족	회교 15%, 기독교 10%, 토착종교 75%	4개의 대표 언어 외에 또 20개의 부족어를 사용	영어(국어), 28여개 부족어	2,380,000/60,000:L1 2,000,000:L2	문맹률 60%(점차 나아지고 있음)	L1:3% L2:84%	수출: 118,000만불 GNI 150불(201위)	40 C
레소토	있음	영국 (1966년 독립)	레소토족 99.7%, 유럽인, 아시아인	그리스도교 (80%), 기타 전통적인 애니미즘	공식어는 영어이나 부족어인 레소토어가 대부분 공용어로 사용	영어, 레소토어	2,050,000/488,000:L2	41.00%	L2:24%	수출: 19,400만불 GNI 470불(160위)	35 C
말라위	있음	영국 (1964년 독립)	치치와족, 엔고니족, 아오족, 통가족	기독교 55%, 회교 20%, 천주교 20%, 토착종교	공식어는 영어와 치치와어이나 부족어인 니안자어도 널리 통용	영어, 치치와어	9,939,000/517,000:L2	78%	L2:5%	수출: 35,500만불 GNI 160불(199위)	20 C

정치/문화적 환경				언어적 환경				경제적 환경		총점	
국가명	식민지 여부	식민지 국가	종족구성	종교	모국어 대 영어 사용비율	공용어	인구/영어 사용자수	문맹률	영어 사용률		
모리셔스	있음	영국 (1968년 독립)	인도인 68%, 크레올족 27%, 중국인 3.5%	힌두교 52%, 천주교 26%, 회교 17%, 성공회	공식어는 영어지만, 프랑스어를 널리 사용. 그밖에 힌디어, 크레올 (프랑스계), 중국어	영어	56,000/28,000:L2	39%	L2:50% 수출: 155,400만불 GNI 3,850불(81위)	45	C
몰타	있음	영국 (1964년 독립)	아랍혼혈, 시실리아인, 스페인인, 이탈리아인, 영국인	천주교 98%	셈어(語)에 이탈리아어가 섞인 몰타어를 극도로 쓰고 있으나, 영어도 공용어로 쓰인다.	영어, 몰타어	370,000/8,000:L1 86,000:L2	13%	L1:2% L2:23% 수출: 191,700만불 GNI 9,200불(56위)	55	B
미크로네시아	있음	에스파냐 (16C) 독일 (1885) 일본 (1921) 미국 (1947~1989), UN안보리로 독립 (1990)	미크로네시아인	카톨릭 50% 개신교 47% 기타 3%	여러 언어(아프어, 톤 페이어, 코스라에어, 트루크어)가 사용되나 공용어인 영어가 널리 사용됨	영어	105,000/4,000:L1 15,000:L2		L1:4% L2:14% 수출: 2,200만불 GNI 1,980불(105위)	30	C
바누아투	있음	영국 프랑스 (1980년 독립)	멜라네시아인 90%, 프랑스인 8%	기독교 80%	영어와 프랑스어 비스라마어 모두 사용	영어, 프랑스어	168,000/2,000:L1 160,000:L2	85%	L1:1% L2:95% 수출: 2,280만불 GNI 1,080불(132위)	30	C
바베이도스	있음	영국 (1966년 독립)	아프리카인 80%, 혼혈 16%, 백인 4%	기독교 67%, 천주교 4%	대부분 영어를 사용	영어		1%	수출: 24,000만불 GNI 9,750불(54위)	45	C

국가명	정치/문화적환경			언어적 환경					경제적 환경		총점
	식민지 여부	식민지 국가	종족구성	종교	모국어 대 영어 사용비율	공용어	인구/영어 사용자수	문맹률	영어 사용률	무역규모/1인당 GNI(2002기준)	
바하마	있음	영국 (1973년 독립)	흑인 85%, 백인 15%	침례교 32%, 영국성공회 20%, 로마가톨릭 19%, 감리교 6%	언어는 주로 영어를 사용, 일부 이민들이 크레올이라는 아이티의 토속어를 사용	영어	276,000/250,000:L1 25,000:L2	11%	L1:91% L2:9%	수출: 56,070만불 GNI 14,860불(40위)	B 65
벨리즈	있음	영국 (1981년 독립)	메스티조 44%, 크레올 30%, 마야인 11%	로마카톨릭 62%, 기독교 30%	공용어인 영어 외에 에스파냐어(語)-마야어-카리브어 등이 사용	영어	216,000/135,000:L1 30,000:L2	30%	L1:63% L2:14%	수출: 20,990만불 GNI 2,960불(90위)	C 35
보츠와나	있음	영국 (1966년 독립)	츠와나족 95%, 부쉬멘족 4%, 유령인 1%	기독교 50%, 토착종교 50%	공용어는 영어이나 츠와나어가 널리 사용되며, 그밖에 반투어의 방언도 사용	영어	1,549,000/620,000:L2	28%	L2:40%	수출: 194,800만불 GNI 2,980불(89위)	C 30
브루나이	있음	영국 (1984년 독립)	말레이인 64%, 중국계 20%, 원주민 6%, 기타 10%	이슬람교 63%, 불교 14%, 그리스도교 8%, 토착신앙 15%	말레이어(공용어), 영어, 중국어를 주로 사용	말레이어	291,000/10,000:L1, 104,000:L2	55%	L1:3% L2:36%	수출: 350,000만불 GNI 18,000불	B 65
사모아	있음	미국(동사모아)-> 뉴질랜드 (1962년 독립)	폴리네시아인 90%, 나머지 서양인과의 혼혈	그리스도교 50%, 로마가톨릭 45%	영어와 폴리네시아어에 속하는 사모아어를 모두 사용	영어	58,000/ 2,000	15%	3%	수출: 350,000만불 GNI 1,420불(120위)	C 15
세이셸	있음	영국 (1976년 독립)	세이셸인	로마카톨릭 90%, 영국성공회 8%	공용어는 영어지만 프랑스어와 크레올어도 사용	영어		42%		수출: 14,500만불 GNI 6,530불(64위)	C 25

국가명	정치/문화적 환경			언어적 환경				경제적 환경		총점
	식민지 여부	식민지 국가	종족구성	종교	모국어 대 영어 사용비율	공용어	인구/영어 사용자수	문맹률	영어 사용률	
세인트 루시아	있음	영국 (1978년 독립)	흑인계 90.3%, 혼혈 5.5%	천주교 90%, 기독교 7%, 성공회 3%	주요언어는 영어이나 파트와라는 프랑스 방언도 통용	영어	143,000/29,000:L1 22,000:L2	33%	L1:20% L2:15%	25 C 수출: 6,830만불 GNI 3,840불(82위)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있음	영국 (1979년 독립)	흑인의 자손이 약 66%, 혼혈 19%, 서인도인(人) 6%, 카리브인도인 2%	성공회, 감리교, 천주교	영어를 주로 사용	영어	112,000/111,000	18%	99%	25 C 수출: 5,710만불 GNI 2,820불(92위)
세인트키츠 네비스	있음	영국 (1988년 독립)	흑인(대부분), 카리브계 인디언	영국 성공회, 감리교, 카톨릭, 모라비아교(敎), 바하이교 등	영어를 주로 사용하나 파토아어도 사용	영어	39,000/39,000	2%	100%	55 B 수출: 5,170만불 GNI 6,370불(65위)
솔로몬제도	있음	영국 (1978년 독립)	멜라네시안 93%, 폴리네시안 4%, 미크로네시안 1.5%, 유럽인	그리스도교, 토속종교	솔로몬 제도 피진어, 영어, 67개의 공식 토착어	영어	382,000/2,000:L1 135,000:L2	40%	L1:1% L2:35%	25 C 수출: 16,500만불 GNI 570불(154위)
스와질랜드	있음	영국 (1968년 독립)	스와지족(90%), зулу족, 통가족, 상간족, 유럽인	개신교55%, 이슬람교 10%, 로마가톨릭 5%, 토속종교 30%	대부분은 국어로 주로 스와지어를 사용하고 영어도 사용	스와지어, 영어	913,000/40,000	45.00%	4.00%	25 C 수출: 89,300만불 GNI 1,180불(129위)
시에라리온	있음	영국 (1961년 독립)	멘데족 30%, 테메족 30%, 크레올족 2% 등 13개 부족	이슬람교 60%, 토속종교 30%, 그리스도교 10%	공용어인 영어 외에 크리올어도 널리 사용	영어	4,509,000/450,000:L1 3,830,000:L2	78.00%	L1:10% L2:85%	30 C 수출: 2,800만불 GNI 140불(203위)

정치/문화적 환경				언어적 환경					경제적 환경		총점	
국가명	식민지 여부	식민지 국가	종족구성	종교	모국어 대 영어 사용비율	공용어	인구/영어 사용자수	문맹률	영어 사용률	무역규모/1인당 GNI(2002기준)		
싱가포르	있음	영국 (1965년 독립)	중국인 76%, 말레이인 15%, 인도인 6.5%, 기타 2.5%	불교, 도교, 이슬람교, 힌두교, 그리스도교	국어는 말레이어이나 중국어, 영어도 많이 사용	말레이어(국어), 중국어, 영어, 타밀어	2,989,000/300,000:L1 1,046,000:L2	7%	L1:10% L2:35%	수출: 12,175,100만불 GNI 20,690불(27위)	75	A
아일랜드	있음	영국 (1921년 독립)	켈트인	천주교 93%, 성공회 3%	대체로 영어를 사용	영어, 아일랜드어	3,590,000/3,400,000:L1 190,000:L2	2%	L1:95% L2:5%	수출: 8,297,600만불 GNI 23,870불(18위)	80	A
앤티가 바부다	있음	영국 (1981년 독립)	아프리카계 흑인 및 혼혈	그리스도교, 영국성공회	대부분 영어를 사용	영어		11%		수출: 3,980만불 GNI 9,390불(55위)	40	C
에리트레아	있음	에티오피아 (1993년 독립)	티그레(아랍계) 50%, 티그리냐 40% 등 9개 종족	회교 (65~70%), 에리트리아 정교 (25~30%)	티그리냐(Tigrinya)어와 아랍어가 상거래나 공식적인 보고서 등에 가장 빈번히 사용되지만 영어도 널리 사용	티그리냐어, 아랍어				수출: 8,370만불 GNI 160불(199위)	20	C
우간다	있음	영국 (1962년 독립)	아프리카인 99%, 유럽인, 아랍인	천주교 35%, 기독교 35%, 회교 20%, 토착종교	대부분 영어를 사용	영어	18,659,000/2,000,000:L2	52%	L2:11%	수출: 45,600만불 GNI 250불(188위)	15	C
인도	있음	영국 (1947년)	인도아리안 72%, 드라비디언 25%, 몽고족 3%	힌두교 82.6%, 회교 11.4%, 기독교 2.4%, 시크교 2%, 불교 0.7%	힌두어 40% 사용 나머지 지 영어(지식계급의 공통어)	힌두어 (제1공용어), 영어 (제2공용어)	935,744,000/320,000:L1 37,000,000:L2	58%	L1:0% L2:4%	수출: 4,445,000만불 GNI 480불(159위)	25	C

국가명	식민지 여부	정치/문화적환경			언어적 환경				경제적 환경		총점
		식민지 국가	종족구성	종교	모국어 대 영어 사용비율	공용어	인구/영어 사용자수	문맹률	영어 사용률	무역규모/인당 GNI(2002기준)	
자메이카	있음	영국 (1961년 독립)	흑인 77%, 유럽인 15%, 인도계 3%, 백인 3%	성공회, 로마 카톨릭, 신교		영어	2,520,000/2,400,000:L1 50,000:L2	2%	L1:95% L2:2%	수출:157,990만불 GNI 2,820불(92위)	C 30
잠비아	있음	영국 (1964년 독립)	바르세족, 벤바족 등 아프리카인이 대부분 (98.7%)	기독교 50~70%, 토착종교	영어 외에도 다양한 부족어 사용	영어	9,456,000/50,000:L1 1,000,000:L2	70%	L1:11% L2:11%	수출:91,500만불 GNI 330불(177위)	C 20
짐바브웨	있음	영국 (1980년 독립)	쇼나족 71%, 엔데벨족 16%, 유럽인 1%	기독교 25%, 토착종교 24%, 기독교 토착종교 통합 50%	공용어는 영어지만 반투계언어도 폭넓게 사용	영어	11,261,000/250,000:L1 3,300,000:L2	33%	L1:2% L2:29%	수출:241,000만불	C 25
케냐	있음	영국 (1963년 독립)	키쿠유족 21%, 루오족 14%, 루오족 13%, 카렌족 11%, 캄바족 11%, 키시족 6%, 기타 26%	기독교 38%, 천주교 28%, 토착종교 26%, 기타 8%	공용어는 영어이고스와힐리어가 공용	영어, 스와힐리어	28,626,000/2,576,000:L2	31%	L2:9%	수출:173,400만불 GNI 360불(174위)	C 25
키리바시	있음	영국 (1979년 독립)	미크로네시아인 98%	천주교, 기독교	공용어는 영어이며 길버트어도 사용	영어, 길버트어	80,000/20,000:L2	10%	L2:25%	수출:600만불 GNI 810불(142위)	C 40
탄자니아	있음	영국 (1961년 독립)	아프리카원주민 99%, 아시아인, 유럽인	기독교 40%, 회교 33%, 토착종교 25%	공식어인 스와힐리어를 사용하며 영어도 사용	스와힐리어, 영어	28,072,000/3,000,000:L2	54%	L2:11%	수출:66,300만불 GNI 280불(182위)	C 25
투발루	있음	영국 (1978년 독립)	폴리네시아인 96%	기독교 97%	언어는 투발루어(語)를 사용하지만 영어도 사용	투발루어, 영어	9,000/600:L2	50%	L2:7%	수출:28만불	C 25

정치/문화적 환경				언어적 환경				경제적 환경		총점		
국가명	식민지 여부	식민지 국가	종족구성	종교	모국어 대 영어 사용비율	공용어	인구/영어 사용지수	문맹률	영어 사용률		무역규모/1인당 GNI(2002기준)	
트리니다드 토바고	있음	영국 (1962년 독립)	흑인 43%, 인도계 40%, 혼혈 14%, 백인 1%	로마카톨릭 32.2%, 힌두교 24%, 성공회 14.4%, 회교 6%	언어는 영어를 공용어로 하고 있으나 프랑스어, 에스파냐어, 힌디어 등을 사용	영어	1,265,000/1,200,000:L1	3%	L1:95% L2:96%	수출:437,920만불 GNI 6,490불(63위)	55	B
팔라우	있음	미국 (1994년 독립)	미크로네시아인	천주교, 기독교, 토착종교	영어가 팔라우 전체 16개주에 걸쳐 공식어로 사용되고 있고 손소랄주(state of Sonsoral)에서는 손소랄어가 공용어로 사용되고 있으며 각주에서는 그 지역 고유의 언어도 사용	영어, 미크로네시아어	17,000/500:L1 16,300:L2		L1:3% L2:96%	수출:1,100만불 GNI 6,780불(61위)	60	B
피지	있음	영국 (1970년 독립)	피지인 49%, 인도인 46%, 기타 5%	기독교 52%, 힌두교 40%, 회교	말라오-폴리네시아어계에 속하며 많은 방언을 가지고 있음	영어, 피지어, 힌두어	791,000/5,000:L1 160,000:L2	20%	L1:1% L2:20%	수출:57,200만불 GNI 2,160불(99위)	35	C
필리핀	있음	미국 (1946년 독립)	말레이인 95.9%, 중국인 1.5%, 기타 3%	천주교 83%, 기독교 9%, 회교 5%, 기타 3%	타갈로그어(語)를 기초로 한 필리핀어(語)가 공용어로 쓰이고 있으며 영어도 공용어로 사용	타가로그어, 영어	70,011,000/15,000:L1 36,400,000:L2	15%	L1:0% L2:52%	수출:3,210,000만불 GNI 1,020불(133위)	45	C

3.2 등급 기준

위의 자료는 영어 공용화 국가를 정치/문화적 측면, 언어적 측면, 그리고 경제적 측면을 고려하여 세부 항목별로 열거해 본 것이다. 도표의 오른쪽 끝에는 각 나라의 점수가 적혀 있는데, 이것이 본고가 제시하고자 하는 영어 공용화의 지수라고 볼 수 있다. 이 지수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해 마련된 것이다.

- ① 언어적 측면의 기준(50%)
 - 영어 사용자수(20%), 모국어 사용 여부(20%), 문맹률(10%)
- ② 정치/문화적 측면의 기준(20%)
 - 식민지 경험 여부(20%)
- ③ 경제적 측면의 기준(30%)
 - 국가의 경쟁력(수출 규모 및 현재 GNI 순위)(30%)

위의 기준에서 각 부분의 비율은 50:20:30으로 설정하였다. 언어적 측면을 50%로 가장 높게 설정한 이유는, 영어 공용화 문제에서 언어적인 측면을 가장 높게 비중을 두어야 한다는 생각에서이다. 특히, 영어사용자 비율과 모국어 사용자 비율 등은 영어 공용화 성패의 중요 변수로 작용한다고 판단했다. 그 다음으로 경제적 측면에 30%를 배정했다. 물론, 언어적 측면보다는 비중이 덜 하지만, 현재 그 국가의 대내외적 경쟁력을 알아 볼 수 있는 중요한 척도라고 판단하여 30%를 배정한 것이다. 그리고 정치적 측면에 20%를 배정했다. 그 나라의 역사와 정치 사회적 배경도 영어 공용화의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 지수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제는 위의 기준에 대해 좀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자.

<등급별 배점표>

분야/배점		A(20)	B(10)	C(0)
정치적 측면	식민지 경험 여부	무		유
언어적 측면	영어 사용자수	50% 이상	11~49%	10% 이하
	모국어 공용화 여부	모국어공용화	다수 사용	사용안함
	문맹률	10% 이하(10)	11~49%(5)	50%(0)
경제적 측면	GNI	1만불 이상	5천~1만불	5천불 이하

먼저 언어적 측면의 기준에서는 영어 사용자수(20%), 모국어 사용 여부(20%), 문맹률(10%)을 배정했다. 이 세 가지를 주요 평가척도로 사용한 이유는 영어공용화가 단지 영어를 잘 사용한다고 해서 성공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영어도 잘 사용하면서 한편으로는 모국어도 그만큼 사용할 줄 안다면 그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에서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영어가 지식층 일부에서만 국부적으로 사용되거나 상류층의 전유물로만 사용된다면 그것은 오히려 영어 공용화의 폐해를 낳게 된다고 판단했다. 그것은 영어로 인해 계층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빈익빈 부익부의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이런 까닭에 문맹률을 고려할 필요가 있었다. 만약 영어 사용비율은 적는데 문맹률이 높다면, 그것은 일부 계층만이 영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영어 사용자가 전체 인구의 50%를 넘게 되면 나름대로 A등급을 부여하고 10% 이하면 0점을 부여했다. 모국어 사용의 경우, 모국어를 영어와 함께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으면 A등급을, 공용어는 아니지만 모국어가 나름대로 사용되고 있다면 B를, 그리고 전혀 사용되지 않는다면 C등급을 주었다. 문맹률의 경우 문맹률이 10% 이하이면 A를, 50% 이상이면 C를, 그 중간은 B를 부여했다. 이러한 세 가지 평가척도를 20:20:10으로 책정한 이유는 문맹률의 경우 다른 두 부분과 관련이 있고, 또 문자언어에 국한된다는 제약이 있기 때문이다.

경제적인 측면의 경우, 수출 규모와 1인당 GNI(국민총생산)를 평가의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GNI의 경우, 2002년도 세계은행에서 발표한 자료를 토대로 한 것이므로 최근의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이 가운데 GNI가 1만불 이상이면 A등급을 부여하고, 5천불 이하면 C등급을, 그리고 나머지는 B등급을 부여했다.

정치적인 측면의 경우, 주로 식민지 경험 여부에 초점을 맞추었다. 과거 강대국의 식민지였거나, 특히 영어권이 영국이나 미국의 식민지를 경험한 나라들은 역사적으로 영어를 이미 경험했거나, 또 독립 이후에도 자연스럽게 영어권에 머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의 입장에서 그 나라가 영어 공용화를 실시하고 있다 해도 식민지 경험이 있다면 그리 바람직한 모델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식민지 경험이 있으면 C등급을 부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A등을 부여했다. 참고로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영어 공용화 실시 나라의 전부가 예외 없이 식민지를 경험한 나라들이었다. 이에 따라 모두 C등급을 부여받았다.

그러므로 총점을 100으로 가정했을 경우, 실제 총점은 80점이 되는 셈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바람직하다고 판단할 만한 영어 공용화 국가는 없는 셈이 된다. 정치적인 면에서 모든 나라가 0점을 받게 되어 절대평가를 한다면 90점 이상 점수를 받은 나라가 나올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영어 공용화 국가를 점수별로 다시 세 부류를 나눌 때, 편의상 상대적인 평가를 실시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100점 만점이 아닌 8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여 국가들을 3등분했음을 미리 밝혀둔다.

3.3 영어 공용화 국가의 세 유형

이상 세 가지 등급기준과 등급 배점표에 따라 영어 공용화 국가를 세 유형을 나누면, 다음과 같다.

- ▶ A그룹 (70점 이상) : 뉴질랜드, 싱가포르, 아일랜드 (3개국)
- ▶ B그룹 (50 ~ 69점) : 나우루, 몰타, 바하마, 브루나이, 세인트키츠네비스, 트리니다드토바고, 팔라우 (7개국)
- ▶ C그룹 (50점 미만) : 가나, 가이아나, 감비아, 그레나다,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남아공화국, 도미니카연방, 라이베리아, 레소토, 말라위, 모리셔스, 미크로네시아, 바누아투, 바베이도스, 벨리즈, 보츠와나, 사모아, 세이셸,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솔로몬제도, 스와질랜드, 시에라리온, 앤티가바부다, 에리트레아, 우간다, 인도, 자메이카, 잠비아, 짐바브웨, 케냐, 키리바시, 탄자니아, 투발루, 피지, 필리핀 (37개국)

위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A그룹에는 겨우 3개 나라가 선정되었으며, B그룹에는 7개 나라, 그리고 대다수인 37개국은 C그룹으로 분류되었다. 물론, A그룹으로 분류된 뉴질랜드(70점), 싱가포르(75점), 아일랜드(80점) 세 나라도 100점 만점으로 보면 90점을 넘는 곳은 한 곳도 없기 때문에 명실상부한 A그룹이라 보기 어렵다.

뉴질랜드는 총 70점을 받았는데, 정치적으로는 1947년에 영국의 식민지에서 독립하였으며, 영어와 마오리어를 공동으로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고, 영어 사용인구도 95%를 넘는다. 또한, 문맹률이 2% 이하여서 거의 대부분의 국민이 골고루 영어를 사용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GNI도 43위를 기록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총 75점을 받았는데, 정치적으로는 영국의 식민지를 경험하다가 1965년에 와서 독립을 하였으며, 영어 이외에도 말레이어, 중국어, 타밀어 등을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문맹률은 7%로 낮으나, 영어를 제1언어로 사용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고(10%), 제2언어로 사용하는 비율이 높다(35%). 경제적으로는 GNI가 27위로 영어 공용화 국가 중에서는 높은 편이다.

아일랜드는 총 80점으로, 영어 공용화 국가 가운데 제일 높은 점수를 받았다. 영국의 식민지였다가 1921년에 독립하였으며, 비록 소수이기는 하지만 모국어인 아일랜드어를 영어와 함께 사용하고 있으며, 문맹률이 2%로 아주 낮고, 영어를 제1언어로 사용하는 사람이 95% 이상이므로 전국민이 영어를 골고루 사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아마도 인접한 영국의 영향을 밀접히 받은 까닭으로 보인다. GNI도 18위로 제일 높다

고 할 수 있다.

B그룹은 브루나이(65점), 몰타(55점)를 비롯한 7개 나라가 속하게 되었는데, 여기서도 절대적 기준으로 보면, C나 D급에 속해야 할 나라들이라고 할 수 있다. 몰타는 총 55점으로 정치적으로는 영국에서 1964년에 독립하였으며, 영어 이외에 몰타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문맹률은 13%이며 영어를 제1언어로 사용하는 인구는 2%로 낮고 제2언어로 사용하는 인구는 23% 정도이다. GNI는 9천200불로 56위를 기록하고 있다. 브루나이의 경우, 1984년에 영국으로부터 독립하였으며, 영어와 말레이어를 주로 사용하지만 영어를 제1언어로 사용하고 있는 비율이 3%로 매우 낮고 제2언어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다 더 많다(36%). 특히, 문맹률이 55%이기 때문에 영어가 상류층의 전유물로 전락했다고 볼 수 있겠다. GNI의 경우, 석유 산유국이기 때문에 1만8천불로 상대적으로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C그룹은 50점 미만의 국가로 총 37개국에 이른다. 대부분의 나라는 가나와 우간다를 비롯한 아프리카 국가이거나 중남미의 후진국가가 대부분이며, 아시아 국가로는 인도와 필리핀이 이 그룹에 속한다. 대부분 공용어로 영어만을 사용하고 있고 문맹률이 매우 높으며, 경제적으로도 후진국에 속한 나라들이다. 그 가운데서도 모리셔스(45점)나 바베이도스(45점)와 같이 경제적인 여건이 상대적으로 좋아 C그룹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은 국가가 없지 않으나, 대부분은 20점대를 기록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기준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간다의 경우, 15점으로 1962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했으며, 영어만을 사용하고 있으나, 문맹률이 50%를 넘고, 영어도 제2언어로 10% 정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수 지식인 계급만이 사용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GNI도 188위를 기록하고 있다.

인도의 경우, 25점으로 1947에 영국에서 독립했으며, 영어와 힌두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으나 문맹률이 58%나 되고, 영어도 제2언어로 4% 정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특수 계급에서만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GNI 159위로 매우 낮은 순위를 나타내고 있다.

필리핀의 경우, 총 45점을 기록했는데, 경제적으로는 GNI가 133위를 기록하고 있어 매우 후진적이다. 정치적으로 보면 1946년에 미국으로부터 독립했으며, 영어 이외에 타갈로그어를 공용어로 하고 있고, 문맹률이 15%로 그나마 낮고 비록 제2언어이지만 영어 사용률이 52%를 기록하고 있다.

4. 국가별 실태 분석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영어 공용화 국가의 유형을 토대로 하여 싱가포르, 인도, 필리핀, 말레이시아 4개국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싱가포르는 A그룹을 대표하고, 인도와 필리핀은 C그룹을 대표한다. 물론, 이상적으로 ABC 그룹에 속해 있는 나라를 골고루 하나씩 선정하여 그 실태를 조사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였으나, 예산의 문제와 시간적 문제 때문에 조사 대상을 아시아 국가로 한정하는 바람에 부득이 하게 B그룹을 조사하지 못했다. 그러나 C그룹 가운데 인도는 비교적 점수가 더 낮고 필리핀은 조금 높아 같은 그룹이지만 나름대로 조사의 대상으로서의 가치는 충분하다고 판단하였다. 더욱이 싱가포르, 인도, 필리핀은 영어 공용화 논의가 나올 때마다 중요 사례 국가로 늘 언급되었던 나라이었기 때문에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시킨 것이다.

특히, 말레이시아를 조사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나름대로 이유와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말레이시아는 영어 공용화 국가는 아니지만 영어 공용화와 관련하여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나라이기 때문이다. 말레이시아는 역사적으로도 영어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1956년에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이래 1970년까지 모든 수업을 영어로 진행할 만큼 실질적인 영어공용화 국가였기 때문이다. 더욱이 1970년 이후 정부의 모국어 중심의 교육 정책으로의 전환을 겪었고, 다시 2003년부터는 점차적으로 모든 수업을 영어로 진행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는 사이에 정치, 사회, 문화적 측면에서 여러 갈등과 문제를 보여 왔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비록 말레이시아가 공식적인 영어 공용화 국가는 아니지만, 본 연구에서는 중요한 조사 대상으로 간주하고 조사 범위에 포함시킨 것이다.

4.1 필리핀

4.1.1 역사 문화적 배경

필리핀은 동양 문화적 요소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서양의 문화뿐만 아니라 이슬람의 문화 등 다양한 문화적 요소가 섞여 있는 매우 특색 있는 나라이다. 이러한 필리핀의 문화적 특색은 필리핀의 역사적 배경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1521년 마젤란이 필리핀의 세부 섬에 도착한 이후 400년간 필리핀은 스페인의 식민지로 있었고 1898년부터 약 50년간은 미국의 통치 하에 있었고 2차 대전 기간 동안에는 잠깐 일본의 점령 하에 있었다. 스페인은 거의 4세기 동안 필리핀을 식민지화하면

서 필리핀의 정부와 종교제도에 큰 영향을 끼쳤다. 스페인의 점령 이전에 필리핀은 토착 원주민인 말레이 종족은 분산된 형태로 일종의 마을 단위의 정치조직을 형성하고 있었다. 16세기 전까지 바링가이라고 하는 이러한 마을 단위 조직이 필리핀 전역에 펼쳐져 있었으나 중앙집권적인 나라는 이루지 못하였다. 비슷한 시기에 다른 아시아 국가들이 통일된 중앙 집권 국가를 이루고 있었던 것과 비교해 보면 정치적 발달이 늦은 국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스페인의 식민지 시대에는 강력한 중앙정부의 행정력을 기반으로 필리핀을 하나로 묶는 국가 창출의 개념이 세워졌다. 여기에는 무엇보다도 가톨릭이라는 종교의 힘이 컸다. 스페인 식민 정부는 필리핀인들에게 가장 먼저 종교 전파에 힘을 기울였다. 당시의 서구 열강들의 식민 건설은 정치적인 목적과 종교적인 목적을 띤 정복사업이 일반적이었으므로 스페인도 필리핀을 점령하자마자 원주민들에게 가톨릭 전파가 우선적인 정책이 된 것이다.

그 당시 필리핀은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는 달리 불교나 힌두교, 유교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아서 보편적으로 애니미즘을 신봉하고 있었고 거기에 15세기에 남쪽 섬에 들어온 이슬람교가 막 자리를 잡기 시작하던 상황이었다. 따라서, 강력한 종교적인 반발이나 마찰 없이 가톨릭은 필리핀의 문화에 자연스럽게 이식되었다. 스페인에서 이수된 가톨릭 문화는 오늘날 필리핀의 문화와 일상생활에 있어서 절대적인 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영향력을 미친다. 오늘날 필리핀의 관광 상품 중의 많은 부분은 이러한 가톨릭의 종교적 행사나 축제, 혹은 종교적 색채가 짙은 성당이나 사원 등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만 보아도 필리핀의 근대화 역사에 미친 가톨릭의 영향력을 짐작할만하다.

스페인에 이어 필리핀에 들어온 미국은 필리핀 사람들에게 정치와 종교의 분리를 시도하고 공공검진서비스 센터, 대중 교육과 같은 공공 서비스를 실시하고 무엇보다도 영어 전파에 힘을 기울였다. 필리핀에서의 미국의 영어 이식은 오늘날 필리핀이 영어 공용국가로의 운명을 걷게 되는 계기를 만들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국가의 정체성을 연구는 선입견에서 벗어나 객관적인 자료와 철저한 역사 조사를 바탕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필리핀을 두고 “동양 속에 편 서양의 이미지 나라”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으나, 필리핀 자체의 고유한 문화가 전혀 없거나 아니면 외래문화로 인해 정체성이 완전히 소멸되었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비록, 영향력의 교섭이 다른 아시아 국가들보다는 약했다고 하더라도 필리핀은 스페인이나 미국의 식민지 문화의 간섭이 있기 전에 말레이인, 중국인, 인도인들의 영향을 받았다. 더구나, 민족적으로도 현대 필리핀인들의 대다수는 말레이 인과 인도네시아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장 초기의 필리핀 조상들은 아시아에서 이주해왔다. 오늘날 필리핀이 가족 중심의 혈연을 중시하고 효도나 정을 중요시하는 정서문화를 공유하는

것은 이러한 동양적 정체성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근대에 들어와 서구 열강의 침략과 식민지의 오랜 수탈과 문화적 간섭을 겪으면서 동양적 정체성 위에 서양 문화의 이식이 혼란스럽게 공존하던 시기도 없지 않았으나, 지금은 자신들의 문화 안에 두 가지 문화의 가치를 조화시켜 발전해 나가고 있다. 어떻게 보면 현대 필리핀인들은 식민지적인 근성 위에서 비난되고 있는 오늘날의 많은 문제점과 함께 식민지 국가들에게서 받은 좋은 영향에 대한 평가가 공존하는 양면가치의 감정을 지녔다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필리핀의 문화적 이원성은 필리핀인들의 의식과 정치적인 동향에서 명백하게 드러나기도 한다. 이는 역사적으로 영어를 학교에서 수업 언어 쓰자는 측과 말자는 측의 대립처럼 영어에 대한 정책 방향 변화에도 나타난다.

요컨대, 필리핀인들의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인식은 폭넓게 점유된 서양의 문화적 맥락 안에서 필리핀 고유의 가치, 동양적인 정체성들을 찾아내려는 비판적인 의식의 발로라고 할 수 있다.

필리핀을 방문한 외국인들이 이 나라에 대해 처음으로 느끼는 인상은 필리핀인들이 매우 친절하다는 점이라고 한다. 그러한 친절함은 스페인의 사교적이고 친절한 문화 영향으로 받은 것으로서 오늘날에는 필리핀인들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정서로서 필리핀인들은 ‘빠끼끼사마(Pakikisama)’라고 한다. 이는 서로를 존중하기 위해서 “부드러운 사회적 상호작용”을 의미한다.

또 하나의 일반적인 정서로는 필리핀인들은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하다는 것과 권위주의적인 면이 많다는 점이다. 필리핀 연구 학자들에 따르면, 필리핀인들은 그들 자신과 직접적이거나 내면적인 어떤 접촉과 교제 없이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혀 신경을 쓰거나 제약을 가하거나 억누르지 않는다. 이는 반대로 자신과 관련이 없는 사람이 자신의 일을 비난하거나 모욕하는 것에 대해 반드시 자기 방어의 분쟁이 일어나는 행위로 연결되기도 한다 (이를 ‘amor propio’라고 함). 이러한 정서에 대하여 가난하고 어려운 환경에 살아도 자긍심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는데, 아마도 이러한 정서는 오랜 세월 동안 열강의 식민지로 있으면서 필리핀인들의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국민적 정서라고 할 수 있다.¹¹⁾

한편, 필리핀인들은 개인의 권위나 지위에 대하여 매우 민감하고 또 존중하는 권위주의의 성향을 나타낸다. 가정에서의 권위는 연장자나 남성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교회에서는 신부나 목사가,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직장에서는 상관이 정당한 권위를 가진 사람들로 생각되며 따라서 이들을 존중하고 또 따르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이러

11) 실제로 필자가 외교문화센터에서 만난 필리핀 노동자들은 곧 본국으로 추방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처지에 대해 어려움을 내보이지 않았다. 또한, 인터뷰 수락에 대해 간단한 음료를 대접하고자 했던 필자의 호의에 대해서도 극구 거절의 의사를 나타냈다. 앞으로 계속하여 필리핀 노동 인력을 우리의 건설 현장에서 고용하려면, 이 같은 국민적인 정서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 필리핀인들의 권위주의적인 성향은 동양의 유교주의나 가부장주의에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요컨대, 필리핀의 문화적 정체성은 인류역사학적 또는 인류 사회학적으로 여러 민족이 서로 다른 양상을 띠면서 발달되어 하나의 집성체를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4세기 가량 필리핀을 지배하였던 스페인의 영향, 약 40년 동안 통치하였던 미국인, 현대로 접어들면서 기술과 자본을 바탕으로 한 일본인들의 영향으로 여러 문화의 줄기가 필리핀의 전통 문화적 정체성에 이식되어 혼합된 양상으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이로써 필리핀인의 특성은 일반적인 관점에서 볼 때 미국이나 스페인의 영향을 받은 서양의 문화로 말미암아 실리에 입각한 개인주의의 성향과 중국이나 인도의 영향을 받은 도양의 유교주의, 인치주의, 가부장주의 등에 입각한 권위주의의 성향을 함께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4.1.2 언어 정책의 방향

스페인 시대의 대중 교육은 필리핀을 가톨릭으로 개종하는 역할에 충실한 교육이었다. 16세기에 시작된 스페인의 식민 통치는 19세기 후반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필리핀에서 초등학교 교육을 공식적으로 의무화했다. 그러나 미국의 식민지로 바뀌면서부터는 필리핀에서도 본격적인 대중교육이 시작되었다. 미국은 스페인이 침투하지 못했던 민다나오 섬의 밀림루손의 산악지방, 슬론 군도 등과 같은 필리핀의 오지에까지 선교사들을 보내어 마을 학교(바링가이 스쿨 Barangay School)을 세우고 영어를 보급하여 대중교육을 전파하였다.¹²⁾

스페인이 필리핀을 점령한 지 298년만에야 겨우 공교육 제도를 갖추었다면, 뒤이어 필리핀에 들어온 미국은 처음부터 영어 전파를 제 1의 통치 원리로 내세워 영어 교육을 시작하였다. 1898년부터 시작된 미국의 필리핀에 대한 영어 전파 정책이 시발점이 된 필리핀의 영어 교육은 오늘날에 이르면 100년이 훨씬 넘는 역사를 가지는 셈이다. 그 동안 필리핀에서 영어는 공통 언어(common language)로서, 제 2 언어(second language)로서, 소통 언어(communicate language)로서, 교육언어(educate language)로서, 최근에는 보충 언어(complementary language)로서 다양하게 불려져 왔다. 현재는 타갈로그라고 불리는 필리핀 어와 함께 영어는 공용어(official language)로서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이 필리핀에 식민 정책을 실시하면서 영어 교육에 왜 그토록 신경을 썼는가 하는 점은 필리핀의 언어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필리핀은 말레이인, 인도네시아인, 인

12) 유석춘(1994), "필리핀의 사회제도: 가족, 종교, 교육", 동아시아연구 제 3호.

도인, 중국인 등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보다 더 분화된 소수의 부족으로 형성된 국가이다. 더구나 수많은 섬으로 이루어진 필리핀의 지리적 상황은 필리핀이 통일된 중앙집권 국가를 이루기도 어렵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의 공통된 언어생활을 영위하기도 어려운 조건이었다. 필리핀의 고유어 상황은 70개가 넘는 방언이 존재하며 이들 방언은 각각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쓰이기 때문에 공용어로서 확산하기가 어렵다. 필리핀 방언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인다고 하는 타갈로그어도 북부의 루손 지방을 중심으로만 쓰여 전체 언어 사용률로 보면 25%정도 밖에 차지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다양한 부족어와 방언이 혼재하는 가운데 필리핀 고유어가 한 언어로서 더욱 발달하지 못한 원인에 대해 사회학자들은 스페인의 오랜 식민 정책과 무관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한다. 스페인 정부는 필리핀인들에게 별다른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고 따라서 체계적인 언어교육을 가능하지 않았기에 필리핀 방언은 지역 경계를 넘지 못한 채 매우 원시적이고 폐쇄적인 언어 양상이 지속되게 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새롭게 등장한 사회적 개념들은 거의 모두 스페인어로 표현되거나 대체되는 언어의 우열적 간섭이 이루어졌다.

일반적으로 학자들 간에 의견이 일치되는 것은 필리핀 고유어는 현대의 사회, 경제, 정체 체제에 관한 개념을 표현할 수 없는 원시성을 띠고 있다는 점이다.¹³⁾ 적어도 1937년에 민족적인 관점에서 필리핀 국어가 제정되기 전까지는 공식적인 언어생활과 학교 교육 및 대중 매체에서 스페인 어와 영어가 압도적인 우위를 누려왔다. 현재까지도 필리핀의 모든 주요 대중 매체와 일간지는 영어를 제 1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이다.

1898년부터 1935년까지 다소의 변동이 있기는 했지만 필리핀에서의 영어교육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영어를 수업언어로 사용하였다. 이때 영어를 수업 언어로 사용하는 문제는 필리핀의 근대사를 통하여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 필리핀에서의 영어 교육을 바라보는 필리핀 국민들의 시각은 대개 두 가지인데, 그 하나는 영어는 필리핀의 문화유산이니 도저히 일상에서 뗄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견해와 또 하나는 영어는 필리핀의 식민지 문화 근성을 길러 주었을 뿐이므로 수업 용어로 쓸 수 없다고 보는 견해가 그것이다. 역사의 대목마다 각각의 견해를 대변하는 위정자가 들어서게 되면 필리핀의 영어 교육 정책 방향은 변화를 입어왔다.

13) 현재 스페인어는 필리핀의 전 인구의 약 3%만이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도 필리핀 고유어에 영향을 준 것은 영어보다는 스페인어라고 한다. 수백 개의 스페인 단어가 다소 변형된 꼴로 고유어에 삽입되었다. 이러한 스페인어의 고유어 침식현상은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어, 서양의 새로운 개념이나 발명품이 들어오면 영어보다는 스페인어를 이용하여 그것을 표현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이것에 대해, 남용우(1978)에서는 스페인어와 필리핀 고유어의 발음 조직이 같고 국민 다수가 사용하는 영어보다는 특수층이 사용하는 스페인어를 쓰자는 상향심리에서 유래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수업용어로 영어가 쓰이는 시기에는(미국의 식민 정책 초기) 필리핀 어린이들은 학교에 들어오는 첫날부터 일절 모국어는 사용하지 못하고 모든 것은 영어로만 소통하도록 교육받는 직접 교육을 적용받았다. 현재까지 필리핀에서의 영어 교육 방법은 그 지위가 무엇이었던지 간에 수업 방법에서 말한다면 이같은 직접 교수방법을 채택해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37년 12월 30일 공식적으로 타갈로그(Tagalog)어를 필리핀 국어로(Pilpino라고 부름)채택하고 학교 교육 현장에서 필리핀어를 영어 보조수단으로서 사용될 수 있도록 제정되었다. 그 이후 필리핀 국민들의 마음속에 자신들의 모국어를 살려야 한다는 불길이 일어났지만 실제로 교육 현장에서는 커다란 변화 없이 오히려 영어 교육의 세를 더하는 방향으로 계속하여 영어는 직접적으로 필리핀 학생들에게 교육되었다. 마음속에는 필리핀에 대한 자존심이 강하였지만 영어를 잘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신분 상승을 이루고 경제적인 번영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현실을 서서히 받아들인 셈이다.

마침내 1946년 필리핀이 독립을 하고 독립국가로서 자신들의 언어를 선택할 수 있는 위치에 이르렀다. 즉 그들이 원하면 정보 공용어로서도 영어를 폐지할 수 있고 수업용어로 쓰던 영어도 금지할 수 있는 환경에 놓인 것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필리핀 국어가 수업 용어로 쓸 만큼 아직 전국에 보급되어 있지 못하고 근대적인 개념을 수용할 수 있는 언어 발달을 가지고 있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 따라서 독립한 필리핀 국가는 여전히 영어를 그들의 장부 공식 언어로, 그리고 수업용어로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다만 이전의 미국의 통치 시기와 달라진 점은 타갈로그어가 영어와 함께 공식어가 되었다는 점이다.

필리핀에서 영어 교육이 실시된 지 한 세기를 넘기게 된 시점에서 영어로 된 문학작품이 꽃을 피우고 모든 교육기관에서 영어는 명실상부한 공식 언어로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대학 교수들은 자신의 수업에서 영어를 사용하지 않고 필리핀 국어로 대체하고 있고 또 일부 대학에서는 필리핀 국어를 전공하고 연구하는 학생들도 늘어나면서 문화적 정체성을 찾고자 하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노력이 구체적으로 실효를 거둘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이다. 타갈로그어로 된 문헌 자료나 연구 축적물도 척박한 데다가, 여전히 사회의 모든 공적인 생활은 영어가 쓰이는 현실이 사라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4.1.3 영어 교육과 사용 실태

1) 영어 교육 실태

필리핀에서 영어 교육은 단순한 외국어 교육이 아니다. 앞서 살펴봤듯이 필리핀은 1946년 미국으로부터 독립한 이후에도¹⁴⁾ 영어와 필리핀 어를¹⁵⁾ 함께 공용어로 사용하는 이중 언어 생활이 지속되었다. 특히, 근대적인 교육이 미국의 필리핀 점령과 함께 이루어진 관계로 교육 분야에서 영어의 영향은 막대하였다. 교육 현장에서의 이중 언어 사용은 이런 역사적 맥락 하에서 자리를 잡아갔다. 이에 따라 영어는 초등학교 1학년 단계부터 교과 과정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자료1)

필리핀 각급 학교에서의 영어 교육 시간 현황 (아래)

- 초등학교(Elementary School)의 영어 시간(매일)

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시간	80분	80분	80분	80분	80분	80분

- 고등학교(High School)의 영어 시간(매일)

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시간	60분	60분	60분	60분

위의 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필리핀에서의 영어 교육은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초등학교 1학년의 경우는 영어 시간 80분 외에 쓰기 시간(Writing) 40분이 배정되어 있어 실질적인 영어 교육 시간은 120분이라고 할 수 있다. 쓰기 시간에는 철자와 발음을 가르치고 있는데, 필리핀어 역시 고유 문자가 없이 알파벳을 문자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쓰기 시간에 배운 철자와 발음 교육은 필리핀어 교육에도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 참고로 필리핀 초등학교 1학년과 고

14) 미국의 필리핀 점령은 1898년에 시작되어 1946년까지 지속된다. 이 기간 동안 미국은 지배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영어를 사용하면서 동시에 필리핀의 여러 토착어 중 타갈로그어를 공용어로 인정하게 된다. 이 기간 동안 타갈로그어로 된 신문, 잡지, 문학작품 등이 발간되었고, 라디오나 영화 등에도 타갈로그어가 사용되었다.

15) 필리핀어는 Filipino를 우리말로 옮긴 것이다. 필리핀에서는 영어와 Filipino를 국가 공용어로 하고 있는데, Filipino는 공용어로서의 타갈로그어(Tagalog)를 이르는 말이다.

등학교 1학년의 전체 시간표를 제시하면 영어 교육의 비중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고등학교의 영어 교육은 다른 과목의 수업과 거의 동일하게 60분씩 배치되어 있다.¹⁶⁾

◎ (자료2)

필리핀 학교의 수업 시간표

- 한 초등학교 1학년 수업 시간표

TIME TABLE OF GRADE I SECTION I
TUKTUKAN ELEMENTARY SCHOOL
TUKTUKAN, GUIGUINTO, BULACAN

TIME	MINUTES	LEARNING AREAS	TEACHER
1	15	Flag Ceremony	
2	60	Science	MRS. de CASTRO
3	80	English	MRS. de CASTRO
4	10	Recess	
5	40	Writing	MRS. de CASTRO
6	40	Sibika at Kultura	MRS. de CASTRO
7	40	Filipino	MRS. de CASTRO
8	60	Mathematics	MRS. de CASTRO

16) 고등학교의 경우 교육 시간이 학년에 따라 약간의 변동이 있다. 1-2학년은 60분씩 강의하고 있지만, 3-4학년의 경우는 영어와 필리핀어에 60분씩 배정된 것을 제외하고 40-80분 사이로 유동적이다. 특이한 것은 1-4학년 동안 교과목은 학년에 따라 변동되나, 영어와 필리핀어, 과학(biology와 chemistry 간에 교체가 있음), 수학은 모든 학년에 배정되어 있다.

- 한 고등학교 1학년 수업 시간표

TIME TABLE OF GRADE 1st YEAR

MARCELO H. DEL PILAR HIGH SCHOOL

STA. ISABEL MALOLOS CITY

TIME	MINUTES	LEARNING AREAS	TEACHER
1	60	Philippine History I	MRS. ENRIQUEZ
2	60	t.l.e.	MR. PASCUAL
3	60	Biology II	MRS. SANTIAGO
4	60	m.s.e.p.	MRS. LORENZO
5	60	vacant	
6	60	English	MRS. BARETO
7	60	Mathematics	MRS. PANGILIGAN
8	60	Filipino	MRS. PADILLA

초등학교 영어 교육은 교육 시간만이 아니라 교육 수준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아래 제시한 자료는 필리핀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공부하는 영어 교과서 목차이다.

CONTENTS

Preface	vii
-------------------	-----

Unit I Meet Our Family

At Home	2
Come and Play	4
Let Us Work	5
At the Table	6
Let's Go	7
Cuckoo Clock	10
The Hot Springs	11
Father's Helpers	13
A Letter from Grandfather and Grandmother	15
A Trip to the Farm	17
The Surprise for Grandfather and Grandmother	20
Sticky Fingers	22
The Hen House	23
At the Pigpen	26
Good-bye	28
I Have a Little Kitty	29

◎ (자료4)

필리핀 초등학교 6학년 영어 교과서(Language Textbook) 목차

Table of Contents

Unit I The World That Breathes	1
Lesson 1 Reporting an Observation	2
Green Things Growing	2
Participating in a Meeting	3
Study Guide 1: Using Simple Sentences with Compound Subjects and Predicates	6
Reporting on Philippine Plants	10
Writing a Report	10
Summing It Up	12
Lesson 2 Making Descriptions	13
The Blind Men and the Elephant	13
Study Guide 2: Using Two-word Adjectives	15
Describing Animals	19
Writing a Description of an Animal	21
Summing It Up	23
Lesson 3 Interviewing	24
The Old Woman in a Shoe	24
Reading an Interview	25
Study Guide 3: Framing Questions and Using Special Nouns	26
Making Plans for an Interview	32
Filling Up Forms	33
Preparing a Report	34
Summing It Up	36
Lesson 4 Expressing One's Opinion	37
A Letter from Bolivia	37
Giving One's Opinion	38
Writing a Letter	39
Study Guide 4: Reporting Yes and No Questions	40
Summing It Up	44
Unit II Saving the World for Tomorrow	45
Lesson 5 Expressing One's Feelings	46
Child's Prayer for Other Children	46
Study Guide 5: Using Indefinite Pronouns	47
Talking about Children	51
Writing a Letter	54
Summing It Up	55
Lesson 6 Reporting Information	56
Study Guide 6: Telling about Future Action in Several Ways	57
Sharing Information	63
Writing a Report on Information Gathered	66
Summing It Up	66

◎ (자료5)

IMDC(Instructional Materials Development Center)에서 발행한 초등학교 초등학교 영어 교육 자료

Grade 1 English 1: Language and Reading Textbook

(Phoenix Publishing House, Inc., Public School Edition, 1996)

English 1: Teacher's Manual

(Phoenix Publishing House, Inc., Public School Edition, 1996)

Grade 2 English 2: Language and Reading Textbook

(SD Publications, Public School Edition, 1996)

English 2: Teacher's Manual

(SD Publications, Public School Edition, 1996)

Grade 3 Building English Skills: Book 1(IMDC, Reprint, 1996)

Building English Skills: Book 2(IMDC, Reprint, 1996)

Building English Skills: Teacher's Manual

(IMDC, Revised Edition, 1990, Reprint, 1996)

Grade 4 Everyday English 4: Language Textbook

(Vibal Publishing House, Inc., Public School Edition, Reprint, 1994)

Everyday English 4: Reading Textbook

(Vibal Publishing House, Inc., Public School Edition, Reprint, 1994)

Grade 5 English for Living and Learning: Language Textbook(IMDC, Reprint, 1995)

English for Living and Learning: Reading Textbook(IMDC, Reprint, 1995)

English for Living and Learning: Teacher's Manual(IMDC, Reprint, 1995)

Grade 6 Building English Skills: Language Textbook(IMDC, Reprint, 1997)

Building English Skills: Reading Textbook(IMDC, Reprint, 1997)

Building English Skills: Teacher's Manual(IMDC, Revised Edition, 1988, Reprint, 1994)

필리핀 영어 교과서의¹⁷⁾ 분석을 통해 볼 때 필리핀 초등학교 영어 교육의 특징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외국어로서의 영어 교육과는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자료 3)을 보면, 초등학교 1학년 영어 교과서의 목차가 생활 속의 주제로 나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이 주제는 외국인이나 영어권 나라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필리핀 사람들의 가정과 사회에 대한 이야기이다. 이는 일반적인 외국어 교과서와 다른 접근법이라고 볼 수 있다. 자료 5)를 보면, 필리핀에서는 작문 및 회화를 중심으로 한 교과서와 읽기 중심의 교과서가 한 쌍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¹⁸⁾ 이때, 'Language Textbook'은 말하기와 쓰기 위주의 교과서이고 'Reading Textbook'은 읽기 중심의 책이다. 자료 4)를 보면, 초등학교 6학년 'Language Textbook'의 목차를 볼 수 있는데, 이를 통해 본다면 필리핀 영어 교육에서 말하기와 쓰기 교육은 관찰한 바를 표현하는 방법, 사실을 기술하는 방법, 인터뷰하는 방법, 편지를 쓰는 것과 같이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기술하는 방법 등 일반적인 국어 표현 교육과 같은 차원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을 통해 본다면, 필리핀 영어 교육의 중심은 일반적인 국어 교육과 같이 읽기와 쓰기 능력의 향상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일반적인 초등학교 외국어 교육이 회화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것과는 다른 접근법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 영어 교육은 이중 언어 국가인 필리핀에서의 영어 위상을 염두에 두고 교육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초등학교 1학년생이 사용한 영어 읽기 교과서(New Reading for Learning and Living 1)의 서문은 필리핀에서의 영어 교육 목적을 보여 주고 있다.

... the teacher is the key to the child's reading progress. If the teacher is a model of the well-read, with interests ranging from the aardvaark to the zymogen; if he is seen reading books other than comic magazines; if he obviously finds pleasure in reading and considers books worth spending money on - then the child will feel that reading is the mark of the educated person and is, indeed, worth all the effort that he can put into improving his competence in it. (New Reading for Learning and Living 1, xiii)

17) 필리핀에서의 교육 수준을 파악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사립학교와 공립학교의 교육 수준이 다르다는 점과 지방과 마닐라 지역의 교육 수준이 다르다는 점이다. 즉, 마닐라 지역이면서 사립학교인 경우 영어 교육의 질적 수준이 무척 높다고 보면 된다. 이는 필리핀이 오랜 식민 생활을 겪으면서 생긴 전통과 관련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스페인 점령기(1521년-1898년)에는 스페인어가 상류층에서 교육되었고, 미국 점령기(1898년-1946년)에는 영어가 상류층 사이에서 교육되었다.), 중상류층이 영어 사용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 계층이 주로 다니는 사립학교에서 영어 교육의 수준이 높아지는 것은 자연스런 현상이다. 그러나 교육 시간 등 근본적인 교육체계에는 차이가 없지만, 교과서의 선택 등에 있어서 사립과 공립이 차이를 보인다. 다른 교과목과 달리 영어 교과서의 경우는 사립에서 독자적으로 영어 교과서를 선택하여 쓰고 있는 경우가 많다.

18) 자료5)를 보면, 초등학교 3학년부터 Language Textbook과 Reading Textbook이 나뉘어 있다. 그런데 마닐라에 있는 초등학교에서는 따로 Reading Textbook을 선정하여 1학년에도 별도로 읽기 교육을 시키고 있다. 특히, 사립초등학교는 1학년부터 Language Textbook과 Reading Textbook으로 나누어 영어 교육을 시키고 있다. 자료3)에 보이고 있는 교과서의 목차는 대부분의 사립초등학교에서 그리고 마닐라에 있는 대부분의 초등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초등학교 1학년용 읽기 교과서이다.

위의 서문에서 “교사가 코믹 잡지들이 아닌 책을 읽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리고 교사가 책읽기에서 기쁨을 발견하고 책에 돈을 쓸 만한 가치가 있다고 여긴다면, 아이는 책읽기가 교육받은 사람의 징표가 됨과 읽기 능력의 향상을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할 만한 가치가 있음을 느낄 것이다.”라는 말은 필리핀에서의 영어의 위상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말이다.

필리핀에서 영어는 지성 언어(知性言語)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대부분의 교육용 책과 교양서적들은 영어로 쓰여 있고,¹⁹⁾ 필리핀 내에서 정론지에 해당하는 신문들은 모두 영어로 쓰여 있고, 교육적 가치가 있다고 여겨지는 잡지에서도 영어만을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우수한 영어 읽기 능력은 지식 사회에 접근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것이다.

위의 서문은 이외에도 필리핀어의 위상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기도 하는데, 이중 코믹 잡지에 대한 언급의 의미를 알 필요가 있다. 필리핀 현지 조사를 통해 파악한 것 중의 하나는 필리핀어를 사용하고 있는 신문이나 잡지는 선정적인 내용으로 채워지는 황색잡지(yellow Journal)라는 점이었다. 이런 실태에 의거한다면, 이 서문은 필리핀어로 된 코믹 잡지만 봐서는 교육받은 사람으로 대접받기 힘들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대학에서도 영어 교육의 비중이 크다. 대학 수준의 학문 활동을 위해서는 전적으로 영어 서적에 의존하며, 모든 대학 강의가 영어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와 별도의 영어 교육이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쓰기(writing)나 말하기(speaking) 교육 등이 함께 진행되는 것으로 보아 대학 영어 교육의 목적은 고급 영어의 습득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대학생은 보통 1-3학년까지는 매 학기 영어 과목을 수강한다.

19) 필리핀에서 초등학생 및 고등학생에게 인기가 있는 책이 퍼즐책이다. 수학 퍼즐, 과학 퍼즐, 언어 퍼즐 등 다양한 종류의 퍼즐책이 출간되어 있는데, 이는 논리적 사고와 상식을 넓히기 위해 개발된 교육용 책이다. 이 책들은 100% 영어로 되어 있다.

◎ (자료6)

대학교 수강신청서 (한 학생의 1학기과 2학기 수강신청서: EN이라고 표시된 과목이 영어 과목이다.)

UNIVERSITY OF REGINA CARMELI
Malolos, Bulacan
PAASCU ACCREDITED

REGISTRATION CARD
(Student's Copy)

STUDENT NO. 99-9991

Print Maturangan (Family Name) Stephani (Given Name) Padolina (Maternal Name)

SUBJECTS	Sub. No.	Room	Days	Time	Units
1. EN 1	1547	206	M/Th	10:30-12:00	3
2. EN 5	1548	206	M/Th	1-2:30	3
3. MA 3	1549	206	M/Th	2:30-4	3
4. PH 1	1550	206	M/Th	4-5:30	3
5. TX 1	1551	206	MON	5:30-8:30	3
6. TH 5	1552	206	T/Fri	1-2:30	3
7. MG 4	1553	205	T/Fri	2:30-4	3
8. MG 5	1554	205	T/Fri	4-5:30	3
9. BL	1555	205	FRI	5:30-8:30	3
10. ACADEMIC					
TOTAL					27

Course & Year BSC - 3
Major Management
Summer 20

1st Sem. 20 01 20 02
Old New

Assessment of Fees:
Entrance Fee P 2500.00
Tuition Fee 1849 P 9247.00
Lab. Fee P
Computer Fee P 217.00
Typing Fee P
TOTAL 1186.00 1429.00

APPROVED: Stephani Maturangan
CASH ISSUED
ENROLLED
MAY 2 2000
N.B. NOT VALID if not signed by the Cashier PLEASE PRESENT THIS TO THE CLASSCARD SECTION AFTER PAYMENT.

UNIVERSITY OF REGINA CARMELI
Malolos, Bulacan
PAASCU ACCREDITED

REGISTRATION CARD
(Student's Copy)

STUDENT NO. 9901-99

Print Maturangan (Family Name) Stephani (Given Name) Padolina (Maternal Name)

SUBJECTS	Sub. No.	Room	Days	Time	Units
1. EN 6	1022	205	M-Th	1-2:30	3
2. FI 3	1023	205	M-Th	2:30-4	3
3. MS 7	1024	205	M-Th	4-5:30	3
4. TH 6	1025	205	SAT	8-11	3
5. BL 2	1026	205	T-Fri	1-2:30	3
6. MG 8	1027	205	T-Fri	2:30-4	3
7. MG 6	1028	205	T-Fri	4-5:30	3
8. CS 3	1029	205	T-Fri	5:30-8:30	3
9. TX 2	1030	205	MON	8:30-11:30	3
10. ACADEMIC					
TOTAL					27

Course & Year BSC - 3
Major Management
Summer 20

2nd Sem. 20 01 20 02
Old New

Assessment of Fees:
Entrance Fee P 3576.30
Tuition Fee 1849 P 9247.00
Lab. Fee P
Computer Fee P 217.00
Typing Fee P
TOTAL 14957.30

CLASS
DATE: 10-29 2001
ENROLLED
OCT 29 2001
N.B. NOT VALID if not signed by the Cashier PLEASE PRESENT THIS TO THE CLASSCARD SECTION AFTER PAYMENT.

2) 영어 사용 실태

학 교

영어 교육과 관련하여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점은 영어 교과서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일반 교과목 교과서가 영어로 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필리핀어 및 필리핀 역사 등과 관련된 교과목을 제외하고는 모든 교과서가 영어로 되어 있다. 따라서 영어는 교과목을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본 지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중언어를 사용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영어로 대부분의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으며, 영어 듣기 능력과 읽기 능력이 전혀 없는 학생이 초등학교 교과 과정을 따라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유치원에서 기본적인 영어 교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말하기 능력은 떨어질 수 있지만, 듣기와 읽기 능력에서는 어느 정도 갖추어진 상태에서 초등학교에 입학한다. 초등학교 1학년생의 영어 교과서가 상당히 높은 수준인 것도 이러한 교육 체제와 관련이 있다.

실제로 현장 조사를 통해 파악한 중요한 사실은 엄격하고 꼼꼼한 교사(strict teacher)일수록 강의 시간에 영어만을 사용하여 강의를 한다고 하는 점이다. 그리고 필리핀 현지인들은 영어만을 사용하는 교사를 원칙 있고 실력 있는 교사로 생각하고 있었다. 현지인들은 필리핀어를 섞어 강의하는 교사를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고 말하였으며, 교사들도 실제 교육 현장에서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강의 시간에 필리핀어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다. 특히, 사립 초등학교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모든 교사가 영어만으로 강의한다는 실태를 볼 때, 필리핀 내에서 영어의 중요성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의 경우는 영어로 말하는 게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학생과 교사와의 소통은 이중 언어 체제를 유지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즉, 교사는 영어로 강의하지만, 학생들은 영어와 필리핀어를 섞어 질문하면서 수업에 참여하게 된다.

이러한 현지 사정을 염두에 둘 때, 아래의 인터넷 기사문은 아주 흥미롭다. 아래 인터넷 기사문(자료 7)은 1999년에 세부 지역에서 ‘영어로만 수업하고 필리핀어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령’을 폐지하였다는 사실을 소개하고 있다. 세부 시에서 1999년 4월 26일 필리핀어를 모든 사립-공립 학교의 교육 언어로 인정하는 법령을 발표하는데, 이는 영어를 유일한 교육 언어로 정한 소위 영어법령(English Language Ordinance)을 폐지한다는 말이다.

이 기사문을 통해 볼 때, 필리핀에서는 46년 이후 영어와 필리핀어를 이중 언어로 하는 교육이 생활화되었으면서도 영어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학교 교육에서 영어를

금지하는 법령을 제정하기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기사문은 이러한 정책이 폐지된 1999년의 상황을 보고하고 있다. 이 기사문에서는 이 법령이 필리핀어를 영어에 우선하는 공용어로 확립시키겠다는 대통령(President Joseph Estrada, 뇌물수수 혐의로 퇴진한 상태)의 결단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언급하면서, 그 결단의 현실적 배경으로 영어법령(English Language Ordinance)이 경제적 이유(타갈로그어로 된 교과서를 영어로 번역해야 하는 데에서 오는 경제적 부담)로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음을 들고 있다. 그러나 '승진이나 면허 시험 등에서의 불이익 등을 우려하는 공무원들의 반응'이나 '교사의 강의안이나 강의 언어에서는 영어만을 써야 하는 것' 등은 1999년 개혁안이 갖는 한계를 암시하고 있다.

그러나 필리핀의 서민 대통령으로 불리던 Joseph Estrada가 일으킨 필리핀어 쓰기 운동은 지식인들의 조롱거리가 되었으며 이에 대한 일반 국민의 지지도 낮았던 것으로 보인다. 현지 조사 결과 현재는 영어로만 수업하라는 법령이 있다기보다는 영어로 된 교과서가 보편화됨으로써 이러한 문제제기가 별 소용없는 일이 되어 버렸다고 보는 게 정확할 것이다. 즉, 현지 조사가 이루어진 마닐라에서는 수학, 과학 등 일반 교과목의 교과서가 영어로 되어 있었으며, 교사들에게 영어만으로 강의하라는 강제 사항이 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었지만 영어로 강의하지 않는 교사가 거의 없는 실정이 되었다.

◎ (자료7)

1999년 인터넷 뉴스 자료

NEWSFLASH

FILIPINO NO LONGER BANNED IN CEBU CLASSROOMS

(세부의 교실에서 필리핀어는 더 이상 금지되지 않는다)

Cebu City, April 26, 1999 - Filipino is back as the medium of instruction in all private and public schools in the 48 municipalities and four cities of Cebu province, after the Cebu provincial board repealed an ordinance requiring English as the sole medium of instruction. The Commission on Filipino Language (CFL) announced yesterday that last March 22, Cebu Gov. Pablo Garcia approved Ordinance No. 99-05, repealing Ordinance No. 95-11, otherwise known as the "English Language Ordinance."

The repeal came after the governor received a memorandum last October 1998 from President Joseph Estrada requesting him to take steps towards the repeal of Ordinance No. 95-11 and Ordinance No. 89-8.

Ordinance No. 918-89 banned the use of Filipino as a medium of instruction in specific subjects in Cebu schools.

The English Language Ordinance was never fully implemented, because of lack of the necessary appropriation to translate into English all Tagalog-written textbooks used in public and private schools.

At a public hearing on the English Language Ordinance held by the Cebu Provincial Board last November 24, officials the Cebu regional office of the Department of Education, Culture and Sports (DECS) revealed that they were at a disadvantage in promotional and licensure tests and examinations because the tests contain questions in both Filipino and English.

Section 7, Article XIV of the 1987 Constitution mandates a bilingual language policy consisting of Filipino and English and at the same time expressly recognizing regional languages such as Cebuano as official languages in the regions and shall serve as auxiliary media of instruction.

DECS Regional Director Eladio Dioko submitted a position paper on the language which pointed out that the controversial Cebu ordinances have provided a "stumbling block to effective teaching and learning such subjects as social studies, home economics, industrial arts and physical education."

"The textbooks are in Filipino. The teachers' manual is in Filipino. Yet, teachers are required to write lesson plans in English and teach their lessons in English. This is a very difficult task. If the Province of Cebu would insist on prohibiting the use of Filipino as a medium of instruction, it should be willing to allocate a huge amount of money estimated at P2 million for the writing of English-based textbooks, teachers' manual and for the printing and distribution of textbooks for social studies, home economics, industrial arts and physical education," said Dioko.

Reported by: Sol Jose Vanz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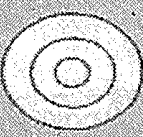
© Copyright, 1999 by PHILIPPINE HEADLINE NEWS ONLI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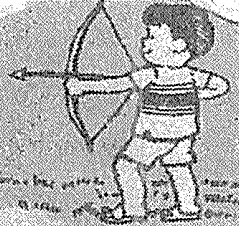
All rights reserved

필리핀에서 사용되는 교과서의 내용을 보면 영어로만 강의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 참고 자료는 필리핀 초등학교(Elementary school) 3학년 학생이 배우는 수학책이다.

◎ (자료8)

필리핀 수학교과서(초등학교 3학년용)





Build Your Skills

A. Find the sum.

1) $\begin{array}{r} 473 \\ + 296 \\ \hline \end{array}$	2) $\begin{array}{r} 287 \\ + 865 \\ \hline \end{array}$	3) $\begin{array}{r} 4196 \\ + 184 \\ \hline \end{array}$
4) $\begin{array}{r} 8165 \\ + 2738 \\ \hline \end{array}$	5) $\begin{array}{r} 1383 \\ + 2202 \\ \hline \end{array}$	6) $\begin{array}{r} 3163 \\ + 123 \\ \hline \end{array}$
7) $\begin{array}{r} 268 \\ + 19 \\ \hline \end{array}$	8) $\begin{array}{r} 309 \\ + 299 \\ \hline \end{array}$	9) $\begin{array}{r} 2587 \\ + 1116 \\ \hline \end{array}$

B. Find the difference.

1) $\begin{array}{r} 876 \\ - 231 \\ \hline \end{array}$	2) $\begin{array}{r} 523 \\ - 120 \\ \hline \end{array}$	3) $\begin{array}{r} 3785 \\ - 2063 \\ \hline \end{array}$	4) $\begin{array}{r} 8404 \\ - 7935 \\ \hline \end{array}$
5) $\begin{array}{r} 3478 \\ - 1389 \\ \hline \end{array}$	6) $\begin{array}{r} 6315 \\ - 1245 \\ \hline \end{array}$	7) $\begin{array}{r} 3621 \\ - 2094 \\ \hline \end{array}$	8) $\begin{array}{r} 2436 \\ - 2147 \\ \hline \end{array}$

C. Give a number sentence for each word problem.

- 1) There were 1095 people who saw the ball game. 500 of them were in the front seats and the rest were in the backseats. How many were in the backseats?
- 2) Mr. Santos gathered 1076 eggs in his poultry farm on Friday, 750 on Saturday, and 1095 on Sunday. How many eggs in all did he gather in three days?
- 3) The population in Barrio Kanluran is 6683. If there are 1415 children and 2867 youths, how many are adults?

31

사 회

앞에서 영어 교육 실태를 언급하는 과정에서 필리핀에서의 영어의 위상에 대해 일반적인 언급이 있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필리핀에서 영어는 보편 언어와 지성 언어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는 대부분의 공문서가 영어로 작성되고(공문서의 경우는 필리핀어로 된 공문서도 함께 작성되지만, 안내문과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영어로만 작성되어 있다.), 대부분의 책들이 영어로 쓰여 있는 현실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리고 필리핀 내에서 정론지에 해당하는 신문들은 모두 영어로 쓰여 있고, 교육적 가치가 있다고 여겨지는 잡지에서도 영어만을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우수한 영어 읽기 능력은 지식 사회에 접근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갖춰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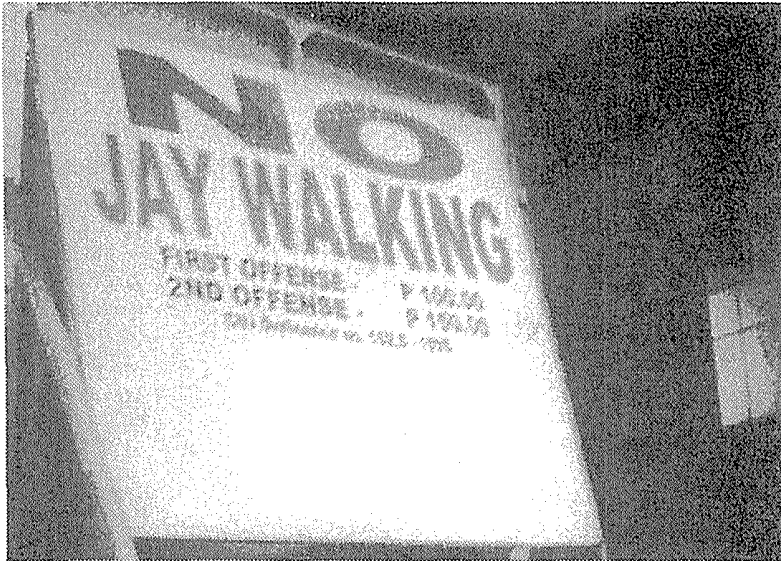
또한, 필리핀에서 젊은이들의 최대 선호 직업은 호텔이나 항공사 직원과 같은 고급 서비스 직종이었다. 이러한 직업을 갖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완벽한 영어 실력이다. 따라서, 이러한 직업에 종사하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의 경우 영어 학습에 투자하는 시간이 많다.

필리핀 현지 조사를 통해 알 수 있었던 것은 전문직이나 고급 서비스 직종에 근무하는 사람이 아닌 경우 영어 실력이 그리 높은 수준이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물론, 일반적으로 평균 이상의 영어 실력을 보이고 있으나, 고급 영어 화자라고는 볼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발음에는 스페인어와 타갈로그어 발음이 많이 섞여 있어 알아듣기 힘든 경우도 많았다. 문장이나 어휘에서도 복잡한 문장과 어려운 어휘는 거의 소통되지 않는 것으로 보였다. 특히, 교육 수준이 낮은 호텔 청소부나 육체노동자 등은 영어를 거의 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전문직이나 고급 서비스 직종에 있는 사람들의 영어는 높은 수준이었다. 발음도 스페인어와 타갈로그어풍이 거의 섞이지 않은 것으로 관찰되었다. 이런 경향은 영어 공용화 여부와 관계없이 대외적 업무를 위해 필요한 고급 영어는 별도의 집중 교육을 통해 습득되는 것임을 말해 준다. 필리핀 대학에서 영어 과목을 매학기 수강해야 하는 것은 고급 영어를 구사하기 위해서이다.

◎ (자료9)

교통 범칙금 관련 안내: 교통 범칙금에 관한 안내문이 영어로 작성되어 있다.



◎ (자료10)

백화점의 안내 표시: 백화점은 모두 영어로만 안내 표시를 하고 있다.



◎ (자료11)

영어 신문



- 영어 신문에서 인터뷰 기사를 실을 때: 인터뷰한 사람이 필리핀어로 말했을 경우에는 특별하게 필리핀어로 적고 여기에 영어 번역을 덧붙인다. 아래 내용에서 5-6번째 줄의 문장은 필리핀어 문장이다. 필리핀어에 대한 영어 번역을 덧붙이는 것은 영어를 보편 언어로 생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Lacson has challenged his political opponents to search thoroughly for his alleged unexplained wealth. They can keep whatever they find, he said.

"Maghanap sila at lahat nang makita nila sa kanila na (They should search and they can have everything they find)," Lacson said.

(출처: The Philippine STAR, 2003년 8월 22일)

4.1.4 모국어 교육과 사용 실태

1) 필리핀에서의 토착어 현황

필리핀에서 모국어는 복잡한 양상을 띤다. 영어와 함께 필리핀의 공용어인 필리핀어(Filipino)는 타갈로그어를 가리키며, 타갈로그어 외에도 여러 개의 필리핀 토착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타갈로그어가 사용 인구가 가장 많은 언어이기 때문에 공용어가 된 것이 아니라, 수도인 마닐라 지역에서 사용되는 언어라는 점에서 공용어가 되었기 때문에 사용 인구가 많은 토착어는 아직도 그 사용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²⁰⁾ 현재 타갈로그어와 함께 많이 쓰이는 토착어는 아래와 같다.

◎ (자료12)

필리핀 토착어의 사용인구와 사용지역

1. Bikol

- 사용인구 : 4-6백만
- 사용지역 : 남동부 Luzon, Catanduanes, Masbate, Burias, Ticao.

2. Cebuano

- 사용인구 : 1천2백만
- 사용지역 : Central Philippines
(islands of Cebu and Bohol, and on the smaller islands in the vicinity).

3. Hiligaynon

- 사용인구 : 4백 5십만
- 사용지역 : 서부 Negros, 동남부 Panay, Guimaras, Mindanao
(e.g., the Davao area), Palawan (in and around Puerto Princesa).

4. Ilocano

- 사용인구 : 9백만
- 사용지역 : 북서 Luzon, Mindanao, Palawan, Mindoro.

20) 타갈로그어를 필리핀의 국가 공용어로 인정하는 데까지는 우여곡절이 많았다. 특히 세부어의 경우는 가장 많은 사용자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세부 지역의 반발이 가장 거셌다. 1950년대 중반까지도 타갈로그어는 마닐라 근교 지역에서만 제1언어로 교육되었고, 기타 지역에서는 영어와 함께 제2언어로 교육되는 실정이었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국가 공용어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하게 되었다.

5. Kapampangan

- 사용인구 : 2백만
- 사용지역 : Pampanga, Tarlac, Nueva Ecija, Bulacan, Bataan provinces, Central Luzon.

6. Pangasinan

- 사용인구 : 2백만
- 사용지역 : Lingayen Gulf, Pangasinan, 남부 La Union.

7. Tagalog

- 사용인구 : 1천만(모국어로 하는 인구)
- 사용지역 : 남부 Luzon, Marinduque, Occidental Mindoro, Oriental Mindoro, Masbate, Palawan

8. Waray

- 사용인구 : 3백만
- 사용지역 : Samar, Biliran, 북부 Ley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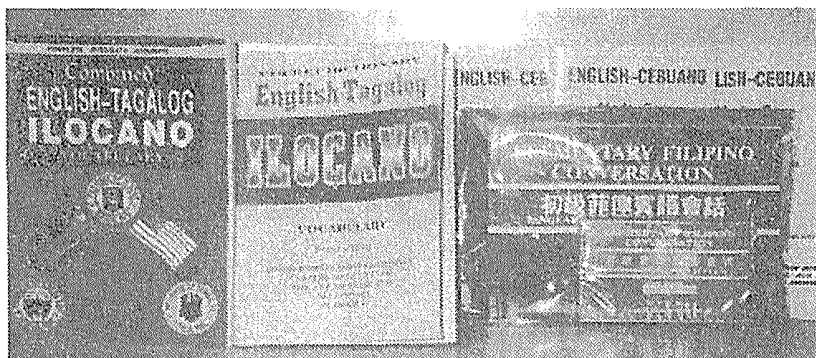
참고: *Facts About the World's Languages: An Encyclopedia of the World's Major Languages, Past and Present*. New York/Dublin: HW Wilson Press, 2001.

이중 사용인구가 많은 세부아노(Cebuano), 일로카노(Ilocano), 비콜(Bikol) 등은 공용어인 타갈로그(Tagalog)나 영어와의 대역어 사전이 많이 출간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사전은 'Cebuano-Tagalog-English Dictionary'와 같이 3개 언어를 비교하여 제시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지역에 따라 이러한 지역 토착어를 교육시키고 있으며, 이를 교육 현장에서 사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 사용 범위는 무척 제한적이다. 거의 대부분의 교육 현장에서는 영어와 타갈로그어가 교육용 언어로 사용된다.

◎ (자료13)

필리핀 대역어 사전



2) 공용어로서의 필리핀어(Filipino) 교육 현황

각 지역마다 그 지역의 토착어가 광범위하게 사용되면서 교육 현장에서 활용되기도 하지만, 영어와 함께 교육 현장에서 사용되는 주요 언어는 타갈로그어이다. 따라서, 모든 지역에서 공용어인 필리핀어(타갈로그어)를 우선적으로 가르친다. 특히, 필리핀의 역사나 문화와 관련된 교과목 등은 모두 공용어인 필리핀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필리핀어는 지역을 불문하고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필수 과목으로 배정된다.

◎ (자료14)

필리핀 각급 학교에서의 필리핀어 교육 시간 현황

- 초등학교(Elementary School)의 필리핀어 시간(매일)

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시간	40분	40분	40분	40분	60분	60분

- 고등학교(High School)의 필리핀어 시간(매일)

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시간	60분	60분	60분	60분

위와 같이 필리핀어 교육은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매일 일정 시간을 정해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제시했던 영어 교육 과정과 비교해 보면 그 비중이 적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초등학교 1-4학년까지는 영어 교육 시간이 80분인데 비해 필리핀어 교육 시간은 그 반인 40분이다. 그러나 5-6학년에는 20분 늘어나고, 이 시간은 고등학교 1-4학년까지로 이어진다. 고등학교에서는 영어 시간과 비중을 같이 하여 교육 시간을 60분으로 배정하고 있다. 특히, 고학년에 필리핀어 교육 시간이 늘어난다는 것은 나름대로 필리핀어를 활성화시키려는 교육적 배려로 판단된다. 영어가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형식적인 측면에서나마 필리핀에서의 필리핀어 교육은 체계적으로 진행된다고 평가할 수 있다.

영어에 미치지지는 못하지만,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대학교에서도 필리핀어는 중요한 교과목 중 하나이다. 특히, 교사를 하기 위해서는 필리핀어를 반드시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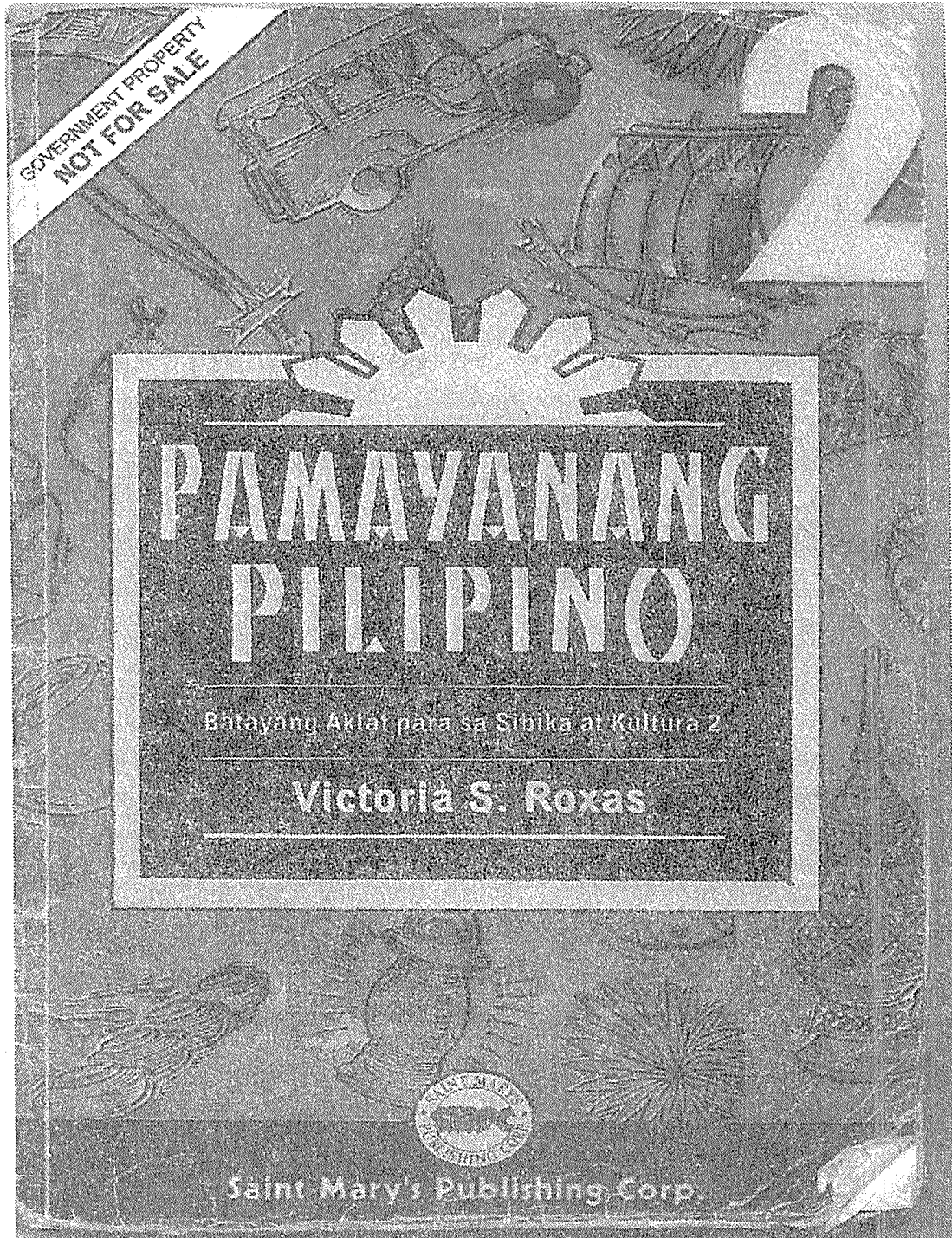
강해야 하기 때문에 교사를 희망하는 사범대학생들의 경우 필리핀어 과목을 필수적으로 수강한다. 또한, 종합대학의 경우 인문대학(Liberal art college) 내에 필리핀 학과(Filipino department)를 두고 있는 학교가 꽤 있다. 이는 필리핀 언어와 문학 등을 전공한 사람에 대한 수요가 일정하게 있음을 나타낸다.²¹⁾ 대개의 경우 필리핀어 학과 졸업생들은 필리핀어 교사나 작가로 활동한다.

이처럼 필리핀어 교육이 각급 학교에서 필수적인 것으로 취급되는 것은 필리핀의 국가주의(nationalism)가 강화되는 것과 관련된다. 그러나 취업이나 사회 활동에 필리핀어 실력이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현실 때문에, 필리핀어 교육에 큰 비중을 두며 공부하는 학생은 없다. 그리고 이러한 현실 때문에 필리핀어 교육 방법론이나 교재 등의 개발도 활발한 편은 아니다.

21) 필리핀 사람들끼리는 영어보다 필리핀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국가주의(nationalism)의 영향으로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 등에서 필리핀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경향도 있다.

© (자료15)

필리핀어로 된 교과서: 필리핀어와 필리핀의 역사나 문화를 다루고 있는 교과목은 필리핀어로 되어 있다. 아래 교과서는 필리핀의 농경 문화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교과목(Sibika at Kultura)이다.



3) 필리핀어 사용 실태

필리핀어의 사용 실태는 사적인 언어생활에서의 실태와 공적인 언어생활에서의 실태로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사적 언어생활을 보면, 필리핀 사람들은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 대부분 필리핀어로 말한다. 가정에서의 대화도 대부분 필리핀어로 이루어진다. 그러면서도 학교 등 공개적인 석상에서는 영어로 말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외국인이 포함되어 있는 자리에서는 필리핀 사람들끼리도 영어로만 말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필리핀어와 영어의 위상과 관련된 현상이다. 이런 이유로 중류층 집안에서는 영어로만 대화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그러나 필리핀에서 출판물은 거의 대부분이 영어라고 볼 수 있다. 필리핀인이 독자인 신문도 거의 모든 일간지가 영어로 발행되고 있으며, 타갈로그어 등 토착어로 발행되는 신문은 타블로이드판 황색 저널을 제외하고는 없는 실정이다. 잡지에서도 거의 영어가 사용되고 있다. 특히, 잡지의 경우는 미국 잡지가 곧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잡지의 질적 수준과 관계없이 영어로 된 잡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방송의 경우는 이중 언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주류는 영어이다. 뉴스 진행자는 필리핀어로 이야기하고, 리포터는 영어로 이야기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도 있다. 대부분의 교양 프로그램들은 영어로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토크쇼나 드라마의 경우는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듯이 영어와 필리핀어가 뒤섞여 쓰인다. 그리고 필리핀어의 어휘에는 스페인어나 영어의 차용어가 많아서 필리핀어로 말하는 경우와 영어로 말하는 경우가 잘 구분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²²⁾ 광고의 자막은 대부분 영어이지만(특히 필리핀어가 영어와 동일한 알파벳을 사용하여 표기하기 때문에 고유명사가 많이 쓰이는 광고자막이나 간판의 경우 그 둘을 구분하는 게 무의미한 경우가 많다), 광고 등장인물의 대사는 필리핀어와 영어가 뒤섞여 쓰이고 있다.

필리핀은 다민족 국가이면서 각 민족이 사용하는 언어도 각기 달라서 국민 통합을 이룩하기란 상당히 어려운 조건이다. 이에 따라 1946년 독립 이후 필리핀에서는 국가적 통합을 강조하면서 타갈로그어를 국가공용어로 정하고 이를 교육시키면서 필리핀어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출판물이 영어로 출간되는 상황에서 필리핀어의 위상이 높아지기 힘든 조건이다. 필리핀어의 현실적 위상은 서점에서 가장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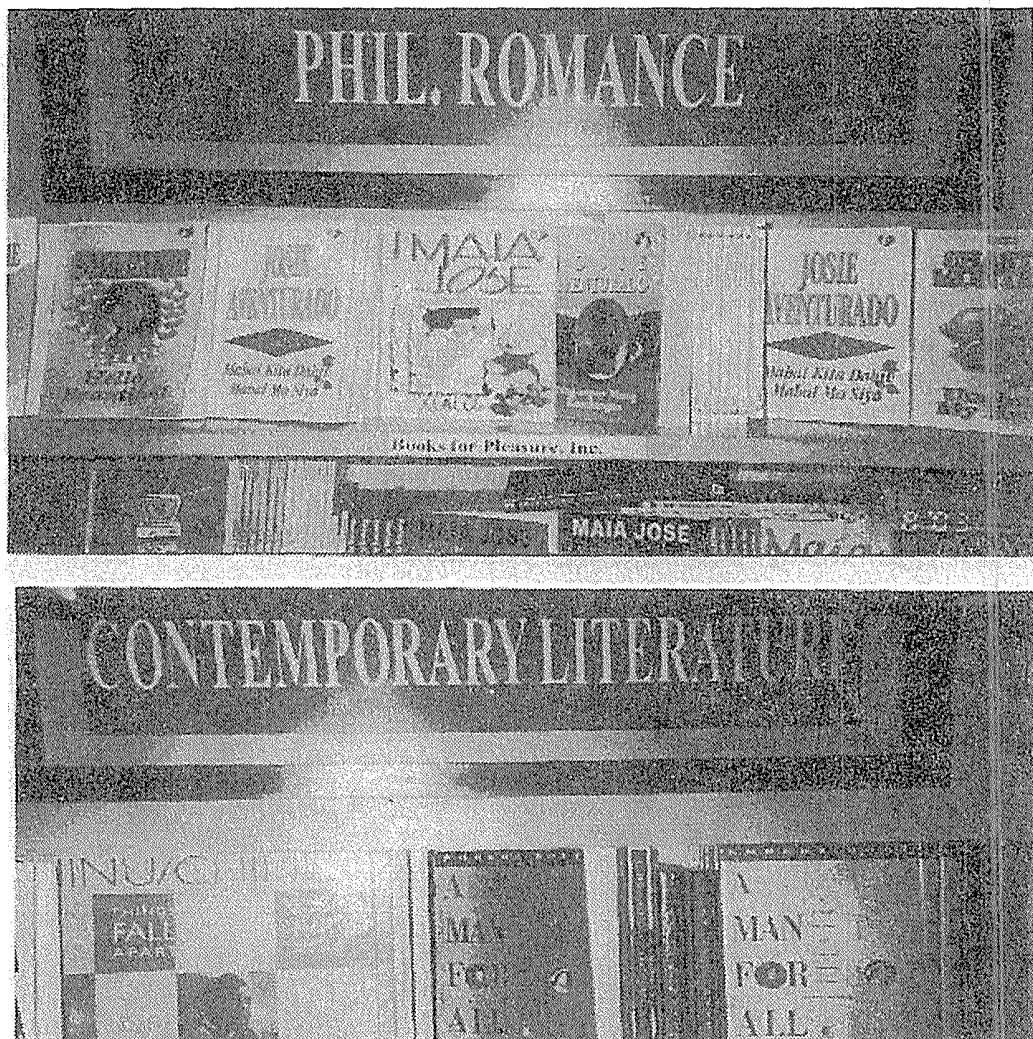
한 예로, 필리핀어 문학은 'Filipino Literature'라는 코너가 배정되어 있지만

22) 필리핀어의 차용어는 스페인어와 영어가 대부분이며, 일부 중국어로부터의 차용어도 있다. 현재는 마닐라와 같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영어 차용어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가령 영어 'attorney'에서 온 'atorni(대리인)'나 'birthday'에서 온 'bertdey(생일)', 'Mr.'에서 온 'mister', 'postoffice'에서 온 'postopis(우체국)', 'mayor'에서 온 'meyor(시장)' 등은 영어 차용어가 생활어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Contemporary Literature(현대문학)’이라는 코너에 있는 책들은 거의 대부분이 영어로 된 소설책과 시집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보편적 문학어로 영어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나 문학적 특성상 필리핀어를 사용한 작품은 상당히 많다. 마닐라에 있는 대형 서점의 하나인 ‘National Books’라는 서점의 ‘Filipino Literature’ 코너에는 상당히 많은 책이 진열되어 있어 필리핀어 문학의 수요를 가늠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들이 대부분 통속소설이라는²³⁾ 점에서 필리핀어 문학의 한계점도 함께 보여주고 있었다.

◎ (자료16)

대형 서점의 문학 코너 모습



23) ‘Filipino Literature’ 코너에는 ‘Filipino Romance’라는 말이 붙어 있을 만큼, 연애 소설이 주류를 이룬다. 이러한 현상은 영화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필리핀 역시 할리우드 영화가 장악하고 있지만, 필리핀 영화도 가끔 상영된다. 현지인의 말로 필리핀 영화는 일 년에 총 30여 편 정도 제작된다고 한다(필리핀 영화는 모두 영어와 필리핀어가 함께 뒤섞여 쓰인다.). 그런데 필리핀 영화의 거의 대부분은 성(性)과 연애를 주제로 한 작품이다.

현재 필리핀에서는 국가주의(nationalism)의 강화와 함께 필리핀의 문화적 통합을 강조하면서 필리핀어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러한 노력을 통해 필리핀어가 지성 언어로 사회적 주도권을 잡기는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모든 교양 및 전공 서적의 언어가 영어인 현실에서 필리핀어의 확산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세계화와 함께 영어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필리핀어의 역할을 축소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는 영어 공용화가 가져오는 필연적 결과이다.

◎ (자료17)

연구팀이 방문한 De La Salle University 필리핀어 학과 사무실



© (자료18)

필리핀어로 된 타블로이드판 신문

ABANTE

UNA SA BALITA

VOL. XVI BLG. 91 SABADO AGOSTO 2, 2003 P 5.00

NAG-UNDERGR
NA SI GRINGO!

Piso tuloy sa pagbulusok **PAHINA 3**

P60M shabu pa silat sa raid **PAHINA 12**

ABANTEXT
Para sa inyong kasagutan: I-type ang ABANTE <space> POLL <space> A para sa sagot na "oo" > B para sa sagot na "hindi" at i-send sa 2299.
Poll question for the day...



4.2 말레이시아

4.2.1 역사 · 문화적 배경

먼저 말레이시아의 역사와 문화적 배경을 살펴보자. 말레이시아는 지리적으로 말레이 반도와 보르네오 섬 북부로 이루어진 13개 주의 연방 왕국이다. 국토의 대부분이 열대 기후에 속하지만, 고원 리조트나 비치 등 휴양지가 많고, 말라카와 같이 오랜 역사를 지닌 도시도 있다. 특히 동남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이슬람교를 국교로 정하고 있어 곳곳에서 양파 모양의 돔이 있는 이슬람 사원을 볼 수 있다.

인구 구성을 보면, 말레이계 외에도 중국계가 38%, 인도 및 기타 지역 출신이 10%로 이루어져있다. 종교와 민족이 다른 복합 민족 국가이면서도 조화를 이루며 살고 있는 점 또한 특이하다. 말레이반도 부분과 싱가포르를 합쳐서 보통 말라야라고 부르는데, 역사적으로 보아 말라야와 사라와크·사바는 관계가 거의 없었다.

말레이반도에 최초로 생긴 왕국은 4~5세기경에 흥한 북부의 란카수카 왕국(말레이인의 불교국)이며, 9세기가 되면서 수마트라의 스리비자야 왕국(불교국)이 반도 전역을 지배하였다. 또 13세기에는 수마트라에서 건너온 말레이인의 일족이 싱가포르에 투마세크 왕국을 건설하였으며, 14세기에는 사바의 마자파히트 힌두교 왕국이 말라야 전체를 지배하였다. 이 무렵 아랍 상인에 의해 이슬람교가 전해지고, 1405년 투마세크 왕국의 후예가 세운 말라카 왕국은 말라야의 여러 토후국 외에 말라카 해협을 넘어 수마트라의 동부까지도 지배하였다.

그러나 1511년 포르투갈인의 침공으로 멸망하고, 이후 1641년 네덜란드의 말라카 점령을 거쳐, 1786년 영국이 페낭을 점령하고, 드디어 영국의 주도권이 확립되었다. 영국은 20세기 초까지 말라야의 여러 토후국과 전략상의 요충을 모두 지배하였으며, 싱가포르·말라카·페낭을 직할 식민지로 하고, 나머지 지역을 말레이 연방주와 비연방주로 분리하여 식민지 경영을 진척시켰다. 중국인·인도인 노동자를 끌어들여 행한 고무·주석 산업의 개발은 대표적인 예이다. 태평양전쟁 때에는 일본에 점령되어(1942~45), 중국인을 중심으로 많은 주민이 살해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다시 영국의 지배를 받았으나, 1957년 싱가포르를 제외한 11주가 통합되어 ‘말라야 연방’으로서 독립하였다. 1963년에는 싱가포르·사바·사라와크를 합쳐서 ‘말레이시아’가 성립되었으나, 2년 후 싱가포르가 탈퇴·독립하여 현재에 이른다. 사바·사라와크는 15세기경부터 브루나이 왕국의 일부였는데, 사바는 18세기 초 필리핀의 술탄에게 할양된 후, 18세기 후반에 영국의 북부 보르네오 특허회사의 소유지가 되었다. 사라와크는 19세기 중엽부터 60년에 걸쳐 영국인 J.브룩이 브루네이의 술탄에게서 할양받은 지역(브루크 왕국)이었다. 사바와 사라와크는 모두 1942년부터 3년

간 일본에 점령당하였으며, 종전 후 1946년부터 영국의 직할식민지가 되고 1963년에는 말레이시아연방에 가맹하였다.

말레이시아는 입헌군주국이다. 국왕은 9명의 술탄 중에서 5년마다 호선되고 임기는 5년이다. 의회는 상·하 양원제인데, 상원은 69석으로 30석은 13개 주의회에서 각주마다 2명씩 선출되고, 2개 연방 직할령에서 각 2명씩이 임명된다. 나머지 39석은 국왕이 직능대표, 각계 공로자, 소수민족 대표 등을 임명한다. 하원은 192석으로 비밀, 평등, 보통,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되며 의회 임기 만료(5년) 후, 또는 의회 해산 후 60일 이내에 총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1957년의 독립 이래 말레이인 정당인 통일 말레이 국민조직(UMNO)을 중핵으로 하는 연립여당 ‘국민전선’이 정권을 잡고 있다.

말레이반도에서 역사적으로 만들어진 복잡한 인종 구성과 이에 따르는 인종 간 경제활동의 차이는 오늘날 말레이시아 국내의 정치·경제·사회 등 모든 면에서 중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인구가 비슷한 말레이인과 이주민이 거주지구나 직업, 즉 소득을 달리하고 또 각기 자기들의 전통적 문화·종교·언어·사회관습 등을 고집하며 서로 융화되지 않고 병존하는 ‘복합사회’는 19세기 이후 영국의 식민지 행정 하에서 형성되었다. 또 제2차 세계대전 중 이 땅을 점령한 일본은 말레이인을 중용하고 화교를 차별하였다. 이러한 민족분단 통치정책의 결과 각 민족간의 대립감정이 격화되어, 전후에 시작된 정당정치에 어두운 그림자를 던졌다.

거의 모든 정당이 민족적 기반 위에 설립되고, 제각기 자기 민족의 이익 옹호를 기치로 내세우고 있다. 여당은 이러한 여러 정당의 타협적인 연합체이나, 말레이인 정당인 UMNO가 절대적인 주도권을 쥐고 있으며, 역대 총리도 이 당에서 나왔다. 정부는 독립 이래 말레이인에게 여러 가지 특권(토지 소유·영업·고용·교육 등)을 줌으로써 경제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고, 가까운 장래에 평등한 입장에서 민족 융화를 실현한다는 관점에서 정책을 펴왔으나 실제적으로 효과가 없는 경우가 많았으며, 반면에 외국 자본과 결탁한 화교자본은 두드러지게 발전하였다. 이러한 사태는 말레이인의 불만을 제고하여 1969년 5월 13일 대대적인 반(反)화교폭동이 발생하였다. 즉시 비상사태가 선포되고 의회는 정지되었으며, 말레이인의 특권, 국왕의 지위, 유일한 국어인 말레이어, 국교로 삼은 이슬람교 등에 대한 일체의 논의가 금지되었다.

이 사건 후 실권을 장악한 부총리 라자크는 자본과 고용면에서 말레이인의 상공업에 대한 적극 참여를 촉진하는 ‘신경제정책’을 발표하고, 말레이인 우대정책의 강화를 분명히 하였다. 라자크는 1970년 9월 독립 이래의 총리 압둘 라만 푸트라에 이어 총리에 취임하였으나, 그의 말레이인 우대정책은 화교·인도인뿐만 아니라 말레이시아에 진출한 외국기업의 반발을 샀다. 라자크 총리는 1976년 1월에 병사하고, 그 후 후세인 총리에 이어 1981년 6월 마하티르 모하메드가 총리가 되었다. 마하티르 총리는 술탄과 국왕이 가지는 헌법상 기타 특권을 축소하기 위한 운동을 벌여 1993년 3월 헌법수정안을 의회에서 성립, 같은 해 3월 29일 발효했다.

4.2.2 언어 정책의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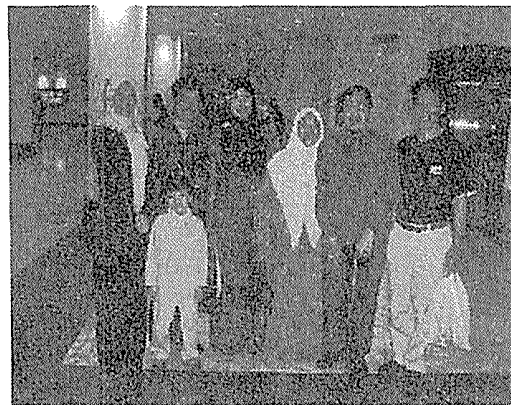
말레이시아는 공식적인 영어공용화 국가가 아니다. 그러나 1956년에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이래 식민지 모국인 영국과는 비교적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오면서 1970년까지 모든 수업을 영어로 진행하는 실질적인 영어공용화 국가였다. 그러나 1970년 이후 정부 정책의 전환으로 영어 이외의 수업은 바하사 말레이어로 진행하게 된다. 이는 적은 인수로 상권을 장악한 중국계를 견제하고 인구의 약 60%를 차지하는 말레이계 인구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한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관측된다.

그 결과 장년층은 영어를 비교적 자유롭게 구사하는데, 비해 1970년대 이후에 태어난 젊은 층들은 점점 더 영어구사력이 떨어지게 되었다. 실제로 연구팀이 만난 젊은 사람들은 영어를 매우 떠들거리고 문법적 실수를 많이 저지르는 등 영어실력이 뒤떨어졌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2003년부터 점차적으로 모든 수업을 영어로 진행하도록 하며, 국가가 관리하는 수준별 영어시험을 통해 학생들의 영어능력을 강화하는 정책으로 채택했다. 가령 초등 3학년이 갖추어야 할 영어수준을 테스트하기 위한 영어시험이 있고, 중학교 3학년이 갖추어야 할 영어실력을 테스트하기 위한 표준화된 영어시험이 있으며, 대학생들 역시 마땅한 수준의 영어시험을 치르도록 정부가 세세히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하여 많은 젊은이들은 영어가 취직이나 유학, 승진 등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상황에서 영어구사력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말레이시아에서 만난 한 고등학교 선생님에 따르면(사진참조), 정부에서는 매년 2만 명씩 유능한 젊은이들을 선발하여 1년 동안 해외영어연수를 시킨다고 한다. 인구1천만의 저개발국가에서 이정도 규모의 영어연수생들을 파견한다는 것은 국가 정책적 판단이 서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일 것이다. 이들은 추후 영국을 포함한 서유럽이나 북미의 기업으로 취직도 하고, 귀국하여 영어교사가 되기도 한다.

국가는 영어 말하기, 쓰기, 읽기, 등 전 분야에 걸쳐 매우 조직적으로 학교교육이



말레이시아의 고등학교 영어교사 가족

이루어지도록 감독하며, 각 학교들은 이러한 기준에 따라 영어교육을 점점 더 강화하고 있다고 한다. 여름방학은 없고, 학년이 끝나는 겨울에 약 1개월간의 방학이 있다고 한다.

말레이시아의 언어정책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선 이 나라의 언어 상황을 살펴보아야 한다.²⁴⁾ 말레이시아는 서양세력이 들어오기 전 여러 종족이 각자 고유의 영역에서 고유의 언어를 사용하는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었으며 종족 상호간의 의사소통을 위해 말레이(Melayu)어를 공통어로 사용하고 있었다.

17세기경 영국의 식민지배가 본격화되면서 영어가 말레이시아에 유입되기 시작했고 점차 영국 식민정부의 통치어로서 그 사용이 확산되어 갔다. 영국 식민정부는 말레이시아의 주석산업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중국으로부터 대규모의 노동자들을 이주시켰고 고무산업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인도 타밀 지역으로부터 대규모의 노동자들을 이주시켰다. 이로 인해 1940년대에 이르러서는 비말레이계인들의 수효가 말레이계인들의 수효를 앞지르게 되었으며 근래에는 말레이인 45%, 중국인 35%, 인도인 10%, 기타 10% 등의 종족 구성비를 보이고 있다.

중국인, 인도인 등은 말레이시아로 이주해 온 이후에도 자신들의 모어인 중국어(만다린어), 인도어(타밀어)의 사용을 고집했는데, 이러한 현상은 말레이시아를 다종족, 다언어 국가로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이와 더불어 영국 식민정부가 주민통치를 위해 시행한 영어보급정책이 비교적 성공적으로 수행됨에 따라 말레이시아는 더한층 복잡한 언어구성을 나타나게 되었다.

말레이시아의 언어정책은 독립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독립 이전의 언어정책을 살펴보자. 말레이시아를 통치하던 영국 식민정부는 교육문제에 관한한 자유방임적 태도를 견지했다. 특히, 영국 식민정부는 말레이왕들과의 조약 내용에 따라 말레이의 관습 및 종교문제에 대해서는 결코 간섭하려 하지 않았으며 말레이의 관습과 종교를 가르칠 수 있는 학교의 설립을 권장하기까지 했다. 그 결과 토착민인 말레이인을 비롯해서, 이민그룹인 중국인과 인도인들도 자유로이 자신들의 학교를 설립, 자신들의 언어로 교육을 실시했으며 기독교 선교사들은 영국의 학교제도를 모방한 영어 학교를 설립, 모든 사람들에게 문호를 개방했다. 그러나 초등교육이 각 종족의 고유 언어로 이루어진 반면, 중등교육은 주로 영어와 중국어로, 고등교육은 영어만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때문에 고등학문에 뜻을 두거나 고소득의 직업을 원하는 말레이인, 인도인, 중국인 등은 필연적으로 영어교육기관을 찾아야 했으며 자연히 영어와의 접촉기회를 갖게 되었다.

기독교 선교사들에 의해 다수의 영어학교가 설립되어 말레이시아 내의 모든 종족들에

24) 말레이시아의 언어정책에 대한 내용은 다음 논문을 요약한 것이다. 안영호, 말레이시아의 제 2언어 교육에 관한 고찰: 영어교육을 중심으로, 외국어교육연구논집 7권, 2001.

게 문호를 개방하고 있었으나, 말레이 관습과 종교에는 간섭하지 않는다는 불문율에 따라 선교사들의 활동은 비회교도 지역, 즉 도시지역에 한정되어 있었으며 따라서 영어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들 역시 도시 거주자인 중국인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영국의 식민통치 기간동안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공용어가 존재하지 않았다. 연방의회 또는 각 주의회에서의 의사진행을 위한 언어로는 말레이어, 중국어 등이 모두 허용되었으나 정치적, 경제적으로 영향력 있는 안건을 토론하는 데 있어서 주로 사용되던 언어는 영어였다.

다음으로 독립 이후의 언어정책을 살펴보자. 1950년대 말레이시아의 독립을 준비하던 지도자들은 종교적, 문화적, 언어적으로 확연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는 세 종류의 종족들을 하나의 국민으로 통일시켜야 하는 중요하고도 어려운 과제를 안게 되었다. 민족통합이라 는 대의명분 하에 '1국가 1언어'라는 언어정책의 대전제는 마련되었으나 각 종족들이 자신들의 모국어에 강한 집착을 보였을 뿐 아니라 영어 역시 종족을 초월, 도시지역 중·상류층을 중심으로 확고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 하에서 독립 후 말레이시아의 공용어를 어느 언어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하고도 미묘한 문제였으며 상당한 정치성을 내포한 문제이기도 했다.

말레이시아의 대다수 인구를 차지하는 중국계와 인도계 국민들은 영어 공용어화를 주장했으나 식민 통치자들의 언어를 독립 후에도 공용어로 쓴다는 것은 민족적 자존심과도 관련된 문제였기 때문에 선택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결국 영국 식민세력과 이주민들이 들어오기 이전부터 이 지역 주민들의 통용어였던 Melayu어가 공용어로 선택되었으며 1957년 말레이시아의 독립과 더불어 헌법에 명문화되기에 이르렀다.

말레이시아의 헌법은 공용어의 갑작스런 변경으로 인한 혼란을 막고 국민들에게 준비기간을 주기 위해 독립 후 10년간 공용어 또는 교육매개 언어로서 영어의 사용을 허용하는 예외규정을 두었다. 그리하여 영어는 계속 교육 언어로서 사용되었으며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필수 교과목으로 가르쳐졌다. Melayu어가 국어(national language)이기는 했으나, 영어는 상업분야 및 정부의 행정업무상 중요했기 때문에 영어교육의 수요는 감소하지 않았다. 영어교육을 받은 사람에게는 좋은 직업과 고등교육의 기회가 보다 많이 주어졌다. 그리하여 영어는 도시지역의 중산층, 특히 비말레이계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친숙한 언어로 존재했다.

영어가 계속 과거의 지위를 누리고 국어인 Melayu어가 영어를 대체할 기미를 보이지 않자 말레이 민족주의자들은 1967년에 국어법(National Language Act)을 제정했다. 이 법은 헌법 제 152조의 기본이념을 재확인하되 Melayu어를 유일한 공용어로 규정하는 문구를 추가시켰다. 이는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코자 하는 비말레이계인의 불만과 반발을 유발시켜 1969년 총선거 이후 인종폭동으로까지 발전하기도 했으나, 이를 전환점으로 1970년 Melayu어가 말레이시아어(Bahasa Malaysia)로 공식 개칭되었다.

1957년부터 1969년 사이 지배적이었던 온건민족주의가 강건민족주의로 대체 되고 말레이어가 민족통합과 문화창달의 도구로서 채택되면서 교육매개 언어로서 영어의 사용을 억제하려는 계획이 즉각 실행에 옮겨졌다. 1971년부터 모든 영어학교가 말레이어 학교로 전환되기 시작하여 오늘날에는 사립학교를 제외하고는 더 이상 영어를 교육 매개 언어로 하는 학교가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4.2.3 영어 교육과 사용 실태²⁵⁾

쿠알라 룸푸르 시내에 관한한 건물의 간판이나 신문에 중국어가 많이 등장하지만, 실제로는 영어를 많이 사용하고, 식당이나 상점 내부에는 거의 모두 영어로 되어 있다. 재래식 시장에 있는 인도인이 경영하는 식당에서도 영어가 소통어였다. 연구팀이 묵은 중류급 호텔 Allston Genesis Hotel의 모든 종업원들도 완벽한 영어를 구사한다. 일부 종업원은 중국계이고, 일부는 인도계 말레이시아인들이지만, 영어 구사에 있어서는 아무런 차이도 없다. 환전을 하기 위해 은행에 갔더니, 은행 직원들은 경비는 물론 행원에 이르기까지 모두 영어를 구사한다. 그들은 외국인에게뿐 아니라 자국민들에게도 영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인도네시아에서 의학을 공부하고 있는 알리아 역시 완벽한 영어를 구사하는 대학생이었는데, 그는 영어를 학교와 집에서만 배웠고, 영어연수를 가본 경험이 없다. 그의 6살 된 동생 유세프 역시 영어와 중국어, 타밀어를 구사한다고 한다.

쿠알라 룸푸르로 한정해서 이야기한다면, 말레이시아는 공식적으로 바하사 말레이어를 국어로 하고 영어를 외국어로 하는 국가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영어를 공용어로 하고 말레이어를 제 2언어로 하는 국가처럼 보일 정도이다. 다만, 쿠알라 룸푸르의 이러한 상황이 말레이시아의 전반적 상황인지는 알 수 없다.

말레이시아에서의 영어의 위상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영어교육 현황을 살펴본다. 영어는 영국의 식민통치 기간동안 공용어 및 각급학교 교육매개 언어로서 사용되다가 말레이시아의 독립과 더불어 점차 그 위치를 말레이시아어에 넘겨주게 되었다. 말레이시아는 독립 후 10년제인 1967년까지 영어를 말레이시아어와 함께 공용어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나 1967년 이후부터는 말레이시아어를 유일한 공용어로 규정함으로써 영어를 공용어의 위치로부터 제 2언어의 위치로 격하시켰다. 그러나 일반 대중이 인식하는 영어의 위치가 공식적인 규정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었다. “영어는 공식적으로는 제 2언어의 위치에 있으나 사회적으로는 공용어 또는 반공용어로서의 기

25) 말레이시아의 영어교육과 사용실태에 대한 내용은 다음 논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안영호, 말레이시아의 제 2언어 교육에 관한 고찰: 영어교육을 중심으로, 외국어교육연구논집 7권, 2001.

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주장(Wilkins, 1972:50에서 재인용)에서 나타나듯 1967년 제 2언어로 규정된 이후에도 영어는 일반대중 사이에서 공용어로 쓰이고 있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에는 제 2언어로서의 영어의 위치에 마저 의문이 제 기되고 있다. Platt와 Weber는 “말레이시아의 영어는 제 2언어와 외국어의 중간단계에 있다. 비록 제 2언어로 가르쳐지고 있으나 곧 외국어가 될 것이다”고 주장한 바 있으며, Moag은 1982년 “The Processes of the Life-cycle of New English”라는 원표를 제시한 후 “현재 말레이시아의 영어는 통치, 교육, 종교 등 중요한 분야에서 점차 그 사용을 제약(restriction)받게 됨에 따라 제 2언어로서의 영어의 위치부터 외국어로서의 영어의 위치로 환원되는 단계에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말레이시아의 독립과 더불어 법적으로는 말레이시아어가 영어에 비해 탁월한 지위를 부여받았으나 일반 대중이 인식하는 실질적 역할에 있어서는 그렇지 못했다. 아직 말레이시아어가 완전히 영어를 대체하여 공용어로 쓰이지 못했으며 비말레이계 사람들은 공용어로서 영어의 사용을 고집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그러나 1980년대 들어 말레이시아어의 완전, 유일 공용어 체제가 정착되고 영어가 공식적으로 제 2언어의 위치에 처하게 되자 영어는 제 2언어 또는 외국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정부가 말레이시아어 교육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영어가 중요한 제 2언어로서 교육되도록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숙고해야 할 것이다. 말레이시아가 과학기술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려 한다면, 국제교류에 있어서 의미 있게 참여하려 한다면 이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고 주장한 제 3차 말레이시아 플랜에 영어의 역할이 집약적으로 잘 나타나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두 가지 관점, 즉 영어를 과학기술 언어로서 그리고 국제교류에의 의미 있는 참여를 위한 언어로서 본 것이다. 이러한 영어의 역할에 대해서는 1979년 내각조사위원회의 “교육정책의 성과에 관한 보고서”에서 재차 강조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영어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영어는 국제어로서 각 분야의 지식, 특히 과학기술분야의 지식을 습득하는 데 있어 중요한 언어이다. 우리나라가 현대 과학기술 문명에 기초한 선진사회를 이룩하려면 학교에서 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영어교육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기술하고 있다.

말레이시아의 교육제도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 6년 과정의 초등교육(Primary Education, Pendidikan Rendah)
- 3~4년 과정의 중등교육(Lower Secondary Education, Pendidikan Menengah Rendah)
- 2년 과정의 고등교육(Upper Secondary Education, Pendidikan Menengah Atas)
- 대학교육(College 또는 University)

초등교육 기관은 국립학교, 국립 초등학교, 국립형 초등학교의 세 가지 형태로 구분되며 교육기간은 6년, 교육의 목적은 전인교육에 두고 있다. 국립학교의 교육매개 언

어는 전적으로 말레이시아어지만 국립형 초등학교(중국)에서는 중국어를, 국립형 초등학교(타밀)에서는 타밀어를 각각 사용하고 있다. 국립초등학교는 원래 국립형 초등학교(영어)였으나 언어 정책 시행 결과 1975년 영어를 사용하는 모든 초등학교가 말레이시아어 학교로 전환된 후 국립초등학교로 개칭되었다.

1964년 중등학교 입학시험 제도가 폐지된 후 초등학교 졸업자는 자동적으로 중등학교에 진학토록 되어 있으며 학력평가를 위한 시험으로 6학년 진급 때 실시되는 평가고사, 3학년 때 실시되는 Standard III형 고사가 있다. Standard V 평가고사는 말레이시아어, 영어, 수학, 역사, 기초과학, 지리학 등이 필수과목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국립형 초등학교(중국)의 경우 중국어가, 국립형 초등학교(타밀)의 경우 타밀어가 각각 포함되어 선택형 문제로 치루어 진다. 1975년 이후 영어를 교육매개 언어로 하는 초등교육 기관은 모두 없어지고 영어는 각 초등학교의 필수 교과목으로서 가르쳐지게 되었다. 말레이시아어를 교육매개 언어로 하는 국립학교와 국립초등학교의 학생들을 1학년 과정인 Standard I 단계에서부터 주당 300분 썩의 영어교육 학생들은 3학년 과정인 Standard III 단계에서부터 영어교육을 시작한다.

초등학교 영어교육은 여러 상황에 대해 간단한 영어를 정확히 구사할 수 있는 수준까지 듣기 및 말하기 능력을 갖추고, 일정 수준의 어휘와 구문으로 구성된 영문을 읽고 이해할 능력을 갖추며 간단한 서신에 대해 효과적이고 정확한 답신을 쓸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이를 위해 64개의 항목으로 구분된 교재를 통해 단계적으로 듣기(listening), 말하기(speaking), 읽기(reading), 쓰기(writing)능력을 향상시키도록 교육되고 있다. 초등학교 영어교육의 주 과제가 되고 있는 듣기 및 말하기는 외국인이 듣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영어 발음, 리듬 및 강세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영어의 음성체계, 단어강세, 문장 강세 및 문장의 리듬 등을 중점적으로 가르친다. 읽기는 철자와 발음 및 그 의미관계를 인지하고 문장구성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내용을 이해토록 하기 위해 읽고 행동하기, 읽고 그리기 등을 통해 가르친다. 쓰기는 한 항목(item)을 가르치는 마지막 단계로서 듣고 이해하기, 말하기, 읽고 이해하기 교육이 완성된 이후 단계에서 교육된다.

중등교육 기간은 3~4년으로서 국립학교 또는 국립 초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은 곧바로 1학년 과정인 Form I 과정으로 진학하는 반면 국립형 초등학교 (중국, 타밀)를 졸업한 학생은 Form I 단계에 진학하기 전에 예비과정에 해당하는 Remove Class(Kelas Peralihan)를 1년간 수료해야 한다. 초등교육 졸업자들은 시험전형 없이 중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데 이는 최소한 9년간 의무교육을 제공하려는 정부 시책의 일환으로 1964년 중등학교 입시제도가 폐지되었기 때문이다. 중등교육은 모든 국민에게 15세까지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노동시장에 고급인력을

제공하고 학생들에게 미래의 직업선택을 위한 자질개발에 보다 충분한 기회를 부여하며 학생들의 향후 진로선택에 따른 전문화교육을 준비시키는 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

중등학교 학생들은 필수교과목 이외에 취업을 대비하여 산업미술, 가정 학, 농학, 상업 중에서 선택한 과목을 수학할 수 있다. 3학년 과정인 Form III 단계를 마치면 고등학교 입학 또는 취업자격을 평가하는 중등학력평가고사(Lower Certificate of Education Exam)를 치르게 되는데 A, B, C급으로 평가되어 진학 또는 취업할 때 사정 기준이 된다.

중등학교 영어교육의 목표는 여러 상황에 대해 다양한 문형 및 광범위한 어휘를 구사하여 표현할 수 있고 영문을 읽은 후 개요, 인과관계, 문장의 흐름 등을 파악하고 이어질 문장의 내용을 예측할 수 있으며 주제의 발전 뿐 아니라 목적의식이 있는 글을 정확한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는 수준의 작문실력을 갖추도록 하는 데 있다. 중등학교의 영어교재는 문법적 성분에 따라 단원을 나누고 각 단원 별 주제를 익힐 수 있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문장속에서 문법을 자연스럽게 익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영어교재는 총 54개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학년 과정인 Form I 단계에서 22 단원까지, 2학년 과정인 Form II 단계에서 40 단원까지, 3학년 과정인 Form III 단계에서 54 단원까지 교육토록 되어 있다.

고등학교의 수학기간은 2년으로 교육 목적은 전인교육이 아닌 전문교육에 두고 있으며 중등학교에서 중등 학력평가고사에 합격한 학생들에게 입학자 격이 부여되고 있다. 고등학교는 보통고등학교, 기술고등학교, 실업고등학교 등 세 가지 형태가 있으며 보통고등학교는 다시 자연계와 인문계로 나뉘어 진다.

일반 고등학교는 주로 학생들에게 Form VI 과정 또는 전문대학 과정에 진학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Form VI 또는 전문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학생들은 곧바로 산업현장에 진출하기도 한다. 기술 고등학교는 학생들에게 기술분야의 직업을 갖도록 하거나 상급 기술교육기관에 진학토록 준비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기술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 기술고등학교 진학 여부는 학생 스스로의 선택에 의한 것이지만 중 등 학력평가고사 성적이 선발의 기준이 된다. 실업고등학교는 학생들의 취업에 도움을 줄만한 기능을 가르치는 데 그 설립 목적이 있기 때문에 실업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기타 고등학교와 마찬가지로 중등 학력평가고사 합격자에게 입학자격이 주어진다.

일반 고등학교와 기술고등학교 학생들은 말레이시아 학력평가고사를 실업고등학교 학생들은 말레이시아 실업학력평가고사를 치르면서 학업을 마치게 된다. 말레이시아 학력평가고사 응시자는 말레이시아어 과목, 영어 과목 및 지리, 역사, 말레이시아학 중 한 과목 등 세 과목을 필수 과목으로 한 6-9개 과목을 평가받아야 하는데 그 성적

은 취업 또는 상급학교 진학 시 선발기준 이 된다. 말레이시아 실업학력평가고사 응시자들은 말레이시아어 과목, 영 어 과목 및 수학, 과학, 사회, 이슬람학 중에서 선택한 2~3개 과목 그리고 건축, 전기, 상업 등 실업 1개 과목을 평가받아야 하며 그 성적은 직업인으로서의 자질을 평가하는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상급학교 진학시 선발 기준 이 되기도 한다.

고등학교 영어교육은 학생들로 하여금 효율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영어를 구사하는 데 있어 국제적 가시성을 유지하며 자신의 학문 분야와 관련된 주제에 관한 어느 유형의 글도 독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다양한 목적의 글을 효율적이고 상세하게 표현할 수 있는 작문실력을 갖추도록 하는 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 즉, 고등학교 영어교육은 영어의 전반적인 사용능력을 배양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에서 습득한 영어 사용능력을 전반적인 분야로 확대, 완성하는 단 계로서 전체 교육과정을 통틀어 일반 영어교육은 사실상 고등교육 과정에서 완결된다고 볼 수 있다.

영어가 공용어의 위치로부터 제 2언어의 위치로 전환된 후 각급 학교에서의 영어교육의 목표도 달라지게 되었다. 1980년대 이후 각급 학교에서 사용되는 영어교재는 영어를 사용하는 외국인들에 의해 이해될 수 있는 수준의 영어를 구사하도록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 1차적 목표를 두고 있으나, 영어교육의 목표가 수정된 것과 더불어 학생들의 영어 수준이 두드러지게 저하하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1970년대 이전 영어를 교육매개 언어로 사용하던 학교와 영국 선교사들에 의해 운영되던 학교가 다수 존재할 당시와는 달리 현재 영어를 모국어처럼 구사하는 사람들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게 되었으며 더욱이 각급 학교에서 영어교육의 목표로 설정해 놓고 있는 국제적 가시성을 유지하는 수준의 영어 구사 능력을 갖춘 사람도 그리 많지 않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에 직면하여 말레이시아 학생들의 영어 구사능력 저하가 독립 이후 꾸준히 시행되어 온 국어정책의 필연적인 결과라는 데는 학자들 간에 이견이 없으나 학생들의 영어능력 평가방법에는 수정이 가해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말레이시아 교육성에서 교과과정 개발 담당자에 의하면, “영어의 역할이 변화하면 영어의 사영방식도 변화하는 것이 마땅하다. 현재의 사용 방식을 측정하는 데 1950년대의 척도를 이용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말함으로써 영어능력 평가방식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아직도 공식적으로는 과거의 기준과 현재의 기준을 비교 측정할 척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공용어 또는 교육매개 언어로서의 영어능력을 평가하는 척도 대신 제 2언어로서 또는 외국어로서의 영어 능력을 평가하는 척도를 마련하는 것이 말레이시아 교육성이 안고 있는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4.2.4 모국어 교육과 인식 실태

말레이시아에는 소위 리무브 클래스(remove class)라고 하는 독특한 제도가 있다. 이 클래스는 중국어 또는 타밀어를 교육매개 언어로 하는 국립형 초등학교(중국, 타밀)졸업생들에게 중등학교에서 수학할 수 있는 충분한 말레이시아어 실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 특별히 개설된 과정이다. Remove Class에는 말레이시아어 실력 향상을 위한 교육 외에 초등학교에서 익숙해져 있는 종족의식을 초월하여 단일 국민으로서의 의식을 갖도록 하는 한편 국가관, 애국심 등을 고취시키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아울러 Standard III 단계에서부터 영어교육을 시작함으로써 국립학교 또는 국립초등학교 졸업생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세에 놓여 있는 영어실력도 Remove Class 과정 동안 보충된다. 주요 교과목은 말레이시아어, 말레이 관습, 영어, 체육, 예술 및 과외 활동 등이며 중국어와 타밀어도 현상유지 차원에서 교육되고 있다.

Remove Class에서의 영어교육은 국립형 초등학교(중국, 타밀) 졸업생들에게 중등학교 영어교육 프로그램에서 필요로 하는 기초지식을 갖추도록 하는 데 그 근본 목적이 있으므로 우선 초등학교 5~6학년 과정인 Standard V 및 VI 단계의 영어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초등학교 영어교육 프로그램을 완성토록 구성되어 있다. Remove Class를 마친 학생들은 주어진 주제 내에서 영어를 듣고 이해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 영어로 말할 수 있으며 산문과 운문 등 다양한 문체의 글을 읽고 이해하는 한편, 주어진 주제에 대해 작문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도록 기대되고 있다.

교육방식은 초등학교와 마찬가지로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학습을 위해 단원별로 주요 기본 문형을 제시, 연습토록 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17세기 영국의 식민지 지배를 받기 시작하면서 말레이 원주민과 이주민인 중국인, 인도인, 서양인 등이 혼재하는 다종족 사회를 형성했으며 종족구성과 비례하는 다언어 사회를 이루기 시작했다. 영국은 말레이시아에 대한 통치수단의 하나로 종족 및 언어분리 정책과 동시에 분열된 언어를 이용한 영어보급 정책을 시행,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으며 이러한 정책을 바탕으로 무력을 쓰지 않고도 영어를 공용어화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1957년 말레이시아의 독립과 더불어 영어는 공용어의 자리를 말레이시아 어에 물려주어야 했다. 영어가 제 2언어로 규정된 이후 점차 공용어 또는 교육매개 언어로서의 역할을 중단하는 대신 과학기술 문명을 전달하고 국제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언어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가고 있다.

말레이시아 정부의 적극적인 국어정책은 과거 영어가 수행하던 공용어, 교육매개 언어로서의 역할을 말레이시아어가 대체토록 하는 데 성공했으나 국민들의 전반적인 영어사용 능력 저하라는 부작용도 불러일으켰다. 대체로 교육의 방향을 유도하는 것은 그 교육의 평가제도이다. 영어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공용어로서의 영어를

교육하던 시대의 평가방식을 대체할 새로운 평가방법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그러한 이유에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말레이시아의 초·중등교육과정에서의 영어교육의 실체는 초등학교에서 64개 항목으로 구분된 교재를 통해 단계적인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등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고, 중등학교에서는 총 54개 단원으로 구성된 영어 교재를 통하여 여러 상황에 대처한 다양한 문형 및 광범위한 어휘를 구사하여 표현 할 수 있는 등의 작문실력을 배양시킴으로써 자연스럽게 문 장 속에서의 문법을 익히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고등 및 대학 교육에서는 효율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영어를 구사하는데 있어 국제적 가해성을 유지하며 자신의 학문분야와 관련된 주제에 대한 어떤 유형의 글도 해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다양한 목적의 글을 효율적이고 상세하게 표현할 수 있는 작문실력을 갖추도록 하는 데 그 목표를 두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영어를 국어로 사용하고 있지 않은 국가들 가운데 가장 효율적이고 실제적인 교육을 시키고 있으며, 이 점은 가히 본받을 만하다.

4.3 싱가포르

4.3.1 역사 · 문화적 배경

싱가포르가 역사에 처음 나오는 것은 중국 쪽의 문헌으로, Pu-luo-chung 즉 “반도의 끝 섬”으로 나온다. 그러나 1320년 몽골제국은 Long Yamen(용의 이 해협)으로 군대를 보내 코끼리를 구해오도록 한다. 중국출신의 항해가인 Wang Dayuan은 1330에 싱가포르의 중심지를 Pancur(샘)이라 부르며 이미 중국인들이 이곳에 살고 있다고 기록했다. 싱가포르를 Temasek(바다의 도시)라고 부른 최초의 기록이 1365년 자바의 Nagarakretagama이다. 이 이름은 같은 무렵의 베트남 기록에도 보이는데, 14세기 말에는 산스크리트 이름인 Singapura(사자의 도시)가 통용된다.

싱가포르는 삼 제국(태국)과 자바를 근거로 한 마하파힛 제국 사이에서 말레이 반도의 지배권을 결정하는 중요한 지정학적 위치를 점하고 있었다. 말레이의 기록에 따르면 싱가포르는 마하파힛 제국에 패했으나, 후에 팔렘방 출신의 정복자에게 굴복한다. 이 정복자가 제거되고 난 후, 이 정복자가 북부로 도망하여 말레카 술탄을 건설함으로써 싱가포르는 말레카 술탄의 일부가 되었다.

18세기 후반, 중국과의 무역을 확대하고 네덜란드와의 경쟁을 강화하던 영국은 중간기착지로서의 항구가 필요하던 차에, 1819년 싱가포르를 점령한다. 1818년 후반에 인도의 총독이던 해이스팅스 경은 스탬포드 레이플스(Stamford Rayples) 경에게 말레

이반도의 지배권을 넘긴다. 1819년 1월 29일, 레이플스는 싱가포르 섬에 상륙하여 압둘 라만과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무역항을 구축한다. 1824년 싱가포르는 공식적으로 영국의 소유가 되었다. 말레카, 페낭 섬과 더불어 싱가포르는 1826년 해협식민지가 됨으로써 영국령 인도의 통치를 받게 된다. 1832년 싱가포르는 세 지역의 핵심 정부가 된다. 1867년 4월 해협식민지는 런던 식민지 본부의 지배를 받는 왕립식민지가 된다.

1860년대 증기선의 도입으로 싱가포르는 더욱 더 중요한 항구로 탈바꿈하여 유럽과 동아시아를 잇는 교량 항구가 된다. 19세기 접어들면서 싱가포르는 비약적 발전을 거듭하며 1873년부터 1913년 사이에 교역량은 8배나 증가한다. 1860년대 인구는 80792명으로 증가했고, 이중 중국인은 62 퍼센트, 말레이와 인도계가 각각 14퍼센트와 16퍼센트였다. 1941년 싱가포르는 일본의 공격을 받고, 1942년 일본의 점령 하에 놓여 약 3년 반 동안 일본의 지배 하에 놓이게 된다. 1945년 12월에 영국군이 다시 돌아옴으로써 싱가포르는 영국 군사정부의 지배를 받다가 1946년 4월에는 영국령 식민지가 되고, 말레카는 말레이시아로 편입된다. 1947년 7월 싱가포르는 행정부와 입법부가 분리되고, 총독은 강력한 지배권을 행사하게 된다. 1948년 3월 20일에 싱가포르는 최초의 선거를 치름으로써 현대 싱가포르가 시작된다. 말레이시아 공산당이 1948년 6월 무력으로 싱가포르를 점령하려한 이후, 12년 동안 긴장상태에 있다가 1953년 영국의 조지 6세 경의 제안으로 싱가포르는 헌법을 개정하여 자치정부를 세우게 된다. 1955년 선거에서 David Marshall이 싱가포르의 첫 수상으로 선출되었고, 1958년에는 영국과 싱가포르 사이에 헌법조약이 체결되었다. 1959년 6월 리완유가 초대수상으로 취임하였다. 싱가포르는 1965년 8월 9일 말레이시아로부터 완전 분리되어 주권국가가 되었고 1965년에 유엔에 가입하였으며 1965년 10월에 영연방의 일원이 되었다.

4.3.2 언어정책의 방향

싱가포르의 언어정책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동남아시아의 일반적 상황과 다민족 국가의 언어정책의 본질에 대해 먼저 간단히 살펴보자.

대부분의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인종적, 문화적 다양성이라는 문제를 끊임없이 겪고 있다. 서로 경쟁하는 인종적, 문화적 집단이 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새로운 국가의 성립을 위해 새로운 국가적 정체성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새롭게 생겨난 국가적 정체성은 토착적인 인종적·문화적 정체성을 확장함으로써 확립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덜 토착적이고 소규모인 집단은 무시되기도 한다. 국가적 정체성은 또한 다양한 인종집단을 평등하게 대함으로써 초인종적인 정체성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어떤 경우이든 새로운 국가적 정체성의 출현은 자연스럽거나 자발적이지 않다. 다

민족 국가들이 직면하는 문제의 핵심은 특정한 인종집단에 충성하는 문제와 더 넓은 수준의 국가적 사회에 충성하는 문제 사이의 갈등관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가 제기해야 할 핵심적 문제는 양자가 어떻게 조화되고 부드럽게 융합되어 국가를 형성하는가 하는 것이다. 이 문제는 서로 다른 집단들이 서로 다른 언어를 언어적 다양성은 소통적 통합을 방해하고 현대화를 저해하는 역기능을 초래하기도 한다.

싱가포르는 동남아시아의 다민족 국가들 중 하나로서 그 인종구성을 보면 중국계가 77%, 말레이계가 15%, 인도계가 6%, 기타 인종이 2%를 차지한다. 싱가포르의 사회언어학적 상황의 복잡성은 240만 인구가 4가지의 공식 언어를 사용한다는 사실에도 여실히 드러난다. 독립당시에 싱가포르의 지도자들은 4가지의 공식 언어를 지정하기로 결정하였다. 말레이어, 중국어, 타밀어는 각각 싱가포르의 세 주요 인종집단을 대변하기 위해 선택되었고, 영어는 국제어로서의 지위와 싱가포르의 식민지 경험으로 선택되었다.

싱가포르는 독립 이후 언어정책에 대한 법령을 발포하게 되는데, 정부의 언어정책을 표명하는 1965년의 관보법령 부록을 보자.²⁶⁾

- (1) 말레이어, 만다린어, 타밀어 및 영어는 싱가포르의 네 개 공식 언어이다.
- (2) 국어(national language)는 말레이어이며 로마자로 쓴다.

위에서 보듯 싱가포르에서는 4가지 언어 중, 말레이어가 국어(national language)로 지정되었는데, 이는 싱가포르의 역사적, 국가적 위상을 반영한 것이다. 다민족으로 구성된 싱가포르의 국민들에게 어느 한 민족의 언어를 국가의 언어로 인정하여 장려하고 교육하며 대중매체어로 사용할 경우 다른 민족들의 불만이 거셀 수 있다. 그런 연유로, 국어의 기능은 공식적 수준에서는 거의 상징적일 뿐으로 국가라든가 군사용어로 사용된다. 말레이어는 말레이인이 아닌 다른 국민에게 국어로서 학교의 필수과목으로 교수되지 않는다. 또 싱가포르의 귀화국민이 되기 위해 국가가 시행하는 언어시험에 합격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영어는 특정 인종집단의 언어가 아닌 중립적 언어로서, 싱가포르의 실질적인 지배 언어로 자리 잡았다. 영어는 모든 공식적 기능에 사용되는 상위 언어이고 각급 수준의 모든 학교에서 가르쳐지는 유일한 언어이기도 하다. 점점 더 많은 싱가포르 젊은이들이 형식주의적 언어교육을 받다보니, 모든 분야에서 영어의 사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공용어인 타밀어는 싱가포르의 인도인들을 대변하기 위해 선택되었지만, 영어에 비해 그 지위가 약하다고 할 수 있다. 싱가포르의 인도계 인구는 그 숫자가

26) 이해우, "싱가포르의 사회언어현상," 중국어문논총 18집, 129-147.

적을 뿐 아니라 언어와 종교가 다양하기 때문이다. 인도계들은 점진적으로 영어를 가정언어로 채택하는 추세이고, 이에 따라 타밀어는 점점 더 그 지위가 약해지고 있다.

만다린 중국어는 대다수 중국계 싱가포르인들의 모국어는 아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중국의 국어가 싱가포르의 중국계 인구들은 물론 동남아시아의 중국인들에 의해 선택되어왔다. 중국어는 중국계 학교에서 교수언어로 사용되고 가르쳐지고 있다. 중국어는 중국에서 교육받은 사람들 사이에서 공식기능을 위한 언어로 사용되기도 한다. 비공식적인 경우에는 중국의 주요 방언그룹인 복건어(Hokkien)가 사용되기도 한다.

이상의 논의에서 볼 때, 싱가포르 사회는 몇 가지 경쟁적인 문화전통들이 공존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음이 분명해진다. 그와 동시에 어느 특정한 토착적 언어와 문화가 지배적 위치를 점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급격한 문화적, 언어적 동화가 일어남으로써, 싱가포르가 마치 미국처럼 멜팅팟(melting pot)이 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문화적, 언어적 다원주의가 싱가포르의 지도자들에 의해 채택되었고 국민들은 이를 다민족 사회를 통합시킬 정책으로 받아들였다. 스튜어트(Stewart, 1968:540)에 따르면, 신생국가들의 언어정책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전략을 사용한다고 한다. (1) 교육을 통하여 다른 언어들을 제거하고 특정한 하나의 언어만을 국어로 유지하는 전략, (2) 국가 안에서 중요한 몇 개의 언어들을 인정하고 유지하면서 국가 전체적으로 공식적 목적과 소통을 위해 한두 가지 언어를 채택하는 전략이 그것이다.

이들 두 가지 전략 중에서 첫 번째는 언어적 다양성을 제거하려는 목적을 가진 것으로 모든 인종적 소수파들을 하나의 "민족" 문화 속으로 융합시키고자 하는 국가정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다. 두 번째 전략은 문화적 다양성을 용인하면서 공식적인 문화다원주의 정책을 반영한다. 두 번째 전략이 오늘날 싱가포르가 선택한 것이라 볼 수 있다. 특히 이 두 번째 전략의 이면에는 말처럼 다음과 같은 목적이 있다.

이 정책은 국가를 구성하는 하위 집단들을 파괴하지 않으면서 충성심과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하는 거시적 정책의 일부로서 "다양성 속의 통일성"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전략은 토착적 충성심을 국가적 충성심으로 승화시키고, 토착적 정체성들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순화시키고자 한다. 이러한 정책은 다양한 집단들을 포용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시민들의 국가적 충성심을 고양시킨다.

켈만(Kelman, 1971)은 이 문제를 사회심리학적인 측면에서 분석하면서, 감정적인 사회는 국가적 시스템에의 참여와 국가적 정체성의 확립에 장애를 초래할 가증성이 있음을 지적한다. 그러나 그는 기존의 사회정치적 구조가 충분히 효과를 발휘하여 개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인종적, 언어적 집단들의 요구를 만족시켜준다면, 구성원들의 유대감은 결국 새로운 국가에 대한 정체성과 충성심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믿는다.

켈만(1971:41)에 따르면, 그러한 신생국가에서는 언어정책이 기능적 고려에 바탕을

두고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다양한 목적을 위한 언어를 선택할 때 중앙정부는 다음의 두 가지 이슈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1) 국민들의 소통을 어떻게 확립하고 용이하게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를 통해 사회경제적 조치들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작동하여 국민의 욕구와 관심사를 해결해줄 수 있는가를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2) 사회 내부의 서로 다른 집단들이 그러한 시스템과 기회에 어떻게 공평하게 접근하고 참여할 수 있는가를 고려해야 한다. 이상의 논의를 기초로 볼 때, 국가를 형성하고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싱가포르가 선택한 일반 정책과 언어정책을 이해하기가 쉬워졌다.

싱가포르의 일반적 언어정책은 언어다원주의 혹은 멀티언어주의라고 할 수 있다. 이 말은 싱가포르가 채택한 네 가지 언어가 동등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네 가지 공식 언어들이 동등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주장할 사람은 없다. 네 언어들 중 단연 영어가 실질적인 공용어로서 국가적 단위에서 통합적인 언어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위에서 켈만이 제기한 두 가지 이슈를 충족시켜준다. 한편으로는 영어를 사용하는 것이 전체로서의 사회뿐 아니라 개인적인 단계에서도 경제적 발전을 촉진시켜준다. 다른 말로 하면 영어는 현대화의 언어인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영어가 비토착 언어이기 때문에 어떠한 주요 인종집단도 다른 집단에 비해 우월적 지위를 차지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중립적인 언어를 채택함으로써 싱가포르는 언어를 둘러싼 국내적 갈등을 제거할 수 있게 되었다.

싱가포르에서 영어의 지위와 기능은 경제적 번영과 현대화라는 측면에서 분명하게 설정되어질 수 있다. 싱가포르는 무역에 의해 삶을 유지하는 국가이고, 무역을 위한 언어가 바로 영어라고 종종 지적되곤 한다. 영어의 사용은 따라서 해외의 자본, 무역, 산업투자를 유치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압도적인 세계어로서 영어는 서방세계의 거대한 기술적, 시스템적 지식에 접근하는 것을 용이하게 해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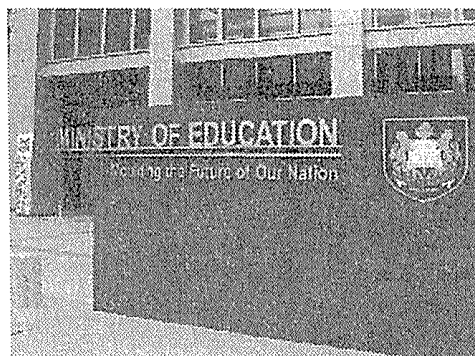
영어는 싱가포르의 인종적 모국어가 아니지만 인종간의 소통을 위한 링구아 프랑카로 지위가 상승되었다. 사실 많은 연구자들은 영어를 배우는 것이 싱가포르에 대한 충성심을 고양시키는 것과 상관관계가 있고, 이는 싱가포르인으로서의 초민족적 정체성을 생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싱가포르 정체성이 강할수록 인종중심주의 수준이 낮아진다는 것은 한편으로 다양한 인종문화를 더욱 더 피상적으로 만들 위험이 있다. 자신의 인종적 전통에 대한 감정적 결속력으로부터 자유로울 때에만 우리는 초민족적 수준에서의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하고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딜레마는 이런 것이다. 어느 정도 다양한 인종적 문화적 전통에 대한 결속력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로 인해 새로운 정체성을 발전시키는 것이 방해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4.3.3 영어 교육과 사용 실태

연구팀은 영어공용화의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2003년 8월 12일부터 8월 17일까지 5박6일 동안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를 방문하였다. 싱가포르의 교육부(Ministry of Education, MOE)를 방문하여 언어정책 담당자와 면접을 하고자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싱가포르 공무원들은 모든 직원이 명찰을 부착하고 있었으며, 점심식사도 명찰을 착용한 채 단체로 하였다. 단독 건물에 있는 교육부에는 민원상담실을 제외하고는 일반인의 출입을 엄격하게 제한하였고, 경비관들이 요소요소를 지키고 있었다. 출입이 철저히 통제되고, 관련자의 출입허가를 받은 사람만이 건물 내부로 들어갈 수 있었다. 대신에 교육부의 홍보관과 전화로 영어교육관련 정책에 대해 의견을 들을 수 있었으나, 그 공무원은 상부의 허가가 없다는 이유로 연구팀의 이름을 밝히기를 거부하였고, 자신의 견해가 공식적인 것으로 인용되는 것도 허용할 수 없다고 하였다. 연구팀은 교육부의 민원상담실 직원과 영어정책에 대한 일반적인 상황을 들어볼 수 있었다. 싱가포르는 영어를 국어로 하고, 타밀어, 중국어, 말레이어를 제2언어로 하는 복합민족 국가이다. 400 만명의 민족이 이들4개 언어를 중심으로 하는 민족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지만, 영국식민지 경험으로 하여 영어는 오랫동안 싱가포르 섬의 언어로 사용되어 왔다.

따라서, 싱가포르에서의 영어는 마치 캐나다나 호주에서 영어가 사용되는 것과 전혀 다른 점이 없다는 것이 연구팀의 판단이다. 실제로 각급 학교에서는 영어로 모든 수업이 진행되고, 민족어는 제 2의 언어로 선택하게 되어있지만, 그 수업량은 많지 않았다. 그러므로 교육부에서는 영어 구사 수준을 높이기 위한 어떠한 특별한 조치나 정책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기본적으로 영어가 국어와 마찬가지로이기 때문에 모든 교육과 일상생활이 영어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교육부에서는 취업대기자들에게 취업 안내도 해주고 있는데, 영어로 작성된 안내문을 보면, 영어에 관한 언급은 전혀 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모든 국민이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에서 당연한 것으로 판단된다.

학교 현장에서 영어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를 알기 위해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



싱가포르 교육부

교를 방문하였다. 수업은 모두 영어로 이루어지고, 각 지역이나 학교 상황에 따라 제2언어를 선택하는데,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는 중국계들은 중국어를 택하지만, 타밀어나 말레이어도 선택의 대상이다.

초등학교에서의 영어교육.

싱가포르의 어린이는 6년 동안 초등교육을 받게 된다. 6년 동안 4년 동안의 기초과목 이수과 5~6학년에서의 완벽한 오리엔테이션을 받는다. 기초확립 단계에서 학생들이 수강하는 교과목은 영어, 모국어이고, 과학과목은 3학년부터 포함된다. 싱가포르에는 현재 174개의 초등학교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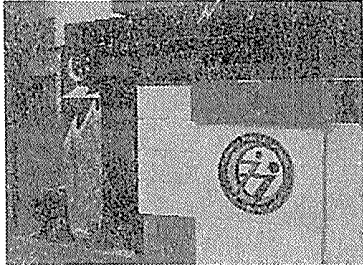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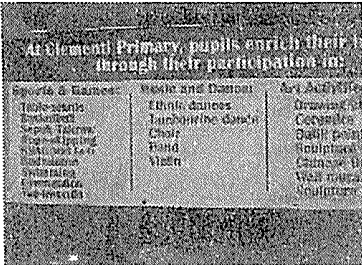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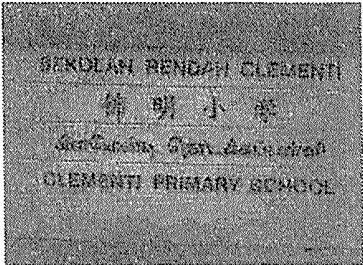
- | | |
|---|--------------------------------------|
| 1. MARYMOUNT CONVENT School | 25. CHIJ OUR LADY OF GOOD COUNSEL |
| 2. ANGLO-CHINESE School | 26. CHIJ (BUKIT TIMAH) |
| 3. CHIJ (KATONG) PRIMARY | 27. GEYLANG METHODIST Primary School |
| 4. NANYANG Primary School | 28. ST. HILDA'S Primary School |
| 5. MAHA BODHI School | 29. METHODIST GIRLS' School |
| 6. POI CHING School | 30. KONG HWA School |
| 7. NAN HUA Primary School | 31. NGEE ANN Primary School |
| 8. AI TONG School | 32. CANOSSA CONVENT Primary School |
| 9. HOLY INNOCENTS' Primary School | 33. CHIJ (KELLOCK) |
| 10. CHONGFU Primary School | 34. DE LA SALLE School |
| 11. TAO NAN School | 35. ST. ANTHONY'S CANOSSIAN Primary |
| 12. ST. ANTHONY'S Primary School | 36. ST. MARGARET'S Primary School |
| 13. PEI CHUN PUBLIC School | 37. ST. STEPHEN'S School |
| 14. KHENG CHENG School | 38. ANGLO-CHINESE School (JUNIOR) |
| 15. PEI HWA PRESBYTERIAN PRIMARY | 39. CHIJ PRIMARY (TOA PAYOH) |
| 16. HONG WEN School | 40. CHIJ OUR LADY OF THE NATIVITY |
| 17. PAYA LEBAR METHODIST GIRLS' Primary | 41. ST. ANDREW'S JUNIOR School |
| 18. MONTFORT JUNIOR School | 42. ST. GABRIEL'S Primary School |
| 19. FAIRFIELD METHODIST Primary School | 43. ST. MICHAEL'S School |
| 20. KUO CHUAN PRESBYTERIAN Primary | 44. BOON LAY Primary School |
| 21. SINGAPORE CHINESE GIRLS' Primary | 45. BUKIT PANJANG Primary School |
| 22. NAN CHIAU Primary School | 46. HAIG GIRLS' School |
| 23. MEE TOH School | 47. TECK WHYE Primary School |
| 24. RED SWASTIKA School | 48. JURONG Primary School |

- | | |
|-----------------------------------|-------------------------------------|
| 49. QUEENSTOWN Primary School | 83. CANBERRA Primary School |
| 50. RADIN MAS Primary School | 84. JURONG WEST Primary School |
| 51. RAFFLES GIRLS' Primary School | 85. EAST SPRING Primary School |
| 52. ROSYTH School | 86. YIO CHU KANG Primary School |
| 53. SERANGOON GARDEN SOUTH School | 87. PUNGGOL Primary School |
| 54. DAMAI Primary School | 88. ADMIRALTY Primary School |
| 55. FUHUA Primary School | 89. SENG KANG Primary School |
| 56. WOODLANDS Primary School | 90. WEST VIEW Primary School |
| 57. EUNOS Primary School | 91. UNITY Primary School |
| 58. CLEMENTI Primary School | 92. RIVERVALE Primary School |
| 59. HENRY PARK Primary School | 93. CORAL Primary School |
| 60. CASUARINA Primary School | 94. BLANGAH RISE Primary School |
| 61. TANJONG KATONG Primary School | 95. JUNYUAN Primary School |
| 62. GHIM MOH Primary School | 96. NAVAL BASE Primary School |
| 63. COMPASSVALE Primary School | 97. GRIFFITHS Primary School |
| 64. SEMBAWANG Primary School | 98. GUANGYANG Primary School |
| 65. NORTH SPRING Primary School | 99. ELIAS PARK Primary School |
| 66. HOUGANG Primary School | 100. HONG KAH Primary School |
| 67. GREENWOOD Primary School | 101. PIONEER Primary School |
| 68. WELLINGTON Primary School | 102. ANG MO KIO Primary School |
| 69. WEST GROVE Primary School | 103. JUYING Primary School |
| 70. BENDEMEER Primary School | 104. NORTHLAND Primary School |
| 71. EVERGREEN Primary School | 105. XINGNAN Primary School |
| 72. WOODGROVE Primary School | 106. QIHUA Primary School |
| 73. CONCORD Primary School | 107. TAMPINES NORTH Primary School |
| 74. YEW TEE Primary School | 108. AHMAD IBRAHIM PRIMARY |
| 75. MERIDIAN Primary School | 109. NORTH VIEW Primary School |
| 76. ANDERSON Primary School | 110. MAYFLOWER Primary School |
| 77. EDGEFIELD Primary School | 111. BUKIT TIMAH Primary School |
| 78. CORPORATION Primary School | 112. FIRST TOA PAYOH Primary School |
| 79. PARK VIEW Primary School | 113. NEW TOWN Primary School |
| 80. KRANJI Primary School | 114. MARSILING Primary School |
| 81. WOODLANDS RING Primary School | 115. YUHUA Primary School |
| 82. WHITE SANDS Primary School | 116. YU NENG Primary School |

- | | |
|-------------------------------------|--|
| 117. YANGZHENG Primary School | 146. SHUQUN Primary School |
| 118. TECK GHEE Primary School | 147. GONGSHANG Primary School |
| 119. FARRER PARK Primary School | 148. XISHAN Primary School |
| 120. LAKESIDE Primary School | 149. DAZHONG Primary School |
| 121. MACPHERSON Primary School | 150. PANDAN Primary School |
| 122. BOON LAY GARDEN Primary School | 151. FUCHUN Primary School |
| 123. PEI TONG Primary School | 152. CEDAR Primary School |
| 124. FENGSHAN Primary School | 153. RIVER VALLEY Primary School |
| 125. XINMIN Primary School | 154. YUMIN Primary School |
| 126. TEMASEK Primary School | 155. GAN ENG SENG Primary School |
| 127. LIANHUA Primary School | 156. HUAMIN Primary School |
| 128. ZHONGHUA Primary School | 157. PRINCESS ELIZABETH Primary School |
| 129. EAST VIEW Primary School | 158. DA QIAO Primary School |
| 130. CHANGKAT Primary School | 159. PARRY Primary School |
| 131. SOUTH VIEW Primary School | 160. TOWNSVILLE Primary School |
| 132. PASIR RIS Primary School | 161. BEDOK WEST Primary School |
| 133. GREENRIDGE Primary School | 162. ZHANGDE Primary School |
| 134. SI LING Primary School | 163. QIAONAN Primary School |
| 135. BEDOK GREEN Primary School | 164. PEIXIN Primary School |
| 136. BALESTIER HILL Primary School | 165. JIEMIN Primary School |
| 137. PEIYING Primary School | 166. YISHUN Primary School |
| 138. KEMING Primary School | 167. JIN TAI Primary School |
| 139. ZHENGHUA Primary School | 168. EAST COAST Primary School |
| 140. LOYANG Primary School | 169. RULANG Primary School |
| 141. CHUA CHU KANG Primary School | 170. QIFA Primary School |
| 142. JING SHAN Primary School | 171. TAMPINES Primary School |
| 143. BUKIT VIEW Primary School | 172. CHONGZHENG Primary School |
| 144. OPERA ESTATE Primary School | 173. XINGHUA Primary School |
| 145. TELOK KURAU Primary School | 174. Stamford Primary School |

초등학교의 교육은 학생들의 기초적 학력을 제공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여, 기초적인 언어능력, 수학과 과학 지식 등을 교육한다. 연구팀이 방문한 초등학교는 인도계통의 싱가포르인들이 주류를 이루는 학교로서 타밀어를 1주일에 1~2시간씩 가르치고, 영어는 25시간 중 5시간을 가르쳤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전체 수업시수 중에서 국어인 한국어 시수와 비슷한 양이다. 모든 게시물과 선전물, 장식 등은 영어로 쓰이고, 간혹 학교 정문 등에 제2언어를 병기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모든 교재가 영어로 되어 있다. 다만 제2언어에 관해서도 학습교재들이 매우 자세히 수준별로 준비가 되어 있다. 중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초등학생, 혹은 유치원생은 단계별로 마련된 교재를 이용해서 매우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게 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영어를 교육매개어로 사용하는 비율은 1959년의 47%에서, 1979년의 91%, 1983년의 99%에 이르기까지 점점 증가했다. 영어의 필요성으로 영어학교가 점점 늘어나고 민족어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점차 감소하여 없어지게 되자, 1987년부터 싱가포르 정부는 전국의 모든 학교가 영어를 제1언어로 하고 민족어를 제2언어로 하도록 결정하였다.

제 2언어는 초등학교부터 필수적으로 자신의 인종에 속해있는 언어를 배워야 한다. 중국인이라면 모어인 만다린어를 배우고, 말레이인이라면 말레이어를, 인도인이라면 타밀어를 배우게 하여 해당 인종의 민족적 전통과 문화유산을 지키게 배려하고 있다. 그리하여 모든 학생들이 궁극적으로는 영어와 자신이 속한 인종의 언어를 동시에 구사할 수 있게 철저한 이중언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클레멘티 초등학교 정문	 게시판	 4개어로 쓰여진 교명
---	--	--

중 · 고등학교

싱가포르에는 현재 162개의 중고등학교가 있으며, 그 명단은 다음과 같다.

- | | |
|---|--|
| 1. CHUNG CHENG HIGH School (BRANCH) | 32. CHIJ KATONG CONVENT |
| 2. NANYANG GIRLS' HIGH School | SINGAPORE CHINESE GIRLS' School |
| 3. PRESBYTERIAN HIGH School | 33. ST. ANTHONY'S CANOSSIAN Secondary |
| 4. NGE E ANN Secondary School | 34. CHIJ ST. JOSEPH'S CONVENT |
| 5. CHUNG CHENG HIGH School (MAIN) | 35. BRADDELL-WESTLAKE Secondary School |
| 6. HOLY INNOCENTS' HIGH School | 36. EVERGREEN Secondary School |
| 7. NAN CHIAU HIGH School | 37. CORAL Secondary School |
| 8. MANJUSRI Secondary School | 38. NORTHBROOKS Secondary School |
| 9. FAIRFIELD METHODIST Secondary School | 39. FUHUA Secondary School |
| 10. SINGAPORE SPORTS School | 40. WOODGROVE Secondary School |
| 11. ST. PATRICK'S School | 41. REGENT Secondary School |
| 12. CHRIST CHURCH Secondary School | 42. WESTWOOD Secondary School |
| 13. YUYING Secondary School | 43. COMPASSVALE Secondary School |
| 14. ST. HILDA'S Secondary School | 44. EAST SPRING Secondary School |
| 15. HAI SING CATHOLIC School | 45. UNITY Secondary School |
| 16. ANGLICAN HIGH School | 46. PASIR RIS CREST Secondary School |
| 17. THE CHINESE HIGH School | 47. MARSILING Secondary School |
| 18. ST. MARGARET'S Secondary School | 48. ZHENGHUA Secondary School |
| 19. CHIJ ST. THERESA'S CONVENT | 49. KENT RIDGE Secondary School |
| 20. PAYA LEBAR METHODIST GIRLS | 50. CANBERRA Secondary School |
| 21. KUO CHUAN PRESBYTERIAN Secondary | 51. BALESTIER HILL Secondary School |
| 22. METHODIST GIRLS' School (Secondary) | 52. NEW TOWN Secondary School |
| 23. ANGLO-CHINESE School | 53. SERANGOON GARDEN Secondary School |
| 24. ASSUMPTION ENGLISH School | 54. TANJONG KATONG Secondary School |
| 25. GEYLANG METHODIST Secondary School | 55. WOODLANDS RING Secondary School |
| 26. MONTFORT Secondary School | 56. SEMBAWANG Secondary School |
| 27. ST. ANDREW'S Secondary School | 57. JUNYUAN Secondary School |
| 28. ST. GABRIEL'S Secondary School | 58. TECK WHYE Secondary School |
| 29. ST. JOSEPH'S INSTITUTION | 59. DUNEARN Secondary School |
| 30. ANGLO-CHINESE School (INDEPENDENT) | 60. QUEENSTOWN Secondary School |
| 31. CHIJ Secondary (TOA PAYOH) | 61. TANGLIN Secondary School |

- | | |
|--------------------------------------|--------------------------------------|
| 62. NORTH VIEW Secondary School | 96. DUNMAN HIGH School |
| 63. ORCHID PARK Secondary School | 97. AHMAD IBRAHIM Secondary School |
| 64. SENG KANG Secondary School | 98. BUKIT MERAH Secondary School |
| 65. PING YI Secondary School | 99. CHAI CHEE Secondary School |
| 66. SHUQUN Secondary School | 100. JUYING Secondary School |
| 67. EAST VIEW Secondary School | 101. JURONG WEST Secondary School |
| 68. RIVERSIDE Secondary School | 102. PUNGGOL Secondary School |
| 69. MONK'S HILL Secondary School | 103. ADMIRALTY Secondary School |
| 70. TELOK KURAU Secondary School | 104. RIVER VALLEY HIGH School |
| 71. CHANGKAT CHANGI Secondary School | 105. BROADRICK Secondary School |
| 72. BEDOK TOWN Secondary School | 106. BUKIT PANJANG GOVT. HIGH School |
| 73. PEICAI Secondary School | 107. SPRINGFIELD Secondary School |
| 74. PASIR RIS Secondary School | 108. CHUA CHU KANG Secondary School |
| 75. GUANGYANG Secondary School | 109. CHONG BOON Secondary School |
| 76. ZHONGHUA Secondary School | 110. GREENVIEW Secondary School |
| 77. SWISS COTTAGE Secondary School | 111. PEIRCE Secondary School |
| 78. YUSOF ISHAK Secondary School | 112. JURONGVILLE Secondary School |
| 79. DUNMAN Secondary School | 113. KRANJI Secondary School |
| 80. JURONG Secondary School | 114. GREENRIDGE Secondary School |
| 81. NAVAL BASE Secondary School | 115. BISHAN PARK Secondary School |
| 82. YIO CHU KANG Secondary School | 116. DAMAI Secondary School |
| 83. BOON LAY Secondary School | 117. NORTHLAND Secondary School |
| 84. HUA YI Secondary School | 118. HONG KAH Secondary School |
| 85. DEYI Secondary School | 119. PIONEER Secondary School |
| 86. CHESTNUT DRIVE Secondary School | 120. FAJAR Secondary School |
| 87. FIRST TOA PAYOH Secondary School | 121. BEDOK NORTH Secondary School |
| 88. MACPHERSON Secondary School | 122. JIN TAI Secondary School |
| 89. OUTRAM Secondary School | 123. WOODLANDS Secondary School |
| 90. YUAN CHING Secondary School | 124. BUKIT BATOK Secondary School |
| 91. BEDOK VIEW Secondary School | 125. HOUGANG Secondary School |
| 92. SI LING Secondary School | 126. HILLGROVE Secondary School |
| 93. WEST SPRING Secondary School | 127. XINMIN Secondary School |
| 94. BEDOK GREEN Secondary School | 128. MAYFLOWER Secondary School |
| 95. NORTH VISTA Secondary School | 129. TAMPINES Secondary School |

- | | |
|------------------------------------|--|
| 130. BUKIT VIEW Secondary School | 147. ANG MO KIO Secondary School |
| 131. BOWEN Secondary School | 148. CLEMENTI TOWN Secondary School |
| 132. YISHUN TOWN Secondary School | 149. ANDERSON Secondary School |
| 133. NAN HUA Secondary School | 150. BEATTY Secondary School |
| 134. LOYANG Secondary School | 151. CRESCENT GIRLS' School |
| 135. TANJONG KATONG GIRLS' School | 152. QUEENSWAY Secondary School |
| 136. WHITLEY Secondary School | 153. RAFFLES INSTITUTION |
| 137. GHIM MOH Secondary School | 154. SIGLAP Secondary School |
| 138. YISHUN Secondary School | 155. BARTLEY Secondary School |
| 139. FUCHUN Secondary School | 156. CEDAR GIRLS' Secondary School |
| 140. BEDOK SOUTH Secondary School | 157. GAN ENG SENG School |
| 141. TEMASEK Secondary School | 158. RAFFLES GIRLS' School (Secondary) |
| 142. COMMONWEALTH Secondary School | 159. SERANGOON Secondary School |
| 143. VICTORIA School | 160. PARIS STELLA HIGH School |
| 144. HENDERSON Secondary School | 161. CHIJ ST. NICHOLAS GIRLS' School |
| 145. YUHUA Secondary School | 162. CATHOLIC HIGH School |
| 146. BENDEMEER Secondary School | |

중등교육은 초등교육에서 확립한 핵심적 기초를 바탕으로 하여, 각 개인의 자발적 발전에 핵심이 되는 다른 학과목들을 추가적으로 교육한다. 주로 인문학과 응용과학이 추가된다. 학생들은 각자의 수준과 관심사에 맞추어서 다양한 수준에서 각자의 진도에 맞게 학습을 수행한다. 중등과정을 마치고 나면, 학생들은 고등교육을 위한 준비 과정에 진입하거나 직업학교를 선택하여 각자에 적절한 유용한 방법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

일주일의 수업시수 40시간 중 영어는 8시간으로 우리나라의 중고등학교에서 국어가 차지하는 시간과 대략 엇비슷하였다. 그러나 역시 모든 수업을 영어로 진행하므로 영어의 수업량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연구팀이 만난 중학생들은 영어를 구사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영어를 배운다는 생각보다는 그냥 사용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클레멘티 중학교

대학교육.

대학교육은 전문대학과 일반대학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싱가포르에는 현재 17개의 전문대학이 있고, 그 명단은 다음과 같다.

- | | |
|-----------------------------|----------------------------------|
| 1. TEMASEK Junior College | 10. PIONEER Junior College |
| 2. RAFFLES Junior College | 11. MERIDIAN Junior College |
| 3. JURONG Junior College | 12. HWA CHONG Junior College |
| 4. NATIONAL Junior College | 13. CATHOLIC Junior College |
| 5. ANDERSON Junior College | 14. ANGLO-CHINESE Junior College |
| 6. VICTORIA Junior College | 15. ST. ANDREW'S Junior College |
| 7. YISHUN Junior College | 16. NANYANG Junior College |
| 8. TAMPINES Junior College | 17. MILLENNIA INSTITUTE |
| 9. SERANGOON Junior College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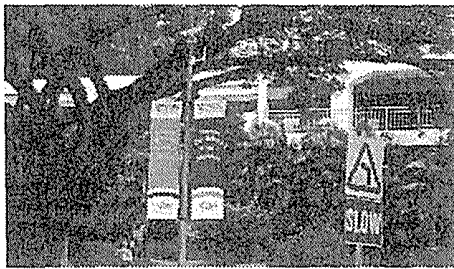
싱가포르에는 3개의 국립대학이 있고, 외국대학 분교가 설치되어 있으며, 그 명단은 다음과 같다.

1.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NUS)
 2. 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NTU)
 3. Singapore Management University (SMU)
-
1. 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 – The Logistics Institute, Asia Pacific
 2. Johns Hopkins University –Johns Hopkins Singapore
 3. Shanghai Jiao Tong University
 4. Stanford University
 5. Wharton School of the University of Pennsylvania – Warton SMU Research Center
 6. Technische Universiteit Eindhoven – Design Technology Institute
 7. Technische Universitat Munchen – German Institute of Schience and Technowled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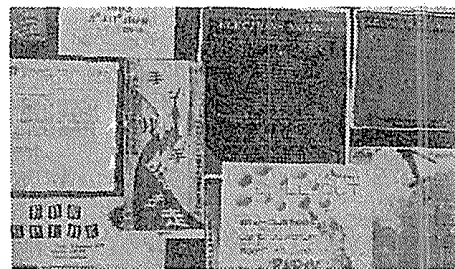
대학과 직업전문대학은 학생들에게 고등교육에서 요구되는 지식과 기술을 제공한다. 학생들은 싱가포르의 5개 공과대학과, 4개의 일반대학, 그리고 세계적 수준의 외국대학에서 제공되는 수많은 학과목들을 공부할 수 있다.

싱가포르에는 싱가포르 국립대학(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NUS)와 싱가포르 경영대학, 싱가포르 기술대학 등 3개의 국립대학이 있고, 최근에 외국 대학의 분교들이 속속 생겨나고 있다. 대학생들은 학교에서 당연히 영어로 수업을 받고, 일상생활에서도 영어로 의사소통을 한다. 교재가 모두 영어로 되어있고, 학교 환경 역시 모든 시설과 행정이 영어로 이루어져있다.

싱가포르에는 싱가포르 국립대학(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NUS)와 싱가포르 경영대학, 싱가포르 기술대학 등 3개의 국립대학이 있고, 최근에 외국대학의 분교들이 속속 생겨나고 있다. 대학생들은 학교에서 당연히 영어로 수업을 받고, 일상생활에서도 영어로 의사소통을 한다. 교재가 모두 영어로 되어있고, 학교 환경 역시 모두 영어로 되어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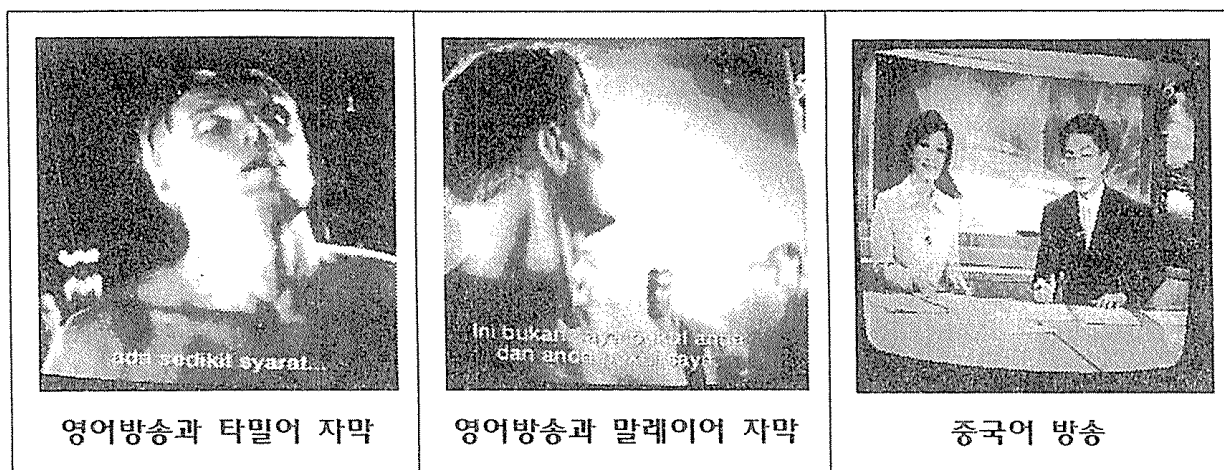
싱가포르국립대학 교정



싱가포르국립대학의 게시판

다음으로 언론매체에서의 언어 사용 실태를 살펴보자. 싱가포르에서는 일반적으로 영어로 된 신문이나 잡지가 주를 이루지만, 중국어로 된 신문과 잡지도 많이 볼 수 있다(첨부 신문 참조). 이는 최근에 중국으로부터 오는 관광객들을 의식하여 정부에서 중국어를 권장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판대에서 판매되는 신문과 잡지는 영어와 중국어로 된 것이 다수를 차지하고, 타밀어로 된 신문도 간혹 볼 수 있다.

방송은 주로 영어로 이루어지지만, 2개 방송은 중국어나 타밀어로 진행되고 있었다. 방송은 영어로 하고 중국어 자막을 내보내거나, 그 반대인 경우도 있었다. (사진 참조) 뉴스와 드라마, 아이들의 퀴즈쇼까지 모두 영어로 진행되므로, 싱가포르에서는 영어를 모르고 생활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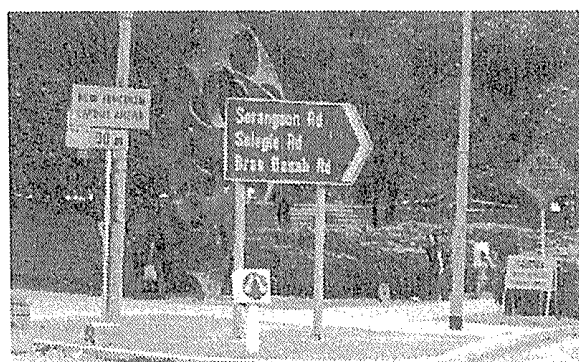


영어방송과 타밀어 자막

영어방송과 말레이어 자막

중국어 방송

대형 서점에서는 영어로 쓰여진 책들이 기본이고, 언어별로 분류하는 곳도 있다. 가령 중국어 섹션에 가면 광둥어나 만다린어로 쓰여진 책들이 종류별로 분류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영어로 표기된 도로표지

다음은 일상생활에서의 언어사용에 대해 살펴본다. 일상생활은 영어로 이루어진다. 연구팀이 체류했던 International YMCA House에는 카운터 직원으로부터 청소부, 식당 직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영어를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미국이나 영국의 YMCA Hotel에 있는 것과 아무런 차이를 느낄 수 없을 정도로 모든 직원들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영어를 불편 없이 구사하고 있었다.

전철이나 버스에도 모두 영어로 표기를 하고, 종종 말레이어나 타밀어, 혹은 중국어로 병기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택시역시 2개 언어로 병기하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영어를 못하는 운전기사는 없었다. 이정표도 영어로 되어있어서, 마치 미국이나 영국의 어떤 도시와 같은 인상을 받기 쉽다. 연구팀은 전철을 타고 싱가포르 남부의 Sentosa Island라는 섬을 다녀왔다. 모든 관광안내서는 영어로 되어있을 뿐 아니라, 안내방송 역시 영어로 이루어진다. 상점의 점원들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영어로 의사소통을 한다. 센토사섬으로 가는 기차역에서 만난 상점 주인은 타밀어를 구사하는 인도계였으나, 연구팀에게 말할 때는 영어를 사용하고, 그들끼리는 타밀어를 사용하기도 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싱가포르의 영어정책과 실상이 이렇게 장밋빛만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다시 말하면, 싱가포르 국민들은 소위 싱가포르 영어(Singlish)를 사용한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사람들에게 액센트나 지방색이 가미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싱가포르 사람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싱글리쉬가 확산되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한 논문에 따르면,²⁷⁾ 고속동총리조차 1999년도 한 연설에서 싱가포르인들의 영어수준이 하락했다고 개탄하면서, 세제인이 이해할 수 있는 표준영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였다. 싱글리쉬가 확산되는 이유는 영어에 서툰 부모들의 영향, 학교에서의 문법교육의 결여, 미디어의 영향, 영어교사의 부족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것이다.

다음은 싱글리쉬를 보여주는 몇 가지 예들이다. 먼저, 일부 국적 없는 영어가 표준 싱가포르 영어의 어휘로 받아들여졌는데,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habis 'finished'

makan 'to eat, meal'

chope 'to lay a claim to, as when putting bags at a table to indicate reservation'

cheem 'difficult, obscure'

ang mo 'a white person'

rojak 'mixed, something mixed'

이 밖에도 중국계 싱가포르인들은 중국어식 영어를 구사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²⁸⁾ 몇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27) 홍성화, 싱가포르의 언어정책, <http://www.mofat.go.kr/dplight/12homepage/singapore.htm> 참고.

28) 이해우, "싱가포르의 사회언어현상," 중국어문논총 18집, 144.

(1) 중국어식으로 어기조사 사용

A: That machine very hard to operate - so many buttons.

B: Easy ma! Come I show you.

(2) 중국어식 연동구조 사용

That book on the TV, take come here, can or not?

(3) 대명사 생략

___ is just at the back of this Sago Lane.

We don't have ____.

(4) 중국어식 부가의문문

Our chicken also the same-- all came from one chicken, right or not?

위와 같은 중국어식 싱가포르 영어는 중국인들이 쉽게 범하는 실수의 예이며, 교육 정도가 낮을수록 중국어적 영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된다.

싱가포르 영어는 발음면에서도 RICE와 RISE, /f/와 /v/, /th/와 /dh/ 등의 유성음/무성음 차이를 구분하지 않는 경향이 그리하여 HOP=HOB, BIT=BID, BACK=BAG으로 발음하기도 한다. 그런가 하면 강세의 위치가 바뀌어 commA, lettER 등으로 발음하는 예도 있다. 의문문의 경우에는

You go where?

Why you so stupid?

Why she never come here?

와 같이 표준영어와는 아주 다른 문형을 만들기도 한다.

이러한 싱글리쉬의 출현을 우려한 정부에서는 판료, 언론, 민간인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하여 전국적인 영어수준향상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2000년부터 영어리 영어 추방운동을 벌이기 시작했다. 싱가포르 정부와 각종 사회단체들이 참여해 범국민운동으로 전개하고 있는 이 캠페인 이름은 '훌륭한 영어 사용하기 운동'으로 캠페인은 '외국인이라도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영어구사를 궁극적 목적으로 삼고 있다.²⁹⁾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 표준영어를 사용하는 연극 공연, 표준영어만 사용하는 영어 연설대회, 군대의 지휘명령에 표준영어 사용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³⁰⁾ 남들이 이해

29) 이해우, "싱가포르의 사회언어 현상," 중국어문논총 18집, 136쪽.

30) 조선일보, 2000년 4월 29일자 참조

하지 못하는 영어를 구사하면, 세계화되고 상호 연결된 세계에서 필요한 소통력을 구비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싱가포르 교육부에서는 이러한 싱글리쉬의 문제점을 인식하여 영어교사들에 대해 영국이나 영어를 사용하는 나라에 대대적인 어학연수를 시키기도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싱가포르의 영어공용화는 많은 장점에 못지않게 언어적인 입장에서 보자면 소위 싱글리쉬라고 하는 또 다른 영어 변종을 만들어냄으로써 새로운 문제를 안게 된 셈이다.

4.3.4 모국어 교육과 인식 실태

싱가포르는, 앞에서 살펴본 대로, 중국계, 인도계, 말레이계, 인도네시아계 등이 혼합된 다민족 국가이다. 그러나 이미 1700년대부터 영국의 식민지 경험을 가지고 있으므로, 영어의 사용은 수백 년 된 전통이기도 하다. 싱가포르 인구의 다수를 이루는 중국계는 가정에서 중국어를 쓰기도 한다. 하지만, 연구팀이 만난 택시기사나 일반인들은 아이들 교육을 위해 가정에서도 영어를 사용한다고 말한다. 다만, 최근 중국의 관광객들이 싱가포르를 많이 찾게 되면서 정부에서 중국어 사용을 권장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강해졌다고 한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영어를 국어로 하고, 중국어를 제 2언어로 하는 정책은 변함이 없다.

각 언어들의 상황을 간단히 살펴보자. 먼저, 중국어는 1957년까지만 해도 국민의 대다수를 점하는 중국계 싱가포르인들의 언어였다. 당시 중국어는 74.4%, 말레이-폴리네시아어 13.5%, 드라비다어 6.6%가 사용되었다. 중국어 중에서는 복건어(Hokkien)가 가장 널리 쓰여 30%를 차지하고, 호주어와 광둥어가 각각 17%, 15%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언어상황이 오늘날에서는 영어를 실질적 공용어로 하고, 중국어는 제2언어로 위치가 뒤바뀌었다. 싱가포르 교육부는 1969년에 공식적으로 502자의 한자를 만들어 간체자를 지정, 공포하였다. 중국어라 하더라도 중국계 싱가포르인들이 사용하는 방언은 12 종류가 넘기 때문에, 이러한 정부의 단일안이 없다면 소통적 효과는 반감될 것이다. 1979년 리관유 수상은 “다린어로 많이 말하고 방언으로 적게 말하자”는 모토 아래 캠페인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방언 89%, 만다린어 1.2%였던 상황이 1989년에는 방언이 73%로 줄고 만다린어는 21.7%로 늘어났다.³¹⁾

싱가포르의 말레이어는 순수 말레이어가 아니라 일종의 피진(pidgin)어인 바자르 말레이어에 속한다. 싱가포르의 유일한 국어(national language)이다. 현실적으로 말레이어를 구사하는 사람은 전체 인구의 14%에 불과하지만, 중국인과 인도인들처럼 다양한

31) 이해우, “싱가포르의 사회언어 현상,” 중국어문논총 18집, 140쪽

방언을 구사하지 않고 비교적 통일된 종교, 문화, 및 언어를 가지고 있다. 말레이어는 국어이므로 국가적 행사에서 국어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고 있다. 현재 영어의 사용이 증가하면서, 말레이인이 아니거나 말레이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일부 교육 수준이 낮은 중국인, 말레이인, 인도인 사이에서 인종 상호간의 의사소통 수단으로 말레이어가 사용되기도 한다. 또 정부에서도 말레이어의 사용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실리적인 면에서 이웃하고 있는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와의 관계 증진과 무역에 도움을 받기 위함이다.

타밀어는 싱가포르 전체 인구의 약 7.6%에 달하는 인도인들 중 64%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이다. 나머지 인도인들은 21%가 영어, 15%가 힌두어, 그리고 나머지가 구자라티어, 말레이알람어, 편잡어, 중국어 등을 사용한다. 타밀어를 보급시키려는 시도가 있지만, 인도인들의 약 절반을 조금 넘는 사람들만이 타밀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널리 보급되지는 않고 있다.

연구팀은 동남아시아의 영어 공용화실태 조사를 통해 우리의 영어 효율화, 혹은 국어정책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 그러나 싱가포르에 관한 그 역사적 배경이 너무 다르고 현재의 언어 상황이 판이하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싱가포르의 언어 상황은 뉴질랜드나 캐나다, 혹은 남아공의 언어 상황과 전혀 다르지 않은 영어 모국어 환경이라는 것이다. 인구 4백만의 도시국가로서 균질적인 교육수준을 가지고 있고 국민소득이 3만불 이상 되는 사회의 영어 사용실태는 우리의 현실과 비교해볼 때 너무 큰 이질적 상황이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소위 싱글리쉬가 득세하게 되자 정부에서는 다양한 영어교육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다. 홍성화에 따르자면,³²⁾ 현재 싱가포르에서는 학교에서 정기적으로 학생들간의 표준영어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 및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고, 영어교육과정에 문법과 발표력 교육을 강화하며, 모든 영어교사들에 대해 60시간 과정의 재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한다. 텔레비전이나 신문, 잡지 등의 언론매체에서의 싱글리쉬 사용도 줄이도록 하고 있으며, 교육부에서 지역언어센터와 공동으로 영어표현에서 자주 범하는 오류들을 수록한 핸드북도 발간하였다.

32) 싱가포르의 언어정책, <http://www.mofat.go.kr/dplight/12homepage/singapore.htm> 참고.

4.4 인도

4.4.1 역사·문화적 배경

인더스 문명은 기원전 3000년경 인더스(Indus) 강변에서 시작된 농경문화였다. 이 문명은 세계 4대 문명의 하나로 정비된 도로와 공중화장실과 목욕탕까지 갖추었다. 현재 남인도에 거주하고 있는 드라비다인(Dravidians)에 의해 이루어진 이 문화는 기원전 1500년(혹은 2000년)경부터 이주하기 시작한 아리아인(Aryans)들에 의해 파괴되고 베다문화로 변화한다. 중앙아시아에서 유목생활을 하고 있었던 인도-유럽어족에 속하는 아리아인들은 원주민인 드라비다인을 노예화하거나 남인도로 몰아내고 또는 아리아인들 사이에서의 투쟁을 거듭하면서 갠지즈(Ganges) 강 유역에 도달하였고 그곳에서 정착하였다. 이때부터 아리아인들을 중심으로 하는 소규모 도시국가들이 성립하게 되었다.

기원전 500년경에는 아리아인들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종교적 배경과 원주민들의 종교가 혼합되어 힌두교가 탄생하고 현대 많은 인도 언어들의 기원인 산스크리트어와 함께, 드라비디안, 시노-티벳티안, 문다 언어가 발달했다. 종교뿐만 아니라 인도 특유의 사회체제도 이 시기에 대부분 이루어진다. 정복자와 피정복자, 피부색의 차이, 신들의 서열, 전문가의 탄생과 분업, 지배자와 피지배자, 국가통치 조직 만들기 등이 형성되고 카스트 제도도 이 시기에 완성된다.

인도의 인구를 구성하고 있는 지배인종은 지중해인(Mediterranean)을 모체로 하는 드라비디아인(Dravidians)과 아리아인(Aryans)이다. 드라비디아인은 기원전 2500년 이전에 인도아대륙에 정착하였지만, 아리아인은 기원전 1500년 이후 약 800년간에 걸쳐서 인도아대륙에 진입하였다. 한편, 인도아대륙을 침입하였던 중앙아시아의 인종과 더불어 그리스인과 아랍인도 인도 인구를 형성하였고, 동북 지방에는 몽고인도 살고 있었다. 이와 같이 인도는 다양한 인종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다언어 사회를 오래 전부터 이루며 현재에 이르고 있다.

15세기 서아시아 지역을 오스만 터키가 점령하자 유럽 국가들은 후추로 대표되는 향료의 구입이 어렵게 된다. 1848년 바스코 다가마가 인도 항로를 발견한 것을 계기로 포르투갈이 인도에 진출하기 시작한다. 곧이어 네덜란드, 프랑스, 영국이 인도에 합류하여 이들 유럽 국가들 간의 치열한 우위권 다툼이 벌어지다가 1757년 플라시 전투를 계기로 영국이 주도권을 잡게 되며, 마침내 1763년 영국이 프랑스를 격파함으로써 인도에서의 패권국가의 지위를 얻게 된다. 영국은 1800년 동인도회사를 설립하여 인도를 통치하였으나 1857년 세포이(Sepoy) 반란이 진압된 직후 동인도회사를 해산하

고 영국정부가 직접 통치를 하는 식민지로 만들었다.

영국의 식민통치에 있다가 1857년 첫 번째 독립전쟁이 일어나며, 1947년 8월 15일에 인도의 독립이 마침내 이루어지며, 1950년 1월 26일에 공화국이 된다.

4.4.2 언어 정책의 방향

인도에서는 현재 18개의 공용어(Official Language)가 사용되고 있다. 아쌈미어(Assamese), 방글리어(Bengali), 구자라티어(Gujarati), 힌디어(Hindhi), 칸나다어(Kannada), 까श्मी리어(Kashmiri), 말라얄람어(Malayalam), 마라티어(Marathi), 우리야어(Oriya), 뽀자비어(Punjabi), 산스크리트어(Sanskrit), 썬디어(Sindhi), 따밀어(Tamil), 텔루구어(Telugu), 우르두어(Urdu), 콩까니어(Konkani), 마니뿌리어(Manipuri), 네팔리어(Nepali) 등 18개 공용어를 헌법에 명시하고 있다.³³⁾ 영어는 제 1 공용어의 지위를 갖지는 않지만, 제 2 공용어로서 인도인의 언어생활에 이용되고 있다. 인도는 28개 주와 7개 연방직할지로 구성된 연방국가인데, 공용어도 중앙정부와 주 공용어가 동일하지 않다. 중앙정부의 제 1 공용어는 힌디어이며 제 2 공용어는 영어이다. 28개 주의 공용어는 각 주에서 정하는데, 대부분 앞에서 언급한 18개 공용어에서 지정한다.

인도에서 언어 정책의 변천을 영어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600년 12월 31일을 인도 영어의 기점으로 삼는데,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 1세가 동인도회사 설립을 승인한 날이기 때문이다. 이전에는 포르투갈어가 많이 사용되었다.³⁴⁾ 1813년 동인도 회사의 특허법 갱신 이후 영국이 인도 영어 교육에 관여하였으며, 1835년 마코올리(Macaulay) 각서에 의해서 영국 정부는 인도 원주민에게 유럽의 문학과 과학을 보급, 장려하는 것을 교육 정책의 목표로 삼으며, 1837년 영어가 법정 언어로 페르시아어를 대체하고, 1844년 영어로 교육받은 인도인을 우선 채용함으로써 영어 사용 상류 계층과 인도어 사용 하류 계층으로 나뉘게 된다.³⁵⁾ 1854년 교육법을 통해서 고등교육기관에서는 영어, 국민 대중에게는 인도어 교육이 실시된다.

33) 인도 헌법의 제 8 별항에 공용어를 지정하고 있는데, 아쌈미어(Assamese), 방글리어(Bengali), 구자라티어(Gujarati), 힌디어(Hindhi), 칸나다어(Kannada), 까श्मी리어(Kashmiri), 말라얄람어(Malayalam), 마라티어(Marathi), 우리야어(Oriya), 뽀자비어(Punjabi), 산스크리트어(Sanskrit), 따밀어(Tamil), 텔루구어(Telugu), 우르두어(Urdu) 등 14개가 지정되었다가, 1967년에 썬디어(Sindhi)가 추가 지정되고, 1992년에 콩까니어(Konkani), 마니뿌리어(Manipuri), 네팔리어(Nepali) 등이 새로 지정되어 현재 18개에 이른다.

34) 포르투갈이 고아(Goa)를 점령한 1510년 이후부터 포르투갈어가 인도에서 사용되기 시작했다.

35) 영어의 이러한 지위는 그 이후로도 지속되어 오늘날까지 사회 지배층의 언어로 자리 잡게 된다.

20세기에 들어서 영어가 엘리트 계층의 언어로 자리를 잡게 됨에 따라서 행정, 법 등 정치 사회 영역에서 지배적 언어의 위치를 갖게 된다. 한편, 1905년에는 영어 교육에 대한 반발로 민족 교육 운동 시작되며, 1906년에 민족 교육 위원회가 설치되어 문학과 과학 기술의 교육을 민족 차원에서 인도어로 시도하였으며, 1920년 나그푸르(Nagpur) 의회 결의안에 의해서 아동들이 영어 학교 대신에 민족 학교에 진학할 것을 제안하게 된다. 1949년 제헌의회 논쟁을 통해서 제 1공용어로 힌디어, 제 2공용어로 영어가 인정된다. 이는 힌디어가 북인도의 아라족을 중심으로 한 언어이기 때문에 남인도의 드라비다족에게는 위협적 요소이기 때문에 영어가 제 2공용어 지위를 갖게 된 것이다. 1959년 네루 수상의 연설에서 힌디어를 유일한 공용어로 하자는 운동에 대해서 비힌디어 지역의 반발로 영어를 대체어로 계속 인정하기에 이른다. 이에 따라서 영어는 인도의 다언어 상황에서 정치 사회적으로 중립적 언어로 자리매김 된다. 1963년에 공용어 법안이 제정되어 1965년부터 중앙 정부의 공용어로 힌디와 영어가 사용하며 중앙정부와 비힌디 주정부간 서신은 영어로 사용하게 된다.³⁶⁾ 1968년 공용어법 수정안이 통과되어 영어를 제 2공용어로 사용하게 된다.

한편, 1961년에 정부에서 제안하여 꼬타리 위원회(Kothari Commission, 1964~66)에서 수정된 '단계적인 3개 언어 정책(Three Language Formula)'에 의해서 다양한 언어 집단을 포용하고, 힌디어를 통한 국가적 공지와 통일을 유지하고, 영어를 통한 행정의 효율성과 기술 분야의 진보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3개 언어[모국어(또는 지역어), 힌디어, 영어]의 교육을 교육 과정에 단계적으로 포함하게 된다.

1976년에 시행된 공용어 원칙은 3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중앙 정부와 힌디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6개 주와 델리 연방 간의 통신은 힌디어로 한다. 둘째, 각각의 공용어를 갖고 있는 뭄바이, 구자라트, 마하라슈트라 주와 찬디가르, 안다만-니코바르 연방령 등은 중앙 정부와의 통신은 힌디어로 한다. 셋째, 중앙 정부는 나머지 16개 주와 4개 연방령과는 영어로 통신한다.³⁷⁾ 현재까지 공용어에 대한 원칙은 1976년의 정책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4.4.3 영어 교육과 사용 실태

인도의 영어 교육을 살피기 전에 인도 영어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기로 한다.

인도에서 영어는 지역, 모국어, 어족 등에 따라서 구분되기도 한다. 벵갈 영어, 구자라트 영어, 따밀 영어 등으로 지역이나 모국어를 따라서 변이형이 존재하며, 인도-유

36) 1963년 법안은 <http://rajbhasha.nic.in/dolacteng.htm> 참조

37) 이외에도 '힌디로 받은 서신은 힌디로 하며, 중앙정부의 모든 간행물은 힌디와 영어로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럽 영어, 드라비다 영어 등 어족에 따라서 나누기도 한다.

한편, 인도 영어는 사회 계층에 따라서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지식인층에서 사용하는 영국 영어에 가까운 영어, 전문직(관리, 교사, 경영인, 과학자, 언론인 등)에서 사용하는 인도 영어, 일반인층(종업원, 여행안내원, 상인 등)에서 사용하는 영어로 나뉜다. 이 중에서 전문직에서 사용하는 인도 영어가 표준 영어로 광범위하게 쓰인다.

인도에서 영어는 제 2공용어의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모국어처럼 자연스럽게 습득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통해서 학습된다. 이렇게 교육을 통해서 학습되는 인도 영어는 영국 영어와는 다른 성격을 갖는다. 대다수 인도인들의 영어 습득은 고전 작품을 다룬 책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대 영어와는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인도 영어는 교과서식의 딱딱한 문어체적 특성을 갖는다.³⁸⁾ 인도에서 사용되는 영어는 영국 영어와 얼마나 유사한가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인도인들 간의 의사소통이 중시되기 때문에 영어의 구조를 단순화한 독립된 인도 영어의 성격을 갖게 된다.

인도의 영어 교육은 초중등과정과 대학과정에서 모두 이루어진다. 영어 교육은 초등학교 5,6학년부터 시작하며, 일부 사립 중등학교에서는 영어로 강의를 하기도 한다. 대학에서의 영어 강의 비율을 훨씬 높아진다.

Parasher(1991)에서는 1984년의 대학 편람을 통해서 영어 사용현황을 다음과 같이 파악하고 있다. 학부의 문과과정을 운영하는 94개 대학교 중에서 70개 대학(74.4%)가 강의에 영어를 사용하며 이 중에서 15개 대학은 영어만을 사용하며, 대학원의 문과과정을 운영하는 94개 대학교 중에서 76개 대학(80.8%)이 강의와 시험에서 영어를 사용하며 이 중에서 41개 대학에서는 영어만을 사용하고, 대학원의 과학 기술 과정을 운영하는 86개 대학교와 기관 중에서 강의와 시험에 영어만을 사용하는 대학은 57개(66.2%)이며 나머지는 영어, 힌디어, 또는 지역어를 선택적으로 사용하고, 공학, 의학 등의 학문은 전국적으로 모든 대학에서 영어만을 사용한다[최종찬(1998:282)에서 재인용].

다음으로는 영어 사용 실태를 살피기로 한다. 다민족, 다언어 국가인 인도에서 영어가 갖는 성격은 특이하다. 비힌디어 사용자에게 힌디어 사용을 강요하는 것은 민족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중립적 성격을 가진 영어의 사용이 다민족 사회인 인도의 통합을 꾀할 수 있다고 대다수의 인도 지식인들은 생각한다. 따라서, 식민지 언어로서의 영어가 갖는 부정적 요소는 인도의 특수한 환경에서 완화될 수 있었으며, 일부 상류 지향의 계층에게는 고급 정보의 습득과 국제 교류의 도구로 다른 언어에 비해 선호되고 있다. 그러나 인도의 전체 인구에서 영어 사용자의 비율은 그다지 높

38) 최종찬(1998)에서는 인도 영어의 문체적 특성으로 '라틴어법의 선호', '경어와 형식적 표현의 발달', '약어 사용의 발달', '윤리적인 어투', '진부한 표현의 과다 사용', '어휘의 재배열', '단어의 반복 사용', '교과서식의 딱딱한 영어' 등을 지적한 바 있다. 인도 영어의 언어학적, 사회적 특성은 Baldridge, (2002)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

지 않다. 인도에서는 언어간에 위계구조가 있는데, 인도 영어는 공적인 자리에서 주로 사용되는 상위 언어의 지위를 갖는다.

인도에서는 극히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영어 신문이 발행되고 있다. Government of India(1995)에 따르면, 1992년의 기준으로 힌디어 신문 다음으로 영어 신문 발행수가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상위 언어의 지위를 갖고 있는 영어의 특성은 정보 전달 매체로서의 신문에서도 그대로 반영된다. 교육 수준이 높은 계층은 영어 신문을 통해서, 교육 수준이 낮은 계층은 지역어 신문을 통해서 각각 정보를 습득한다.

방송에서도 전국 대상인 경우에는 영어와 힌디어가 사용되고 지역 대상인 경우에는 지역어가 사용된다. 영어는 뉴스, 특별 프로그램, 대담, 토론 등에서 사용되며, 힌디어는 오락 프로그램에서 우세하게 사용된다. 출판물의 경우에도, 영어책이 힌디어책보다 많이 발행된다. 영어책은 과학, 기술, 사회과학, 상공업 등과 관련된 분야에서 출간되며, 힌디어책은 종교, 철학, 시사 등과 관련된 분야에서 출간된다. 정부에서 발행하는 출간물은 영어 사용 비율이 힌디어보다 훨씬 높다.

개인의 영어 사용 실태는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가정생활에서 영어 사용은 형제자매나 부친과의 대화에서 주로 이루어지며, 조부나 모친과의 대화에서는 영어 사용 비율이 떨어진다.³⁹⁾

4.4.4 모국어 교육과 인식 실태

인도인의 언어 사용은 다층적이다. 비공식적 영역과 공식적 영역으로 언어 사용이 구분된다.

비공식적 영역은 내집단, 사회 활동, 종교 활동 등으로 나뉜다.

내집단(가족, 친구 등)에서는 모국어가 사용되는데, 이를 통해서 공동체의 정체성이 유지된다. 외집단이 발화에 참여할 경우에는 중립적인 지역어가 선택된다.

사회 활동에서는 도시와 농촌이 차이를 보인다. 도시에서는 영어를 주로 사용하며, 농촌에서는 지역 방언이 통용되며 통신과 서류 작성은 표준 지역어를 사용한다.

종교 활동에서는 의식, 음송, 행사 등은 고전어(산스크리트어, 아랍어, 팔리어 등)가 사용되지만, 대중과 관련된 활동(사제와 신도의 대화, 강연 등)은 지역어로 한다. 그러나 다언어 지역인 대도시(뭄바이, 델리, 마드라스, 방갈로르 등)에서는 대중과 관련된 종교 활동이 영어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공식적 영역(행정, 법정, 교육 등)은 하위와 상위, 구어체와 문어체 등에 따라서 언어 사용이 달라진다.

39)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최종찬(1998)에 소개되어 있다.

공식적 영역의 하위 수준의 구어체에서는 지역방언, 소수어, 지역어 등이 사용되며, 공식적 영역과 문어체에서는 영어가 보편적이며 지역어가 일부 사용되기도 한다.

인도에서는 모국어를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영어, 힌디어, 지역어, 고전어 등을 병용한다. 영어와 고전어는 공식적 교육 과정을 통하여 학습되지만, 힌디어와 지역어는 개인적으로 습득된다. 인도는 다민족 다언어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같은 단일민족 단일 모국어의 환경과는 너무나 다르다.⁴⁰⁾

인도에서 사용되는 언어는 1961년 조사에 따르면, 1,652개에 달한다.

표1. 인도 인구조사(1961년)에서 보고된 모국어 요약

범주	모국어 수	총 화자 수
호주-아시아 어족	65	6,192,495
티벳-중국 어족	226	3,183,801
드라비다 어족	153	107,410,820
인도-유럽 어족	574	321,720,700
키산(두 가지 다른 어족으로 분류된)	1	50,378
인도 밖의 모국어	103	315,466
미분류 어족	530	63,258
합계	1,652	438,936,918

출처: Mallikarjun(2002).

<표1>에서 제시된 수치에 방언은 포함되지는 않지만, 103개의 외국어는 포함되어 있다. 화자 수가 일만 명 이상 되는 언어의 수는 197개이고, 화자 수가 백만 명 이상 되는 언어의 수는 20개이다.

이러한 언어 조사는 1971년과 1981년에도 이루어졌는데, 화자 수가 일만 명 이상 되는 언어의 수는 각각 221개와 106개로 집계되었다. 1961년에 비해서 1971년에는 일만 명 이상 사용되는 언어가 증가하다가, 1981년 들어 급격하게 감소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91년 조사에서는 화자 수 일만 명 이상의 언어가 114개로 10년 전보다 다소 늘어나고 있다.⁴¹⁾

40) Mallikarjun(2001a)에서는 인도의 모국어(Mother tongue)가 갖는 애매성을 언급한 바 있다.

41) 1991년 조사는 <http://www.languageindia.com/nov2001/1991Languages.html> 참조.

<표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도에는 수많은 모국어(母國語)가 존재하기 때문에 단일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한국과는 모국어 교육에서 많은 차이점이 존재한다.

Government of India(1949)에 따르면, 초등교육은 모국어로 이루어져야 하며, 모국어(母國語)가 지역어나 주 언어(State Language)와 다른 경우에는, 적어도 40명 이상의 학생이 있으면 모국어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교사를 임명하는 등 모든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학생 수가 충분하면 다른 학교를 세워 그들의 언어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중등교육은 모국어로서의 교육에 실제적인 어려움을 고려하여 지역어로 한다[이정호(1995:275)에서 재인용].

한편, 중등교육 과정에서 배워야 할 언어에 대해서 1961년에 중앙정부와 주정부 회의에서는 3개 언어 정책(Three Language Formula)을 다음과 같이 채택하였다.

- (1) 지역어와 모국어(지역어가 모국어인 경우)
- (2) 힌디어(힌디지역일 경우 다른 인도의 언어)
- (3) 영어(또는 다른 유럽어)

이와 같은 모국어에 대한 교육은 다른 언어(힌디어, 영어, 지역어 등)의 함께 학습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⁴²⁾ 또한, 지역적, 민족적, 종교적 차이 등으로 인해서 야기된 다양한 언어 때문에 오히려 영어의 지위가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즉, 다른 지역어나 다른 모국어에 대해 생기는 반감이 영어에서는 가치중립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 연구된 Mallikarjun(2003)에서는 한 언어가 보다 폭넓은 의사소통과 통제(統制)의 목적을 위하여 모국어로 학습되지 않는다면, 해당 언어는 효과적인 매체로서 사회로부터 점차적으로 사라질 것이고 단지 신원 표지의 역할만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수많은 모국어를 갖고 있는 인도의 상황에서도 모국어 교육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있는 실정이다. 단일 모국어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러한 인도의 사례가 귀중한 참고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42) Mallikarjun(2001b)에서는 2000년도의 교과과정을 검토하면서 효율적 도구에서 벗어난 3개 언어 정책을 미화하기 보다는 비실용적임을 입증하고 학교 교과과정의 언어 교육에서 새로운 실행 가능한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5. 영어 공용화의 이득과 손실

이 장에서는 영어 공용화 국가에서 영어 공용화 정책이 미친 영향을 ‘국가 경쟁력의 측면, 영어 실력 향상의 측면, 모국어 사용 능력의 측면, 문화적 정체성의 측면, 사회 통합의 측면’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이를 근거로 한국에서 영어 공용화 정책을 시행했을 때의 이득과 손실을 가늠해 본다. 본 연구팀은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들 국가에서 영어 공용화 정책을 실시하게 된 계기를 그 국가의 정치·사회적 입장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한국 사회가 이들 국가의 경우와 어떻게 다른지를 밝히면서 영어 공용화 정책의 이득과 손실을 따지기로 한다. 즉, 현재 한국 사회의 정치·사회적 조건에서 영어 공용화의 필요성을 발견할 수 없다면, 정책의 실시와 예상 효과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는 한, 예상 효과가 화려하다 해도 이를 이득으로 예측할 수 없다는 게 본 연구팀의 입장이다.

5.1 문화적 정체성의 측면

현재 영어공용화 국가의 경우 오랜 기간 동안 식민 지배를 받아 온 경험에 있다. 그래서 모국어를 통한 근대적인 고급문화가 수립되기 힘들었다. 독립 이후 영어가 공용어로 제정되면서 고급문화는 영어를 통해 이루어지고 전승되었다. 이들 영어 공용화 국가에서 모국어와 영어의 역할이 분명하게 구분되는 것은 이러한 역사적 배경 때문이다.

이런 환경에도 불구하고 각 민족들은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소수이지만 민족어로 된 문학 작품과 영화가 만들어지는 것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영어가 실질적으로 제 1언어의 위치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모국어 문화의 확대 재생산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다민족 다언어 국가에서 소수 언어 사용자만을 위한 문화 상품이 나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모국어 사용자를 위한 문화 상품이 극소수인 관계로, 싱가포르나 필리핀의 사회 구성원들에게 닥치고 있는 정체성의 혼란은 심각하다. 싱가포르를 말레이시아보다 미국에 더 가까운 나라로 인식하는 싱가포르인이 대다수라는 사실은 영어 공용화를 필두로 한 서구화 경향이 끼치는 영향력을 가늠케 한다. 이는 필리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서구의 식민 지배를 오랜 기간 받으면서 필리핀의 지배 계층은 스페인계 필리핀인이나 미국계 필리핀인이다. 이들 지배 계층은 서구 귀족 문화에 편향되어 있으며,

일반 사람들은 미국 문화의 절대적인 영향력 하에 있다. 이러한 문화적 환경은 필리핀인의 정체성 확립에 커다란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

영어 공용화 국가의 이런 상황을 긍정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영어 공용화 실시는 인종 중심적 문화로부터 탈피하여 다원주의적 문화 정체성을 수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지금과 같은 세계화 시대에 다원주의적 문화 정체성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은 긍정적이다. 특히, 싱가포르인들은 영어를 통해 국가적 통합을 이룰 뿐만 아니라, 다양한 민족어를 수용함으로써 문화적 다원성을 일찍부터 체득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있다. 이는 말레이 민족 위주의 우월적 민족주의 경향이 생기면서 문화적 다원성을 확보하는 데 뒤쳐진 경험을 갖고 있는 말레이시아의 경우와 대비되기도 한다.

그러나 영어 공용화 국가는 모두 다민족 다언어 국가이기 때문에 한국과 같은 단일 민족 단일 모국어 국가와는 처한 환경이 많이 다르다. 다민족 다언어 국가에서 모국어와 민족 문화는 한 국가 내에서도 개별적인 것일 뿐이다. 따라서, 이들 국가에서 영어는 정체성 혼란을 부추기는 부정적 기능을 하기도 하지만, 민족의 문화적 대립을 완화할 완충제의 역할을 담당하기도 한다. 그러나 문화적 대립을 완화할 완충제 역할을 할 언어가 필요 없는 한국에서 영어 공용화는 문화적 정체성의 훼손이라는 부정적 기능만 있다.

한국 내에서 한국어는 한국 문화를 형성하는 중심축이다. 한국에서는 한국어가 제 1언어의 위치를 다른 언어에 내어준 적이 없었다. 독립 이후 미군정 하에서 잠시 영어 공용화 정책이 시행되기도 했지만, 실제로는 한국어가 정치, 사회, 문화적으로 제 1언어의 역할을 했다. 또한, 언어 사용자의 수도 7천만이 넘고 경제력 또한 세계 20위권 내에 드는 나라이다. 따라서, 문화적으로 후진적 위치에 있는 국가에서 영어를 공용어로 도입하는 것과 한국에서 영어를 공용어로 도입하는 경우를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없다. 경제논리로만 볼 때, 모국어로의 학술 문화가 정립되지 않은 나라에서 영어 공용화를 추진하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한국처럼 한국어로의 학술 문화가 정립되어 있고,⁴³⁾ 한국어 공동체의 경제력이 일정한 위치에 오른 나라에서 영어 공용화는 혼란만 부추길 것이다. 단일 언어 국가이면서 모국어로의 학술 문화가 정립된 나라에서 영어 공용화 정책을 추진한 나라가 한 나라도 없다는 것은 이러한 추측을 뒷받침하는 증거이다. 한국과 같이 한국어로 문화적 전통을 확립하고 있는 나라에서, 다른 언어로 문화적 전통을 이어간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따라서, 한국에서 영어 공용화가 실시될 때, 한국인이 겪을 정체성의 혼란은 싱가포르나 필리핀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극심할 것이다.

43) 한국어는 알파벳이 아닌 한글이란 독립 문자로 표기되며, 한국 대학에서의 학술 언어도 거의 대부분 한국어라는 사실은 한국적 전통이 전 사회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런 점을 통해 본다면, 한국의 경우 국가경쟁력만을 위한 영어 공용화는 다원주의적 문화를 파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영어 공용화 정책 자체가 한국어의 생존에 직접적인 위협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전 세계적 차원에서 본다면, 한국 내에서 한국어의 현재 위치가 지속되는 것이 세계 문화의 다원화를 이루는 데 기여할 것이다.

5.2 모국어 사용 능력의 측면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영어 공용화 국가의 대부분은 다민족 국가이다. 다민족으로 구성된 국가에서 어느 한 민족의 언어를 국가의 언어로 인정하여 장려하고 교육하며 대중매체어로 사용할 경우 다른 민족들의 불만이 거셀 수 있다. 이들 나라에서는 각 민족어와 함께 토착어가 아닌 영어가 공용어로 채택되어 사용된다. 그러나 영어와 모국어는 그 역할이 구분되어 있다.

학교에서는 강의 언어로 영어를 사용하며, 거의 모든 전공 서적은 영어로 된 책이다. 또한, 문학 작품, 신문, 방송 등은 대부분 영어로 되어 있다. 특히, 신문의 경우 정론지(正論紙)는 영어인 반면, 타블로이드판 황색 신문이 모국어로 되어 있는 현실은 영어의 역할과 모국어의 위상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4장에서 살펴보았듯이, 필리핀에서 토착어 타갈로그어를 주요 언어로 사용하기 위한 정책을 취한 바 있으나, 대다수 지식인들의 반대에 부딪쳐 무산되었고, 말레이시아의 경우는 영어가 제 2언어로 되면서 발생한 영어 능력 저하 현상이 사회문제로 취급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이들 국가에서 토착어와 영어의 역할이 분명히 구분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본 연구팀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대부분의 영어 공용화 국가에서 모국어는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본 연구팀이 직접 방문 조사를 행한 필리핀에서 모국어인 타갈로그어는 일상생활 속에서 폭넓게 사용되고 있었고, 싱가포르에서도 말레이어뿐만 아니라 타밀어와 중국어가 같은 민족 사이의 의사소통에 사용되고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4장에서 모국어 사용 실태를 분석한 절에서 상세하게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문제는 4장에서 밝힌 바와 같이 모국어의 사용 영역에 있다. 싱가포르와 필리핀에서 각 민족의 모국어는 생활 속에서는 어느 정도 사용되지만 지성과 학술 언어로서의 기능은 거의 없었다. 모국어의 위상이 그러다 보니, 기업과 국가에서 요구하는 인력이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능력 중의 하나가 유창한 영어 실력이 되었다. 각 민족의 모국어는 전문 분야의 일을 하는데 기여할 수 없는 언어가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모국어 교육을 의무적으로 진행하지만 교육이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문법 교과서와 사전의 편찬 등을 비롯한 모국어 교육 방법의 개발은 한국어의 경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미미하다.

한국의 경우, 모국어인 한국어는 사회 모든 분야의 주류 언어로 되어 있어 한국어의 쇠락을 염려하는 게 기우로 치부될 수도 있다. 그러나 전공 강의에서 영어 강의를 실시하는 대학이 생기기 시작하고, 교양 국어를 선택으로 전환하는 대학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를 감안할 때, 한국어가 주류 언어의 자리를 내줄 시기는 의외로 빨라질 수 있다. 특히, 영어 공용화가 실시되어 교육 언어가 영어로 대체되는 속도가 빨라진다면, 한국어는 일상생활 속에만 사용되는 한 민족어로 그 위상이 급락할 것으로 예측된다.

5.3 국가 경쟁력의 측면

이 보고서에서는 영어 공용화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 중 ‘필리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를 집중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보면, 이들 나라의 공통점은 영국이나 미국에 의한 식민지 경험이 있는 다민족 국가라는 점이다. 이들 국가에서는 오랜 기간 동안의 식민지 경험을 통해 영어 사용 환경이 자연스럽게 형성되었으며, 다민족 국가이기 때문에 민족 간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국가 통합을 이루기 위해 토착어가 아닌 영어를 공용어로 채택한 것이다. 국가 경쟁력의 향상을 위해서 영어를 공용어로 채택한 나라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러나 역사적 경험과 별도로 현재 영어를 공용어로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얻는 이득을 가정할 수는 있다. 만약, 영어 공용화가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 명백히 기여한다면, 영어 공용화 문제는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경제적 이득을 바탕으로 한 국가 경쟁력 향상은 그동안 영어 공용화 찬성론자들의 핵심 근거일 뿐만 아니라, 영어 공용화 반대론을 반박하는 주요 논거로 활용되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영어 공용화와 국가 경쟁력의 인과관계가 구체적인 자료를 근거로 입증된 적은 없었다. 단지 막연한 추측을 근거로 찬성론과 반대론이 맞서왔을 뿐이다. 이런 점에서 국가 경쟁력과 영어 공용화의 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다.

3장에서는 영어 공용화 국가의 유형 분류를 하였다. 여기에서 영어 공용화 국가의 유형 분류 기준 중 하나였던 것이 경제력이다. 국가 경쟁력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측정될 수 있지만 가시적인 것이 경제력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 영어공용화와 국가 경쟁력의 향상 문제를 비교·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3장에서는 경제력의 지표로는 1인당 GNI 및 수출 순위를 들었다. 이 통계자료를 통해 볼 때, 영어 공용화 국가 중 우리보다 경제력(GNI 기준)이 높은 국가는 뉴질랜드, 싱가포르, 아일랜드 정도이다. 영어를 공용어로 채택하고 있는 47개국 중에서 3개 정도의 국가만이 경제력에서 우리보다 앞섰고, 나머지 국가의 경우는 하위권에 속한다. 이러한 통계는 영어 공용화가 국가 경

쟁력의 향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을 입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일정 수준의 경제적 토대가 있다면, 영어 공용화를 통해 국가 경쟁력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⁴⁴⁾ 현재 국제 사회는 영어권 나라가 주도권을 잡고 움직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이 영어 공용화를 시행할 경우 영어 공용화 국가 중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세 나라(뉴질랜드, 아일랜드, 싱가포르) 정도의 경제력을 갖추 수 있는가 하는 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때 천혜의 자연을 갖춘 뉴질랜드와 영국의 식민지 전통이 길었던 아일랜드는 한국의 모델이 되기 어렵다. 뉴질랜드는 언어정책과 관계없이 선진국이 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고, 아일랜드는 영국의 경제권에 완전히 편입되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국가 경쟁력과 영어 공용화의 상관관계에서 긍정적인 측면을 보여줄 수 있는 국가는 싱가포르가 될 것이다. 특히, 세계화 시대에 도약하는 국가로 남기 위해 영어를 공용어로 채택해야 한다는 논리대로라면, 한국이 모델로 삼을 만한 나라는 싱가포르이다. 싱가포르는 국제적인 무역도시로 세계 무역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듯이, 싱가포르는 19세기부터 유럽과 동아시아를 잇는 교량 항구로서 역할을 해온 도시국가이다. 현재 싱가포르는 인구 4백만의 도시국가로서 균질적(均質的)인 교육 수준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싱가포르의 예를 일반적인 국가의 예와 동일시하기는 힘든 면이 있다. 싱가포르에 비해 한국은 남북한 7천만의 인구를 가진 대형 국가이다. 중심축을 무역이나 공업에 둘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농업, 공업, 상업을 동시에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싱가포르처럼 한국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두 국제 무역의 중추 역할과 보조 역할을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런 점을 볼 때, 경제적인 측면만을 놓고 보더라도 영어 공용화가 한국 경제를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음을 증명하기란 쉽지 않다. 인도나 필리핀처럼 인구가 많고 국토가 넓은 국가의 경우, 영어 공용화가 국가 경쟁력 향상에 큰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외국 기업의 유치에 위해 그리고 국제 비즈니스의 중심축이 되기 위해 영어 공용화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측도 있다. 그러나 3장에 제시된 수출액에 근거할 때, 영어 공용어 국가인 필리핀과 인도의 경우 인구나 국토 면적에 비해 수출액은 많지 않다. 또한, 싱가포르를 제외하면, 국제 비즈니스의 중심축이 된 영어 공용화 국가를 찾을 수 없다. 그에 비해 영어 공용어 국가가 아닌 중국의 수출액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중국의 상하이와 일본의 도쿄는 아시아 금융 시장 및 비즈니스

44) 영어 공용화 반대론자들이 영어를 공용어로 하고 있는 후진국의 예를 들면서 영어 공용화의 무익함을 논할 때, 영어 공용화 찬성론자들의 반론은 항상 한국 정도의 경제적 토대를 갖춘 나라는 영어 공용화를 통해 비약적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의 중심축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는 외국 자본의 투자 조건이 시장성에 있지 언어 소통의 가능성을 우선순위로 두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 준다. 특히, 한국 기업조차 시장성을 좇아 중국으로 대부분 진출한 상황을 볼 때, 영어 공용화가 외국 자본의 투자를 촉진할 수 있다는 것은 면밀한 검증이 필요하리라 판단된다.

이외에 문화산업을 활성화하는 데 있어서 영어 공용화의 이점을 생각할 수도 있다. 영어 공용화가 되면, 우리의 우수한 문화 상품을 곧바로 국제 시장에 선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 문화의 풍부한 기반을 감안할 때, 문학이나 영화 분야에서 영어로 된 작품이 한국인에 의해 만들어진다면, 한국 문화산업의 비약적 발전을 기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영어 공용화 국가에서 독자적인 문화 산업이 발달한 나라를 찾기가 힘들다. 문화적 기반이 취약한 나라는 미국 및 영국 문화 상품을 소비하는 처지이며, 문화적 기반이 갖춰진 인도의 경우에도 주체적인 문화산업이 발전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와 관련된 단적인 예로, 필리핀의 경우 일년에 상영되는 총 영화 중 필리핀에서 만들어진 영화는 30편을 넘지 않는다는 사실을 4장에서 밝힌 바 있다. 이는 영어 공용화가 한 국가의 문화적 역량을 키우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독자적인 문화 성장을 가로막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

이상의 내용을 통해 볼 때, 영어 공용화 실시와 국가경쟁력 사이에 인과관계를 찾기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영어 공용화를 실시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이 향상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기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영어 공용화를 실시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이 약화되었다고 증명하는 것도 쉽지 않다. 이는 영어 공용화 정책이 국가경쟁력을 염두에 두면서 시행될 정책이 아님을 말해 준다. 다른 국가의 예를 통해 명확히 알 수 있는 것은 영어 공용화 정책을 시행한 국가들은 해당 국가의 정치·사회적 조건 속에서 국가 통합의 필요성에 의해 영어를 공용어로 채택했을 뿐이라는 사실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한국에서 국가경쟁력 향상이란 명목으로 실시하는 영어 공용화 정책은 그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그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 더구나 영어 공용화 정책을 시행한다면 앞서 제시한 문제점 외에도, 영어로 운용되는 행정 체계와 교육 체계를 따로 마련해야 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영어 공용화를 통해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 불확실한 경제적 이득보다 사회 운영의 체계를 재편하는 데 들게 될 비용은 보다 분명하고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5.4 영어 실력 향상의 측면

영어 공용화의 이점으로 거론되는 것 중의 하나가 영어 실력의 향상이다. 현재 한국인의 영어 실력 향상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이 생활 속에서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이라는 분석은 영어 공용화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측에서 내세우

는 중요한 논거이기도 한다. 그러나 영어공용화 정책의 실시가 한국인이 기대하는 만큼의 영어 실력 향상으로 이어진다고 말할 수는 없다.

본 연구팀이 조사한 국가를 볼 때, 이들 국가에서 국민들의 평균 영어 실력은 한국보다 높다. 이러한 판단의 근거는 이들 사회의 언어 환경이다. 싱가포르, 필리핀의 경우는 초등학교 과정부터 일반 교과목의 교과서도 영어로 되어 영어 실력이 일정한 수준에 도달해야만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인도의 경우는 중등학교부터 학교에 따라 영어로 강의하기도 하며, 대학 강의의 대부분은 영어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언어 환경이라면 평균적인 영어 실력이 향상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토플 점수의 평균치를 보면, 영어 공용화 국가의 토플 점수 평균이 한국, 중국, 일본 등 비영어 공용화 국가보다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각국 토플 점수 비교>

국가명	토플 평균 점수(2000년)
한국	533
일본	504
중국	559
인도	581
필리핀	566
파키스탄	541
인도네시아	525
대만	515
노르웨이	619
핀란드	591
프랑스	557
독일	584

한국의 토플 성적은 677점 만점에 533점이고 일본과 중국이 각각 504점과 559점인 반면, 인도는 581점이고 필리핀은 566점이다. 그러나 나라별로 응시자 수나 응시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토플 평균 점수만으로 이들 국가의 영어 실력을 비교하는 것은 힘들다. 그래도 한국, 일본, 중국 등의 토플 평균보다 영어 공용화 국가의 토플 점수가

일관되게 높다는 것은 영어 공용화 국가의 영어 실력이 높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영어 공용화 국가가 아닌 노르웨이와 핀란드의 토플 평균이 인도와 필리핀의 평균을 훨씬 웃돈다는 사실은 영어 교육 방법의 개발이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영어 공용화는 영어 실력의 향상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영어 공용화 국가의 영어가 미국이나 영국의 영어와 같지 않다는 것이다. 본 연구팀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아시아에서 영어 공용화를 실시한 국가의 영어는 미국이나 영국 영어와 차이가 났다. 학교 수업의 대부분이 영어로 이루어지고 있고, 방송과 신문에 영어가 사용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영어를 상용어(常用語)로 인식하며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점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영어가 완전한 모국어가 아닌 이상 발음, 문법 등의 영어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람은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고급 영어를 구사하기는 힘들다. 특히, 싱가포르, 인도, 필리핀처럼 다민족 국가의 통합을 위해 영어를 공용어로 채택한 경우 이들 국가에서 통용되는 영어는 자국민의 의사소통 기능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언어 구조가 단순화되는 경향이 있다. 결국, 독립적인 싱가포르 영어, 인도 영어, 필리핀 영어가 형성되는 것이다. 싱가포르는 ‘싱가포르 영어(Singlish)’라는 특이한 표현이 나타나면서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영어를 습득하는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형편이다. 인도의 경우도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극히 단순화된 구조의 영어 표현이 통용되고 있으며, 필리핀에서도 그들만의 독특한 영어 표현이 자리 잡고 있다. 이는 발음, 문법, 관용적 표현 등에 걸쳐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더욱 흥미로운 사실은 영어 공용화를 일찍 시행한 나라일수록 영어의 방언화가 더 심화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인도와 필리핀은 그러한 점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나라이다.

이처럼 일상생활에서 독특한 영어 표현이 일반화되면서, 영어 공용화 국가에서 국민들 간의 영어 수준은 상당히 차이가 난다. 교육을 많이 받고 외국 경험이 풍부한 중·상류층 사람들은 고급 영어를 구사하는 반면, 교육 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단순한 영어 표현만을 구사할 뿐이다.

3장에서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다면, 영어 공용화 국가 47개국 중 영어 사용자(영어를 제 1언어와 제 2언어로 사용하는 사람)의 비율이 50%를 넘는 국가는 16개 나라에 불과하며, 영어 공용화 정책의 성공 사례로 꼽히는 싱가포르의 경우에도 제1언어와 제 2언어로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전체 국민의 50%를 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볼 때, 영어 공용화 정책을 추진한다고 하여도 전문적인 영어 교육은 공용화 이전보다 더 강화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엄청난 규모의 교육비가 투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교육의 기회가 균등하지 않는 한 국민들 간의 영어 수준 격차는 영어 공용화 이전보다 줄어들기는 힘들고, 오히려 영

어 실력의 차이가 사회 계층의 분화로까지 확대될 소지가 있다. 4장에서 살펴본 싱가포르, 인도, 필리핀 등의 사례는 이러한 예측의 구체적인 근거가 된다.

한국이 국가 경쟁력의 향상을 위해 영어 수준의 향상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영어 공용화를 추진한다면, 대다수의 국민이 한국어를 대체하면서 동시에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고급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전 국민이 영어를 상용어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두 세대(약 60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면, 이 기간 동안 효율적인 영어 교육을 위해서는 현재보다 몇 배 많은 수의 영어 교육 전문가와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영어 실력의 향상만을 목적으로 한다면, 말레이시아의 사례를 검토해 볼 만하다. 말레이시아의 경우, 말레이어 중시 정책이 소수 민족들의 불만을 사고 있지만, 의사소통의 측면에서만 볼 때는 영어가 상용어로 자리를 잡고 있어 소수 민족이 느끼는 의사소통의 불편은 거의 없었다. 이는 말레이시아의 체계적인 영어 교육 덕분으로 보인다. 4장에서 언급하였듯이, 말레이시아는 초등학교에서 대학교까지 말하기, 읽기, 쓰기 등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체계적인 영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다. 이러한 영어 교육 때문에 말레이시아는 영어를 공용어로 채택하고 있지 않지만, 상당수의 사람들이 높은 수준의 영어 실력을 갖추고 있다.

5.5 사회 통합의 측면

앞서서 영어공용화 국가에서 영어를 공용어로 채택한 이유는 다민족 다언어 국가에서 민족적 차별 없이 국가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밝힌 바 있다. 말레이시아의 경우, 다수 민족의 언어에 우월적 지위를 인정함으로써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사실을 볼 때, 다민족 다언어 국가에서 영어공용화는 사회 통합에 일정하게 기여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특정한 이데올로기를 앞세워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언어 정책은 극심한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 본 연구팀이 조사한 국가 중 말레이시아는 일방적 언어 정책의 문제점이 드러난 예였다. 말레이시아의 경우는 영어 공용화가 합리적일 수 있는 상황에서 특정 민족어를 강요함으로써 부작용이 생긴 예에 속하지만, 현실의 언어 질서를 뒤바꾸는 급진적인 언어 정책이 갖는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예이다.

4장을 통해 파악할 수 있었듯이, 말레이시아는 실질적인 영어공용화 국가이다. 그런데 70년대 이후 인구의 약 60%를 차지하는 말레이계 인구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한 정치적 동기에서 말레이어 교육을 강화하는 정책을 펴면서 극심한 혼란을 겪었다. 식민주의를 대신한 폐쇄적 민족주의가 소수 민족의 문화적 다양성을 말살하게 되었고,

다수 중심의 일방적 언어정책은 사회적 분열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한국어를 유일 공용어로 하는 단일민족국가이다. 현실적으로 영어 공용화를 시행해야 할 어떤 조건도 갖추고 있지 않은 것이다.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 등 다민족 국가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은 복잡한 언어 정책이 필요 없는 축복받은 국가일 수도 있다. 따라서, 한국에서의 영어 공용화 정책은 급진적이고 일방적인 언어 정책으로, 한국 사회에 극심한 혼란과 분열을 부추기게 될 가능성이 크다. 말레이시아에서는 영어 공용화 정책이 혼란과 분열을 극복할 대안이 될 수 있지만, 반대로 한국에서는 영어 공용화 정책이 혼란과 분열을 부추기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말이다. 이런 점에서 한국에서의 영어 공용화 정책은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정책이 될 것이다.

앞 절에서 현재 영어 공용화 국가의 경우 영어 공용화가 다원주의적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하는 요인이 되었음을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극심한 빈부 격차는 다원주의적 문화 정체성의 의미를 퇴색시키기도 한다. 필리핀과 인도 등은 극심한 빈부 격차로 인해 영어의 능력과 사회적 능력이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필리핀의 경우는 사회적 부를 유럽계 혼혈이 차지하고 있고, 원주민들은 철저하게 사회적 부와 기회에서 소외되어 있다. 따라서, 영어로 이루어진 주류 문화 또한 일부 계층에 의해서만 향유될 수 있는 형편이다. 인도의 경우도 영어를 사용하는 계층이 사회적 부를 대부분 차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영어 공용화 정책은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이처럼 극심한 빈부 격차는 영어 교육 기회의 불균등으로 말미암아 빈부 격차를 심화시키고 사회 불안을 조장할 수 있다. 현재 인도와 필리핀의 정치 상황은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한국인들은 영어 능력이 사회적 성공의 중요한 요소라고 믿고 있다. 엄청난 영어 교육 열풍을 생각하면 한국인들이 영어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가를 알 수 있다. 실제 생활에서 영어 능력이 자신의 능력을 가늠하는 잣대가 되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입시와 입사 시험에서 영어의 비중을 고려하면 실제 생활의 필요성과 별개로 영어 능력은 사회적 성공의 중요한 요소이다. 이런 시점에서 영어 공용화 정책을 자발적으로 도입하여 추진하게 된다면, 다음 세대의 언어는 영어로 결정될 확률이 높다. 그렇다면 한국어의 위상이 급격히 하락하면서 한국어 사용자의 위상도 함께 하락할 것이다. 영어 공용화 정책이 사회통합의 방해 요인이 될 것이라는 추측은 이러한 추측과 관련된다.

그러나 현재 교육열을 감안하고 공교육이 영어 교육을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것을 전제로 판단한다면, 다음 세대의 경우 계층 간 큰 격차 없이 영어를 습득하게 된다고 볼 수도 있다. 즉, 필리핀이나 인도와 같은 계층간 영어 실력의 극심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고, 이들 나라처럼 사회 계층적 불균등 현상이 극심하지 않을 것이란 말이다. 그러나 한국어로 단일화된 의사소통의 질서를 경제논리를 근거로 뒤집어 놓는

데, 사회적 혼란이 없을 수는 없다.

첫째는 영어 실력이 계층 간 차이를 심화시킨다는 것이다. 싱가포르와 같은 나라에서도 전문직을 얻는 경쟁에서 해외파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다. 한국의 경우에도 이러한 문제를 비켜가지 못할 것이 확실하다.

둘째는 세대간의 갈등이다. 영어를 잘 하는 젊은 사람과 영어에 미숙한 노장(老壯) 세대 간의 사회적 갈등은 계층 간의 갈등 못지않게 클 것이다. 특히, 노동 능력이 우수한 장년층조차 노동 시장에서 소외됨으로써 오는 갈등이 가장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예상된다.

6. 요약 및 제언

1장에서는 오늘날 영어가 세계어로서의 위치를 가지고 있다는 데 대해 거부할 수는 없다. 역사적으로는 영어 이외에도 고대 회랍 시대의 라틴어나, 프랑스어, 독일어, 포르투갈어, 스페인어가 근대 초기에는 그들의 식민지 정복 사업에 힘입어 공용어로서의 지위를 누리기도 하였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이 영어가 누리는 정도의 막강한 힘을 가진 언어는 없었다. 영어가 이처럼 역사에 유례없는 막강한 힘을 가지게 된 데에는 정치 경제적인 배경과 사회 문화적인 배경이 있다. 일차적으로 영국의 식민지 건설은 영어가 세계의 곳곳으로 퍼져나가는 기반이 되었고 이어 미국이라는 경제대국의 등장으로 영어가 국제교류, 경제, 과학 발전의 모든 활동에서 중요한 도구로 작용하자 그 지위가 국제어에서 세계어로 뻗어나가게 되었다. 이러한 추세 속에서 우리나라는 물론 인근 국가들에서도 영어 공용화에 대한 논의가 불거져 나왔다.

2장에서는 영어를 단일어로 사용하는 국가들, 가령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등의 언어사용실태를 살펴본 후, 영어공용화 국가들에서의 언어 사용 실태를 기술하였다. 그러나 캐나다와 같이 퀘벡주와 같이 불어를 사용하는 지역과 영어를 사용하는 기타 지역으로 나누어진 사례도 있음을 알 수 있다. 2장에서는 대표적인 영어공용화 국가들인 인도, 싱가포르, 필리핀 등의 영어 사용 실태를 살펴보았다.

3장에서는 영어 공용화 국가를 세 유형으로 등급화하였다. 등급 분류 기준은 ① 언어적 측면의 기준(현재 사용 언어, 영어 공용어 여부, 영어 사용자와 모국어 사용자 수, 문맹률)과 ② 정치/문화적 측면의 기준(식민지 경험 여부), ③ 경제적 측면의 기준(수출 규모 및 현재 GNI 순위)이었다. 이 기준을 통해 분류한 결과, 영어 공용화가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분류되는 A그룹에는 3개 나라가 선정되었으며, B그룹에는 7개 나라, 그리고 대다수인 37개국은 C그룹으로 분류되었다. 이는 영어 공용화 정책이 국가의 경쟁력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것이 아님을 나타내는 것이다.

4장에서는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를 대상으로 하여, 언어 문화적 배경과 언어 정책의 방향을 알아보고, 영어와 모국어의 교육 실태 및 사용 실태에 대해 분석하였다. 4개국에서 모국어는 지성 언어(知性言語)의 역할을 할 수 없고, 생활 언어로서의 역할만을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반면 영어는 사회 전반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모국어를 대신하여 지성 언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따라서, 학교 교육은 영어를 중심으로 하여 진행되고 있었고, 모국어 교육에 대한 투자와 관심은 적은 편이었다.

필리핀은 스페인의 400년간에 걸친 식민지 통치로 종교와 문화에 막대한 영향을 받았고, 이후에 들어온 미국의 50년간에 걸친 통치로 영어와 공공 제도가 이식되었다. 오늘날 필리핀의 다원문화적 성격은 이러한 역사적 맥락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이런 이유로 필리핀의 영어 교육은 학교 교육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초등학교부터 대부분의 교과서가 영어로 되어 있어, 필리핀에서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영어가 필수적이었다. 필리핀에서 영어는 지식 사회에 접근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언어로, 전공 서적과 교양 서적은 물론이고 정론지에 해당하는 신문은 모두 영어로 되어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필리핀에서는 국가주의(nationalism)의 강화와 함께 필리핀의 문화적 통합을 강조하면서 필리핀어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을 통해 필리핀어가 지성 언어로 사회적 주도권을 잡기는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모든 교양 및 전공 서적의 언어가 영어인 현실에서 필리핀어의 확산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세계화와 함께 영어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필리핀어의 역할을 축소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말레이시아는 공식적인 영어 공용화 국가는 아니다. 그러나 말레이인 45%, 중국인 35%, 인도인 10%, 기타 10% 등의 종족 구성비를 가진 말레이시아는 20세기경 영국의 식민지배가 본격화되면서 영어가 말레이시아에 유입되기 시작했고 점차 영국 식민 정부의 통치어로서 그 사용이 확산되어 갔다. 이후 1956년에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후에도 식민지 모국인 영국과는 비교적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오면서 1970년까지 모든 수업을 영어로 진행하는 실질적인 영어 공용화 국가였다. 그러나 1970년 이후 정부 정책의 전환으로 영어 이외의 수업은 바하사 말레이어로 진행하게 된다. 이는 말레이계 인구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한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최근에는 다시 국민들의 영어 능력 저하를 우려하여 다시 영어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말레이시아의 영어 교육은 초, 중, 고의 전체 교육 과정에서 단계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초기에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등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다음 단계에서는 다양한 문형 및 광범위한 어휘를 구사하여 표현 할 수 있는 등의 작문실력을 배양시키고 마지막으로 효율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효율적이고 상세하게 표현할 수 있는 작문 실력을 갖추도록 하는 데 그 목표를 두고 이루어진다. 영어 공용화 여부와 상관없이 영어 교육의 효율성을 중시하며 실제적인 교육을 시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싱가포르에서는 말레이어, 만다린어, 타밀어 및 영어가 공용어로 되어 있다. 이 중국어(national language)는 말레이어이며 로마자로 쓴다. 다민족으로 구성된 싱가포르에서는 어느 한 민족의 언어를 국가의 언어로 인정하여 장려하고 교육하지 않는다. 따라서, 국어인 말레이어 상징적인 국어로 국가(國歌)라든가 군사용어로만 사용된다. 그리고 타밀어나 만다린 중국어는 인도인이나 중국계 싱가포르인들을 위한 언어로만

사용된다. 반면, 영어는 특정 인종집단의 언어가 아닌 중립적 언어로서, 싱가포르의 실질적인 지배언어로 자리 잡았다. 영어는 모든 공식적 기능에 사용되는 상위 언어이고 각급 수준의 모든 학교에서 가르쳐지는 유일한 언어이기도 하다. 싱가포르에서는 영어를 사용하는 것이 전체로서의 사회뿐 아니라 개인적인 단계에서도 경제적 발전을 촉진시켜 준다. 그리고 영어가 비토착 언어이기 때문에 중립적이며, 싱가포르는 영어를 통해 언어를 둘러싼 국내적 갈등을 제거할 수 있게 되었다.

인도는 다언어 사회를 오래 전부터 이루며 현재에 이르고 있다. 또한, 인도는 영국의 식민지 경험을 갖고 있다. 인도에서는 현재 18개의 공용어(Official Language)가 사용되고 있으며, 영어는 제 1공용어의 지위를 갖지는 않지만, 제 2공용어로서 인도인의 언어생활에 이용되고 있다. 인도에서 영어는 제 2공용어의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모국어처럼 자연스럽게 습득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통해서 학습된다. 이렇게 교육을 통해서 학습되는 인도 영어는 영국 영어와는 다른 성격을 갖는다. 대다수 인도인들의 영어 습득은 고전 작품을 다룬 책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대 영어와는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인도 영어는 교과서식의 딱딱한 문어체적 특성을 갖는다. 인도인의 언어 사용은 다층적이다. 비공식적 영역과 공식적 영역으로 언어 사용이 구분된다. 비공식적 영역은 내집단, 사회 활동, 종교 활동 등으로 나뉜다. 인도에서는 모국어를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영어, 힌디어, 지역어, 고전어 등을 병용한다. 영어와 고전어는 공식적 교육 과정을 통하여 학습되지만, 힌디어와 지역어는 개인적으로 습득된다. 인도는 다민족 다언어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같은 단일민족 단일 모국어의 환경과는 너무나 다르다.

5장에서는 영어 공용화 국가에서 영어 공용화 정책이 미친 영향을 ‘국가 경쟁력의 측면, 영어 실력 향상의 측면, 모국어 사용 능력의 측면, 문화적 정체성의 측면, 사회통합의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이를 근거로 한국에서 영어 공용화 정책을 시행했을 때의 이득과 손실을 가늠해 보았다.

따라서, 이 장의 내용이 곧 본 연구팀의 제언이기도 하다.

첫째, 영어 공용화 실시와 국가경쟁력 사이에 인과관계를 찾기란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영어 공용화 국가의 사례를 통해 볼 때, 영어 공용화 정책은 국가경쟁력을 염두에 두면서 시행된 정책이 아니라, 해당 국가의 정치·사회적 조건 속에서 국가통합의 필요성에 의해 채택된 정책임을 알 수 있다.

둘째, 영어 공용화 국가에서는 학교 수업의 대부분이 영어로 이루어지고, 방송과 신문에 영어가 사용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영어를 상용어(常用語)로 인식하며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점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영어가 완전한 모국어가 아닌 이상 발

음, 문법 등의 영어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람은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고급 영어를 구사하기는 힘들다. 또한, 영어 공용화 국가 47개국 중 영어 사용자(영어를 제 1언어와 제 2언어로 사용하는 사람)의 비율이 50%를 넘는 국가는 16개 나라에 불과하며, 영어 공용화 정책의 성공 사례로 꼽히는 싱가포르의 경우에도 제1언어와 제2언어로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전체 국민의 50%를 넘지 않는다는 사실을 통해 볼 수 있듯이, 영어 공용화 정책이 모든 국민들의 영어 실력을 곧바로 향상시키는 것은 아니다.

셋째, 영어 공용화 국가에서 모국어는 생활어로는 사용되지만 지성과 학술 언어로서의 기능은 거의 없었다. 기업과 국가에서 요구하는 인력이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능력 중의 하나가 유창한 영어 실력이기 때문에 학교에서의 모국어 교육이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넷째, 영어 공용화 국가의 사례를 볼 때, 영어 공용화 실시는 인종 중심적 문화로부터 탈피하여 다원주의적 문화 정체성을 수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영어 공용화 국가는 모두 다민족 다언어 국가이기 때문에 한국과 같은 단일민족 단일 모국어 국가와는 처한 환경이 많이 다르다. 다민족 다언어 국가에서 모국어와 민족 문화는 한 국가 내에서도 개별적인 것일 뿐이다. 따라서, 이들 국가에서 영어는 정체성 혼란을 부추기는 부정적 기능을 하기도 하지만, 민족의 문화적 대립을 완화할 완충제의 역할을 담당하기도 한다. 그러나 문화적 대립을 완화할 완충제 역할을 할 언어가 필요 없는 한국에서 영어 공용화는 문화적 정체성의 훼손이라는 부정적 기능만 있다. 다민족 다언어 국가로 이루어진 영어 공용화 국가에서조차 국민들의 민족 정체성 혼란이 사회 문제로 제기된다는 엄연한 현실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다섯째, 다민족 다언어 국가에서 영어 공용화는 사회 통합에 일정하게 기여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러나 영어 공용화는 사회 계층 간의 격차를 심화시켰다는 부정적인 측면을 간과할 수 없다. 즉, 민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느 정도 긍정적인 역할을 했지만, 계층 문제를 심화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사회 통합을 저해한 측면이 있다. 특히, 한국과 같이 다민족 다언어 국가가 아닌 경우에는 영어 공용화 정책이 새로운 민족 문제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으며, 계층 간 불평등을 심화시켜 한국 사회를 극심한 혼란과 분열로 몰고 갈 가능성이 크다.

<참 고 문 헌>

- 강순경(2003). 『지구촌 언어 여행』 서울 : 명지출판사.
- 국어학회 편(1993). 『세계의 언어정책』 서울 : 태학사.
- 김민수 외(1998). 『초등학교 영어교육과 민족어의 장래』 서울 : 고려대출판부.
- 김민수(1974). 『국어정책론』 서울 : 고려대출판부.
- 김여수(1997). 『언어와 문화』 서울 : 철학과현실사.
- 김영명(2000가). 『나는 고발한다』 서울 : 한겨레출판사.
- 김영명(2000나). “세계화와 언어 문제.” 『동아시아의 세계화와 언어제국주의』,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20회 국제학술대회발표회 발표 논문 (2000.11.10 세종문화회관).
- 김영명(2002). 『우리 눈으로 본 세계화와 민족주의』 서울 : 오름.
- 김영환(1998). “영어 공용화는 사회 발전의 피할 수 없는 요구이다.” 『시대정신』 11·12월호.
- 김영환(1999). “민족주의와 우리 언어의 미래 - 성낙주 씨 비판에 대한 비판-.” 『시대정신』 3·4월호.
- 남영신(1998). “세계화 위해 민족 버리자고.” 조선일보 7월 7일자 13면.
- 데이비드 크리스털(2002). 『왜 영어가 세계어인가』 유영난 옮김. 서울 : 들녘.
- 마루야마 게이자부로(2002). 『존재와 언어』 고동호 옮김. 서울 : 민음사.
- 맹주억(2000). “국제화와 중국의 언어 변화.” 『동아시아의 세계화와 언어제국주의』,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20회 국제학술대회발표회 발표논문(2000.11.10 세종문화회관).
- 민현식(2000). “공용어론과 언어정책.” 『이중언어학』 (이중언어학회) 17.
- 바이스게르버(1993). 『모국어와 정신형성』 서울 : 문예출판사.
- 박병수(2000). “영어의 열풍.” 『한글사랑』 (한글사) 13.
- 박영배(2001). 『앵글로 색슨족의 역사와 언어』 서울 : 지식산업사.
- 박영순(1997). 『이중 다중 언어 교육 - 세계의 언어교육과 한국의 언어정책 과제 -』 서울 : 한신문화사.
- 시정곤·정주리·장영준·박영준·최경봉(2003). 『한국어가 사라진다면 - 2023년, 영어 식민지 대한민국을 가다 -』 서울 : 한겨레신문사.
- 박이문(1998). “탈 민족주의에는 찬성 - 영어 공용어 시기상조 -.” 조선일보 7월 18일자 16면.

- 백경숙(2000). “영어 공용화론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소고.”
『사회언어학』 (한국사회언어학회) 8-1.
- 변광수 편저(2003). 『세계 주요 언어』 서울 : 역락.
- 복거일(1998). 『국제어 시대의 민족어』 서울 : 문학과 지성사.
- 복거일(2000). “소위 민족주의자들이여! 당신네 자식이 선택하게 하라.”
『신동아』 3월호.
- 복거일(2003). 『영어를 공용어로 삼자』 서울 : 삼성경제연구소.
- 성낙주(1999). “영어 공용화론은 민족의 생존을 담보로 한 환상이다.”
『시대정신』 1·2월호.
- 스티븐 핀커(1998). 『언어본능 - 상 - 정신은 어떻게 언어를 창조하는가』
김한영 · 문미선 · 신호식 옮김 . 서울 : 그린비.
- 안영호(2001). “말레이시아의 제 2언어 교육에 관한 고찰 - 영어교육을 중심으로-.”
『외국어연구논집』 7권.
- 안정호(2000). “영어에 미친 나라.” 『한글사랑』 (한글사) 13.
- 에밀 벤베니스트(1999). 『인도 · 유럽사회의 제도 · 문화 어휘연구 1』 서울 : 아르케.
- 올리비에 르블(1994). 『언어와 이데올로기』 서울 : 역사비평사.
- 원윤수 엮음(2000). 『언어와 근대정신 - 16, 17세기 프랑스의 경우』
서울 : 서울대출판부.
- 이민홍(2002). 『언어민족주의와 언어사대주의의 갈등』 서울 : 성균관대출판부.
- 이병혁(2000). “세계화와 남북한 언어 문제.” 『동아시아의 세계화와 언어제국주의』, 한림
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20회 국제학술대회발표회 발표논문(2000.11.10 세종
문화회관).
- 이연숙(2000). “일본의 영어공용어화론.” 『동아시아의 세계화와 언어제국주의』,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20회 국제학술대회발표회 발표논문
(2000.11.10 세종문화회관).
- 이영석 외(2002). 『세계화시대의 국제어』 서울 : 동남기획.
- 이재진(2000). “언어정책 이대로 좋은가.” 『한글사랑』 (한글사) 13.
- 이정호(1995). “인도의 언어 현황과 문제.” 『한국커뮤니케이션학』
(한국커뮤니케이션학회) 3.
- 이정호(2001). “인도의 공용어와 힌디 - 현황과 전망-.” 『커뮤니케이션학 연구』
(한국커뮤니케이션학회), 9.
- 이혜란 외 역(1995). 『2개 언어상용과 그 이론』 서울 : 한국문화사.
- 임지현(1999). 『민족주의는 반역이다』 서울 : 조합공동체 소나무.
- 정과리(1998). “영어, ‘내것화’가 관건이다.” 조선일보 7월 14일자.

- 정시호(1998). “영어를 공용어로 할 것인가? - 복거일씨의 견해에 붙여서 -.”
『언어과학연구』 (언어과학회), 15.
- 정시호(2000가) “영어 찬미주의자들에게 엄중 경고함.” 『신동아』 4월호.
- 정시호(2000나). 『21세기의 세계 언어전쟁 - 영어를 공용어로 할 것인가』
대구 : 경북대출판부.
- 조동일(1999). 『공동문어문학과 민족어문학』 서울 : 지식산업사.
- 조동일(2001). 『영어를 공용어로 하자는 망상』 서울 : 나남.
- 조숙환 외(2000). 『인간은 언어를 어떻게 습득하는가』 서울 : 아카넷.
- 진중권(1998). “복거일, 당신은 ‘멋진 신세계’를 꿈꾸는가.” 『월간 말』 1999.1.
- 최원식(1998). “영어공용화론, 서구 패권주의 연장.” 조선일보 7월 21일자.
- 최은경(2000). 『세계 영어들의 정체성 - 그 신화와 실제』 서울 : 한국문화사.
- 최인호(2000). “우리말글과 세계화.” 『한글사랑』 (한글사) 13.
- 최종찬(1998). “다언어사회 속의 인도영어.” 『인도연구』 (한국인도학회) 3.
- 한국하이데거학회 편(1998). 『하이데거의 언어사상』 서울 : 철학과 현실사.
- 한영우(1998). “지구제국은 강대국 희망사항이다.” 조선일보 7월 10일자.
- 한학성(2000). 『영어 공용어화 과연 가능한가』 서울 : 책세상.
- 함재봉(1998). “영어공용화는 반 민족주의 아니다.” 조선일보 7월 20일자.
- 홍성민(2000). “우리 언어의 정체성과 탈식민주의.” 『동아시아의 세계화와 언어제국주의』,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20회 국제학술대회발표회 발표
논문(2000.11.10 세종문화회관).
- 홍세화(1999). “불쌍한 한국어.” 『췌느강은 좌우를 나누고 한강은 남북을 가른다』
(한겨레신문사).
- 홍인표(1994). 『중국의 언어정책』 서울 : 고려원.
- 후나바시 요이치(2001). 『나는 왜 영어 공용어론을 주장하는가』
홍성민 옮김. 서울 : 중앙 M&B.
- Baldrige, J(2002). “Linguistic and Social Characteristics of Indian English.”
Language In India 2-4.
- Barry Tomalin et. al.(1993). *Cultural Awareness*, Oxford : Oxford University Press.
- Baugh, Albert C. & Cable Thoms(1978). *A History of the English Language*(3rd
Edition), London : Prentice-Hall Inc.
- Bright, William ed.(1992).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Linguistics*, New York
: Oxford Press.
- Crystal, David(1998). *English as a Global Langua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Denison, Norman(1977). "Language death or language suicide?"
International Journal of the Sociology of Language 12.
- Dixon, R. M. W.(1997). *The Rise and Fall of Langua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Dressler, Wolfgang(1977). "Language preservation and language death in Brittany."
International Journal of the Sociology of Language 12.
- Goldberg, D. Th.(1994). *Multiculturalism*, Blackwell.
- Government of India(1949). *Report of the Central Advisory Board of Education*,
 15th meeting, Jan.
- Government of India(1995). *Mass Media in India 1994-1995*, New Delhi:
 Ministry of Information and Broadcasting.
- Grenoble, Lenore A. & Whaley, Lindsay J.(1998). *Endangered Languag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ouis-Jean Calvet(2001). 『언어 전쟁』 김윤경 · 김영서 옮김. 서울 : 한국문화사.
- McCrum, Robert, William Cran, and Robert NacNeil(2002).
The Story of English, New York: Penguin Books.
- Mallikarjun, B(2001a). "Language According to Census of India."
Language In India 1-2.
- Mallikarjun, B(2001b). "Language(s) in the School Curriculum: Challenges of the
 New Millenium." *Language In India* 1-4.
- Mallikarjun, B(2002). "Mother Tongues of India According to the 1961 Census."
Language In India 2-5.
- Mallikarjun, B(2003). "Globalization and Indian Language." *Language In India* 3-2.
- Mühlhäusler, P.(2000). *Linguistic ecology: Language change and linguistic
 imperialism in the Pacific region*, London : Routledge.
- Parasher, S. V.(1991). *Indian English: Functions and Form*, New Delhi
 : Bahri Publications.
- Pennycook, A.(1994). *The Cultural politics of English as an international language*,
 London : Longman.
- Phillipson, R.(1992). *Linguistic Imperialism*, Oxford : Oxford University Press.
- Phillipson, R.(2000). "The Globalization of English."
 『동아시아의 세계화와 언어제국주의』,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20회 국제학술대회발표회 발표논문 (2000.11.10 세종문화회관).
- Robert L. Hardgrave(1974). *Indian Government and Politics in a Ministry of
 Home Affairs*, Department of Official Language,

Complication of Orders Regarding the Use of Hindi.

Smith, L. E.(ed.)(1983). *Readings in English as an international language*,
Oxford : Pergamon Press.

<http://rajbhasha.nic.in/dolacteng.htm>

<http://www.languageindia.com/nov2001/1991Languages.html>

영어를 공용어로 쓰는 국가의 언어 실태와 문제점

2003. 12. 9. 인쇄

2003. 12. 9. 발행

발행자 : 문화관광부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82-1

전화 3704-9420

인쇄처 : 과학문화사

전화 867-2323

ISBN : 89-7820-104-0 93710